

코로나19 뚫고... '1조 달러 클럽' 중 3위 수출성장률

연간·월간·중소기업·신성장·콘텐츠·농식품 부문서 올 수출 사상 최고 기록 경신 행진

올해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여 2018년 달성한 6049억 달러 규모를 넘어 6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10대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무역 강국 중 하나로 우뚝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의 성과로 ▷최단기 무역 1조 달러·최대 수출액 동시 달성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선도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증가세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약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과와 소부장 대일본 수입 비중 하락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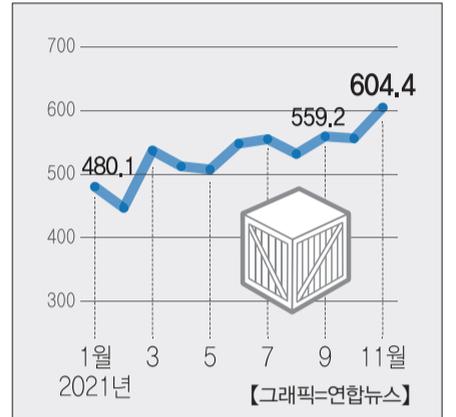
무역액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6.21%로 중국(33.0%)과 이탈리아(27.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더욱 커지며 11월에는 월간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 서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발 교역 침체에 주요국 대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우수한 방역체계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 ▷신남방·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저변 확대 ▷수출 물량과 단가의 고른 성장세 등을 꼽았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올해 누계 수출금액이 역대 1위를 달성하고 온라인 수출금액이 3분기 들어 전년 동분기 대비 74.9% 증가하는 등 최근 수출 호조세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수출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출, 콘텐츠 수출 등도 한류 전파에 힘입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부가가치 신성장품목들이 선전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OLED,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수출에서 4분의 1 규모를 책임져 왔던 반도체 품목의 경우 호황기를 맞아

■ 월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큰 성장 폭을 보였음에도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줄고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도 사상 최대 수출 규모 달성 못지않게 뜻 깊은 성과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했던 2018년과 달리, 승용차·무선통신기기·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채 기자



분주한 부산항 12월 1일 부산항 신선대·김만부두에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중 우리나라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4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산=연합뉴스】

오늘 제58회 무역의 날 특집 20~43면

한국, 내년 2월초 RCEP 발효 전망

국회 본회의 통과... 중국·일본은 1월 1일 발효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RCEP 발효는 내년 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를 발효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

자 무역협정이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RCEP가 15개국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된다. 또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김보근 기자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 인터넷 송금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 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이집트 진출 노리는 K-9 자주포... '제2천궁' 될까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린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 2021)에서는 한국 K-9 자주포(사진)의 이집트 수출 협상이 진행됐다. 계약이 성사되면 K-9 자주포는 처음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EU·영국 등 32개국, 중국에 '개도국 관세혜택' 폐지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등 32개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 혜택(일반특혜관세제도·GSP)이 12월 1일부터 폐지됐다고 <베이징청년보>가 최근 보도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부여한 관세 감면 제도로 처음엔 40개국이 중국에 이 혜택을 부여했다. GSP 폐지는 중국을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2014년 스위

스, 2019년 일본, 지난달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각각 중국에 대한 GSP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GSP를 유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만 남게 됐다.

신문은 "감면 혜택을 중단하면 수출업체들이 한동안 압박을 받겠지만,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유정 기자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인권, 고용, 환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이의신청사건의 주선을 제공하여 기업의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함께 지키면 모두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라인, 한국NCP가 함께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정보공개 / 인권 / 고용 / 환경 / 뇌물 /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 공정경쟁 / 조세 등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난데없는 오미크론, 수출 앞길 가로막나... 글로벌 공급망도 '조마조마'

백신 보급이 확산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던 지구촌에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급격한 전파 속도에 놀란 각국은 다시 봉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상화로 가던 글로벌 공급망도 발목을 잡히고 있다. 수출입에 다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11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11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점은 현재로서는 빠른 전파 속도다. 진원지로 지목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환자일 정도이며 불과 1~2주 만에 유럽, 중동, 아시아, 미주 대륙에까지 퍼졌다.

아직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속성을 파악하는 데 2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각국의 봉쇄가 시작됐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 위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우

리나라도 모든 해외여행자에 대해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일부터 10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모임도 다시 제한된다.

해외여행은 녹기도 전에 얼어붙었고 수출입 상담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위한 국제 이동이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가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은 이미 참가가 결정된 해외 전시회 개막일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내년 아시아 국내총생산(GDP)이 1.6%p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영국 리서치 기업 'TS롬바드'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국가는 팬데믹 여파로 공장 문을 닫았다가 가까스로 수출 재개에 나선 상황인데, 오미크론은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선박과 화물 통제, 항구 검역 강화 등에 나선다면 물류대란이 다시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의 일상화가



11월 29일 모로코 라바트 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이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모로코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 모든 외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바트=AP/뉴시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하강 신호 속 오미크론(Omicron wave) 발 경착륙 리스크 직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거나 또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후퇴할 경우 또 다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KIEP, 2022년 세계 경제 '대전환'에 4.6% 성장 전망

'제11차 KIEP-IMF 공동콘퍼런스' 개최 공급망 재편·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해야



'2022년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대전환'을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진행하는 '제11차 KIEP-IMF 공동콘퍼런스'가 12월 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KIEP 제공]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글로벌 대전환'을 맞아 공급망 병목·교란·단절·지역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1차 KIEP-IMF 공동콘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다.

글로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양 기관의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2022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팬데믹 이후 글로벌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아시아 지역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홍중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 2022년에는 생활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등 글로벌 대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의 제약 ▷민간의 병목·지체 현상 ▷불확실한 국제공조 환경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요 리스

크 요인에 대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2년 세계 경제는 2021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며 4.6% 성장률(2021년 대비 -1.3%p)을 기록할 것으로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은 2022년에도 경기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경제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했으며, 주요 신흥국은 델타 변이 통제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 미국(3.8%, 2021년 대비 -2.1%p) ▷유로존(4.6%, 2021년 대비 -0.4%p) ▷일본(3.3%, 2021년 대비 +0.9%p) ▷중국(5.5%, 2021년 대비 -2.6%p) 등 주요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은 경제, 환경 등의 체질 및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러운 정책환경 변화의 부작용도 겪을 수 있는데, 2022년에는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성배 실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백신 접종의 격차, 주요국

간 통화정책 조율 문제, 미중갈등 재점화 등 국제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샤나카 페리스(Shanaka J. Peiris)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장은 아시아 지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6.5%)보다 감소한 5.7%로 전망하고, 한국 경제는 2021년 4.3%, 2022년 3.3%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는 백신 접종 및 정책지원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 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각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델타 변이 관련 불확실성, 공급망 교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과급효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의 흐름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회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 디지털 및 환경 부문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서다스 코타리(Siddharth Kothari)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자유화가 아시아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가져온 것이 무역이었음에도 비관세장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팬데

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형민 KIEP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조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비용 측면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연계성이 강화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으로 생산의 지역화와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보건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망 단절 등에 대응하는 단기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녹색 경제 등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밖에도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 최낙균 KIEP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영채 기자

KOTRA, '역대 최대' 온라인 마케팅 사업... 바이어 5000개사 참가

KOTRA 사업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 한국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온라인 수출산업대전'에는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소상공인 기업 등 우리 중소기업 약 3000개사가 참여해 5000여 바이어를 만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수출산업대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에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품목별 상품 온라인 전시 ▷해외바이어와의 대규모 온라인 상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마케팅에 필수적인 상품홍보 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의 디지털콘텐츠는 지난 10월부터 KOTRA가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제작된 콘텐츠는 현재 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와 KOTRA의 온라인 B2B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와 연동돼 전시 중이다.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이 발굴한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대규모 온라인 상담도 보름 동안 진행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문 통역원을 배치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참가기업 언박싱(Unboxing) 행사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소상공인 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참가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출장길이 막혀 해외 영업을 막막하던 와중에 이번 행사의 온라인 상담 등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유정 기자

2022 무역아카데미 교육과정 안내

World Trade Academy
Course Guide 2022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회원사 여부
확인하기

무역실무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한급] 정규무역실무	3월, 4월, 7월, 10월	12일(36h)	18:40~21:40	37만원	47만원
[한급] 쉽게 배우는 기초 무역서류 이해 A to Z	3월, 5월, 8월, 10월, 12월	1일(7h)	09:00~17:00	15만원	19만원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과정(아간)	2월, 5월, 7월, 10월	6일(18h)	18:40~21:40	29만원	36만원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과정(주말)	3월, 6월, 9월, 11월, 12월	3일(18h)	10:00~17:00	29만원	36만원
[한급] 신입사원 무역실무과정	1~12월(12회)	4일(24h)	10:00~17:00	36만원	46만원
[한급] 무역 생초보를 위한 핵심기초 무역실무	1~6월, 8~11월(10회)	3일(18h)	10:00~17:00	31만원	39만원
[한급]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1월, 3월, 6월, 9월, 12월	1일(8h)	09:00~18:00	16만원	20만원
[한급] 수입무역실무와 해외소싱기법	3월, 6월, 8월, 10월	2일(14h)	10:00~18:00	24만원	30만원
기초영문 Biz 메일 및 무역서식 작성	2월, 4월, 7월, 9월	2일(12h)	10:00~17:00	24만원	30만원
글로벌 소싱전략 및 공급사관리 실무	1월, 3월, 5월, 7월, 10월	2일(12h)	10:00~17:00	24만원	30만원
수출입 물류비절감 핵심실무	3월, 5월, 9월, 11월	1일(6h)	10:00~17:00	14만원	18만원

무역실무 (부문별 심화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한급] 수출입시의 각종 리스크 관리	2월, 5월, 9월, 11월	3일(19h)	10:00~17:00	31만원	39만원
관세 실무 및 환급 심화 과정	2월, 5월, 9월, 11월	2일(12h)	10:00~17:00	24만원	30만원
신용장 전문가 과정	4월, 6월, 10월	3일(18h)	10:00~17:00	31만원	38만원
수출입 계약 및 대금결제 심화 과정	1월, 4월, 8월, 10월	2일(12h)	10:00~17:00	24만원	30만원

FTA

* FTA 과정 수료 시, 원산지관리담당자 교육점수 부여가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FTA 종합무역실무	3월, 5월, 10월	3일(18h)	10:00~17:00	15만원	19만원
FTA 기본	3월, 5월, 10월	1일(8h)	09:00~18:00	12만원	15만원
FTA 원산지관리 및 서류작성 시뮬레이션	4월, 6월, 11월	2일(12h)	10:00~17:00	16만원	20만원

창업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글로벌 무역업 창업 첫걸음	3월, 6월, 8월, 11월	3일(18h)	10:00~17:00	31만원	39만원

무역마케팅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실전 비즈니스 협상 전문가 과정	4월, 9월, 11월	3일(21h)	10:00~18:00	34만원	42만원
실전 활용 비즈니스 협상 전략 에센스	6월, 10월	1일(8h)	09:00~18:00	16만원	20만원
바이어를 사로잡는 전시마케팅	2월, 6월, 11월	2일(12h)	10:00~17:00	23만원	27만원
[한급]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4월, 6월, 9월, 12월	3일(21h)	10:00~18:00	34만원	42만원
글로벌 e마케팅 전문가 과정	4월, 7월, 10월	3일(18h)	10:00~17:00	33만원	38만원
구글 온라인 마케팅 과정	3월, 6월, 9월, 11월	2일(12h)	10:00~17:00	23만원	27만원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일(7h)	10:00~18:00	15만원	19만원
소피 글로벌 플랫폼 과정	3월, 6월, 9월, 11월, 12월	1일(7h)	10:00~18:00	15만원	19만원
아마존 활용 글로벌 셀러 양성과정	2월, 6월, 9월, 11월	2일(16h)	10:00~18:00	27만원	32만원
식품 Trade Expert	2월, 5월, 7월, 10월	3일(21h)	10:00~18:00	27만원	33만원
화장품 Trade Expert	3월, 6월, 9월, 11월	3일(21h)	10:00~18:00	27만원	33만원
의류섬유 Trade Expert	3월, 5월, 9월, 11월	3일(18h)	10:00~17:00	21만원	25만원

외환금융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손에 잡히는 환리스크 관리(기초)	2월, 4월, 6월, 8월, 10월	1일(8h)	09:00~18:00	12만원	15만원
외환딜러가 알려주는 환율/원자재 노하우	4월, 6월, 10월, 12월	1일(8h)	09:00~18:00	19만원	23만원

자격시험 대비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
핵심만 콕콕 배우는 국제무역사 1급 대비반	1월, 7월	4일(32h)	09:00~18:00	300,000

OA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무역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Excel 활용 기법	2월, 7월	1일(8h)	09:00~18:00	15만원	19만원
비즈니스 PowerPoint 문서 작성법	3월, 9월	1일(7h)	10:00~18:00	15만원	19만원

취업연계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및 모집인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
무역마스터 과정	41기 2021년 3월~9월(60명)	6개월(750h)	09:30~17:00	200만원
Global e-Commerce 마스터 과정	2기 2022년 2월~6월(40명)	4개월(400h)	09:30~17:00	200만원
	3기 2022년 8월~12월(40명)			
KITA 디지털 마스터 과정	1기 2021년 11월~2022년 5월(30명)	6개월(840h)	09:00~17:00	100만원
	2기 2022년 5월~11월(30명)			
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	42기 2022년 3월~12월(90명)	9개월(1,200h, 리뷰 별도)	09:00~18:00	160만원
취업스킬UP! 교육과정	2, 3, 8, 9월(20명)	1일(6h)	10:00~17:00	무료

CEO 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및 모집인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수강료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 (GLMP)	34기 2022년 3월~6월(40명)	3.5개월, 월/수	(월)19:20~20:50 (수)07:20~08:50	800만원
	35기 2022년 9월~12월(40명)		(월)19:20~20:50 (수)07:20~08:50	

자격시험

시험명	시험일시 및 접수기간	시험장소	응시료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오프라인)	50회 2022년 2월 26일(토) 51회 2022년 7월 16일(토) *접수기간, 접수방법 등 상세내역은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제주	4만원

Be a Competent
International TraderBe a Strategic
Global MarketerBe a Professional
Trade Expert카카오톡에서
무역아카데미를
만나보세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전시장 4층

TEL. 02-6000-5378/9

Homepage. www.tradecampus.com

역직구 인기 상품은? 미국은 마스크, 러시아는 BTS 앨범

G마켓 글로벌샵, 1~11월 6개 지역 인기 품목 공개

지난해 G마켓 글로벌샵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 상품으로 K-팝 스타들의 앨범과 뷰티, 위생용품, 유아동 브랜드가 각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고객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역직구 플랫폼 G마켓 글로벌샵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6개 지역의 인기 상품 1~3위를 집계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홍콩, 미국에서는 KF94 마스크를 가장 많이 구매했고, 대만에서는 국산 유아 범퍼 매트, 태국에서는 코리아나 앰플을 가장 많이 샀다. 러시아에서는 K-팝 아티스트의 인기로 방탄소년단(BTS), 스트레이 키즈

(Stray Kids) 앨범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홍콩은 KF94 마스크, 이니스프리 화장품, 유아 베이비룸의 인기가 높았고, 대만은 유아 범퍼 매트, 놀이방 매트, 바닐라 코 클린 잇 제로 등 뷰티·유아동 제품이 구매 상위권에 올랐다. 미국은 KF94 마스크, 몬스타엑스(MONSTA X) 앨범, 에이티즈(ATEEZ) 앨범을, 태국은 코리아나 앰플, KF94 마스크, 아토팜 수딩젤이 매출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싱가포르에는 스펙트라 유축기, 엔시티 드림(NCT DREAM) 앨범, 엔하이픈(ENHYPEN) 앨범이, 러시아는 방탄소년단 앨범, 스트레이 키즈 앨범,

더블유드레스룸(Wdressroom) 드레스퍼품 등 뷰티·K-팝이 가장 많이 팔렸다.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판 블프인 G마켓 글로벌샵의 '메가G' 행사에서는 6개 지역 중 태국,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4곳에서 K-팝 상품이 1위를 차지해 K-컬처 열풍을 증명했다. K-컬처를 소개하는 G마켓 글로벌샵 공식 유튜브 채널 '인싸오빠(INSSA OPPA G)'는 구독자가 51만 명을 돌파했다.

G마켓 글로벌샵 독점 콘텐츠를 강화하며 브랜드와 커머스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판매자들을 위해 상품 등록, 결제,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위한 해외 판매 전담 상담원도 배치했다. G마켓 글로벌샵 판매자들을 위한 인천 물류창고 운영을 통해 물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은 해당 물류창고에서 합배송해 전 세계에 배송한다.

이주철 G마켓 글로벌샵 본부장은 "K-컬처의 활황으로 BTS 외에도 다양한 K-팝 스타들의 앨범이 1위를 차지했고 기존 인기 상품인 뷰티 상품과 한국산 위생용품, 유아동 브랜드들의 강세가 돋보였다"며 "G마켓 글로벌샵은 역직구 사이트이자 K-컬처를 전파하는 콘텐츠 커머스 채널로써 국산 브랜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5년 연속 300만TEU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5년 연속 300만TEU를 돌파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가집계) 11월 24일 300만TEU를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300만TEU 돌파일보다 8일 단축된 날짜라고 밝혔다.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물동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상반기 인천항 2대 교역국인 중국, 베트남 물동량 증가율이 각각 9.3%, 14.4%로 급증한 것과 신규항로 6개 유치로 개항 이래 최다 정기항로 운영(66개)을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운항 빈도수 증가 등이 꼽힌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약 2년 만에 대면 수출마케팅 행사 재개

무협,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개최



12월 1일 개막한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오른쪽)이 이번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한 바이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팬데믹 기간 언감생심이었던 대면 수출 상담을 위해 해외기업 8개사가 방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제14회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이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처럼 밝혔다.

해외마케팅종합대전은 무역협회가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연중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다. 올해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

을 진행하는 해외 바이어 8개사를 포함해 중동, 아시아, 남미 등 31개국 231개사가 국내 소비자, 산업재, 서비스기업 740개사와 이틀 간 온·오프라인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지난 2년간 우리 협회는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무역업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 해외 판로 개척을 꾸준히 지원해왔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의 노력 덕분에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이 기대된다"며 "수출기업과 바이어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번 행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가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한 러시아 주얼리, 액세서리 수입유통사 레기온 졸로토프의 세르게이 로모프 바이어는 "팬데믹 이후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한 할랄 식품 유통기업 아시아벨의 관계자는 "한국의 할랄 인증식품을 유럽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도의 재벌 유통그룹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텔콤

인도네시아, 중동 최대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인 에어리스 마린 등 소비자부터 산업재까지 각 분야 빅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합심해 다양한 마케팅 행사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전문무역상사 상담회에서는 상사와 제조기업, 상사와 바이어간 상담이 이루어지고 특히 대학생 수출하트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제품들의 실제 수출 가능 여부를 제조기업

과 논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K-콘텐츠 상담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는 'K-스포츠 상품·서비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출기업 디지털 마케팅 전략 세미나, 해외 인플루언서 한류제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등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김영재 기자

최영진의 풍경

늦가을



인적 없는 들녘, 하늘은 높고 아파트는 살진다.

【사진가】

무역회사 상대 외환사기 기승... 5년간 1379억 원 피해

해외 수출업체 행세 많아... 사기 알면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감독원은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사기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 거래 피해 건수는 총 2582건으로, 피해 금액은 1379억 원(1억1600만 달러) 상당에 달했다. 연평균 516건, 276억 원(2320만 달러) 규모다.

사기 피해 금액은 총 63개국으로 송금됐는데, 이 가운데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중국·태국 등 5개국에서

수취한 금액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주요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집단이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해킹해 해외의 수출업체 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기 집단은 국내 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런 사기업체의 경우 장기간 거래 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집단이 무역 사기 거래 과정에서 제3의 국내 업체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국내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사기에 연루되는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워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며 각 은행이 유사한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가능성이 큰 거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인지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한 뒤 거래를 취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거래처와 이메일·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뒤 송금할 것을 각 무역회사에 당부했다. 중개무역을 제안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불법 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외환 무역 사기 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유정 기자

‘사드 한한령’ 이제 풀어나... 한국영화 중국서 6년 만에 개봉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 본토 개봉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국 영화가 6년 만에 중국에서 정식 개봉된다.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나문희, 이희준 주연의 한국 영화 ‘오! 문희’가 오는 3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다. 중국영화그룹이 수입해 차이나필름이 배급했고, 11월 30일 중국 국가영화국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세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오! 문희’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코믹 수사극 형식의 가족 드라마로 작년 9월 국내 개봉해 35만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한국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정식 개봉하기는 2015년 9월 전지현, 이정재 등이 주연한 ‘암살(감독 최동훈)’이 상영된 이후 6년여 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발동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는 정식 개봉되지 못했고, 한중 영화 합작도 중단됐다.

한중 간 외교 교섭을 거쳐 2017년 10월 강

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한한령도 중단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국 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은 그 후로도 4년여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이 외국 영화에 대해 스크린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한령 이전엔 연간 한국영화 2~3편 정도가 중국에서 개봉됐으나 한한령 이후로는 베테랑, 써니 등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들만 일부 중국

에서 개봉했었다. 한국 영화 판권을 산업자가 중국 당국에 개봉을 신청하면 줄줄이 불허당하는 양상이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 문희’의 개봉과 더불어 한국 배우 이동욱이 잡지 GQ 중국어판 12월호 표지모델로 등장한 것을 화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 허가가 난 데 이어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하게 되자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베이징=연합뉴스



**비싸고 복잡한
기업 해외 송금**

“**센트비즈는
다르다던데?**”

1:1 맞춤형 컨설팅
무료로 받아보세요
sentbiz.com



기업 전문 해외 송금·결제 서비스 SENTBIZ

- ① 누적 송금액 1.8조
- ② 24/7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해외 송금·결제
- ③ 50% 이상 저렴한 송금 수수료



가입 문의

02-6959-7448

취임 100일 맞은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계열사마다 새 먹을거리 발굴... 쌍방울 울리며 세계로

“○○○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쌍방울을 모르면 간첩이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쌍방울은 옛 경영진들의 무주조트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법정관리의 시련을 겪었고 곡절 끝에 2014년 특장차업체인 광림에 인수됐다. 그리고 지주회사 칼라스홀딩스를 중심으로 8개 기업이 그룹을 이뤄 새로운 ‘쌍방울그룹’이 됐다. 지난 7월 이 쌍방울그룹의 새 지휘자에 양선길 회장이 취임했다. 양 회장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현주소와 꿈에 대해 들어봤다.

–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광림이 쌍방울을 인수했다. 그런데도 그룹명이 쌍방울그룹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가.

쌍방울은 굉장히 국민적인 브랜드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그룹의 이름을 바꿀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광림보다는 쌍방울이 훨씬 더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라고 생각해 쌍방울그룹으로 결정했다. 실제,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 당시에도 우리는 광림·미래산업·아이오케이로 구성된 광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언론에서는 광림컨소시엄 대신 ‘쌍방울그룹’으로 기사가 더 많이 전파됐다. 쌍방울이 대한민국 대표 국민 기업이라 그렇게 결정했다.

– 쌍방울, 광림, 나노스, 비비안, 미래산업, 인피니티엔티, 디모아, 아이오케이(IOK) 등 계열사가 그룹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각각의 핵심사업 분야가 다르다. 쌍방울이라는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하나로 묶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쌍방울그룹은 현재 8개 계열사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M&A를 통해 계열사가 많이 늘어났고 챙겨야 할 가족이 많아졌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 계열사들이 각각의 다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 긴밀한 소통은 우리 그룹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서로 더욱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가족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구성했고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매주 1~2회 부회장 및 계열사 대표들과 회의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개개인별 소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최대한 계열사에 자생력과 책임감을 늘 강조하고 있다. 내가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이지만, 각 계열사에는 대표이사들이 포진해 있고 밑으로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다. 각각의 기업들이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며, HQ와도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본연의 사업들을 잘 소화하고 있다.

– 현재 나노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나노스는 기존 핵심사업(광학필터) 이외에 바이오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나노스는 광학필터와 홀센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먹을거리가 무엇일까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바

이오다. 나노스는 지난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300억 원의 자금조달을 통해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국내 많은 제약사들은 수십 년간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던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보다는 세계적으로도 고속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록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더 나은 기술과 함께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됐다.

–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

실제 지난 3월 독일 코든파마와 지질나노입자(LNP)와 CDMO 플랫폼의 한국 생산·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쌍방울그룹 제공】

독점 공급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나노스는 코든파마가 생산하는 LNP의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게 됐다. 코든파마는 잘 아시다시피 모더나의 mRNA 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질 비산물을 독점 공급해오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했고, 향후 합작법인(JV)이나 투자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기 전의 회사를 발굴해 가치를 더욱 키우는 방향도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객사의 개발, 생산 등 임상 계획에 맞춰 CDMO 사업을 잘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고 올해 말 혹은 2022년 초에는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광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세간의 관심이 많다.

광림은 특장차 전문 기업으로, 향후 전기 및 수소 특장차 등 탄소 관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장차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친환경차량은 전기에 대한 충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공해가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체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태양광과 풍력을 선택,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평가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실제로 신재생 사업으로 발전되고 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 특장차에 충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4~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광림은 풍력 발전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광림이 전기특장차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광림은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 에너지로 충전된 전기특장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풍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림의 해상크레인을 해상풍

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구조변화와 전략제품 출시 등을 통해 젊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 쌍방울의 주력 유통 채널인 재래시장 로드샵을 통해 고정고객을 유지하고 MZ세대 타겟 기획 제품을 출시하며 폭넓은 고객층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한 여성 전용 이너웨어 라인 ‘하나만(HANAMA)’과 심리스 라인 ‘심프리(SEAMFREE)’, 원마 일웨어 ‘홈엔(HOME&AND)’ 등의 MZ세대 전략 제품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여 MZ세대에게 어필하고자 노력 중이다.

비비안은 여성용 파운데이션, 라제리, 스타킹 등을 주요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쌍방울과 마찬가지로 젊은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올 한해 MZ세대 전략 기획 제품 출시와 신규 브랜드 론칭 등을 진행했다. 기존 비비안 브랜드에서 벗어나 아웃웨어 시장으로 진출을 알리는 애슬레틱 캐주얼 브랜드 ‘그라운드 바이’를 통해 속옷부터 아웃웨어 패션까지 아우르는 패션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브랜드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압구정로데오 메인거리엔 문을 열어 MZ세대에게 다가서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통채널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설 예정이다.

– 이른바 ‘샐러리맨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양선길 회장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직장인으로 출발해 대기업 그룹의 회장직에 올랐으니, 입지전적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짧게 소개해 달라.

엔지니어 출신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 힘든 점이 많다. 건설회사 사원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건설업에 종사할 당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안전과 품질,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부문을 도맡았었다. 엔지니어로서 건설회사에서 25년 일하며 사원부터 임원까지 하는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다. 그곳에서 헝그리 정신을 배운 것 같다. 돌이켜보면 건설 분야 경험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건설소장을 했을 때에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항상 사망사고가 도사리고 있었으니까. 건설 쪽에서 마지막에 건설 영업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나 해상풍력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다양한 경험은 이쪽 분야와 무관하지 않다. 가령 광림은 기계를 다루고, 미래산업은 반도체 장비업이고, 건설업에서 종사했던 시간은 우리 그룹을 끌고 가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엔터테인먼트 등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 현위치에 오르기까지 비결이나 핵심 역량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에게는 건설 기질 같은 게 있어서 때에 따라선 불도저처럼 돌파하지만, 긴급상황이 아닌 한 많이 들으려고 한다. 내 주변에 부회장단이나 전문가, 학자가 많이 포진해 있다. 그룹의 방향에 있어서, 많이 듣고 판단하려고 한다. 요즘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려 한다. 달라지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없다. 난관은 자기 안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김보근 기자

중국 '메이탄 덴핑', 당국 규제로 4분기 연속 적자
 빅테크에 대한 당국의 규제와 압박이 커지는 중국에서 식품배달 플랫폼 메이탄 덴핑(美团点评)이 4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은 11월 28일 메이탄 덴핑의 2021년 7~9월 결산발표를 인용해 3분기 순손실이 99억9000만 위안(약 1조8700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8년 3분기 이래 최대다. 시장 예상 중앙치 70억 4000만 위안 적자를 훨씬 상회했다. 조정 손실은 55억2700만 위안이다. 작년 동기 메이탄 덴핑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20억5500만 위안의 흑자를 보았는데 올해는 대폭 적자를 냈다. 메이탄 덴핑은 3분기에 신사업 투자와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기타 순손실이 21억 위안에 이른 게 손실 확대에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브루킹스 “기술 변화는 민주당 지지 하락 유발”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성이 높은 미국 근로자는 진보적인 경제 의제에 반대하며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혁신에 의해 산업 환경 및 고용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 로봇, 드론 등의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 부가가치가 낮은 직종은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년 내 미국 근로자의 47%가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다음은 기술 변화에 따른 주요 영향.

①극심한 불평등 = 기술 변화는 불평등, 임금 격차, 일자리 양극화 등을 초래한다. 기술 발전은 많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노동 생산성은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 투입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기술 혁신에 따



UAE 건국 50년 아랍에미리트(UAE)의 건국 50주년을 사흘 앞두고 11월 29일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인근의 한 건물 외벽에 숫자 '50'이 투영되고 있다. UAE는 1971년 12월 2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6개의 토후국들이 가입한 연합국가를 출범했다.

른 설비 자동화로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성이 근로자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단위노동비용(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증대율을 뺀 값)으로 기업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로 정의)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불평등 심화를 야기한다.

중산층 및 근로계층의 주식 보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류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②일자리 대체 심화 =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순으로 AI와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 하위 3분의 1 저소득층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크다.

업무 자동화에 따른 대체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할수록 좌파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도, 세계화 및 이민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2000년대 이후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큰 미국인들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또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며 인간 본성에 냉소적인 시각 및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질 확률도 높다.

③미국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성이 높은 미국 근로자는 진보적인 경제 의제에 반대하며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전통주의자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의 진보주의자 간 충돌을 의미하는 '문화전쟁'이 확대되면서 노동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할 것이다. 이영석 기자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없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최근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 견제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적 대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확대된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 무역 전략 수립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미국이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무역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하며 오랜 기간 CPTPP 참여 부재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 내 규칙 제정자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라

는 것이다. 미 의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다자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페이스북 이슈'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협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페이스북 이슈는 작년 1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페이스북이 이용자 권익보다 수익성을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말한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내년 초까지 기존 CPTPP와 같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욱 강력한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적 틀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순방 중 러몬도 상무장관은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이 크게 부재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동아

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마련 ▷공공망 회복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 ▷노동기준확립 등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은 작지만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여부를 연 말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와 USTR이 디지털 이니셔티브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무역을 넘어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구축을 목표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과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비구속적인 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협정을 체결할 가능성

이 크다. 다만 미 재계 일부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처럼 구속력 있는 규칙 기반의 디지털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협정 추진 사실을 불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CSIS의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은 “백악관이 디지털 무역협정을 공식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은 핵심 무역의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디지털 무역협정과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세부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CPTPP의 대안으로도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CSIS 굿맨 수석 부회장은 “백악관이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위해 경제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기자

중국, 뷰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샘플경제’

〈중국에서 현명한 소비와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샘플경제(小样经济)’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소량의 샘플 형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샘플경제는 뷰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브랜드는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

● **샘플경제의 형성과 온라인 판매** = 샘플경제란 기존에는 증정용의 의미가 강했던 소량의 포장 샘플을 유료 판매해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이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해외 면세품을 대리 구매하는 보따리상(타이거우)들이 제품 구매 시 받은 샘플을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유료 샘플 구입을 합리적 소비로 인식하게 됐다.

일부 화장품 브랜드는 2018년부터 샘플을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 샘플을 다량 제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도 누리고 있다. 지금은 샘플이 별도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샘플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 타입, 성분과 원료 등 고려사항이 많지만 온라인 구매 시에는 체험해볼 수가 없어 미리 제품을 체험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향수 또한 구매 후 자주 사용하지 않아 낭비가 발생하고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기 때문에 소량의 샘플 수요가 생성되고 있다.

CBN데이터가 발간한 ‘2020년 소비분야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뷰티업계는 최근 오프라인 몰 투자건수가 온라인 몰을 추월했는데 이는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샘플경제의 핵심이자 목표다.

초기단계 중국의 샘플경제는 온라인에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타오바오에는 샘플만 전문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이 생겨났으며 일부 인기 몰의 팔로워 수는 4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다양하다. 현지 매체 〈왕이하오〉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샤오홍슈에서 화장품 ‘샘플’이 언급된 건수는 40만 건이며 관련 사회공유망서비스(SNS) 공중화오 채널은 200여 개를 넘어섰다. 타오바오 몰은 전국 50여 도시에 600여 개 브랜드의 1600만 개 샘플을 발송했으며 2019년 온라인 타오바오 몰에서 행사로 판매된 샘플 크럼은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해 샘플 제품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샘플경제** = 온라인 플랫폼 내 개인 몰, 브랜드 플래그십 몰 등에서 주로 판매되던 샘플은 최근 오프라인 매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타격을 입자 소량 포장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종합 화장품 판매 브랜드 화메이는 2008년부터 10여 년간 온라인 몰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에 오프라인 몰을 열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샘플을 판매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도록 교육해 자유로운 쇼핑환경을 조성했다. 고객은 직접 장을 보듯이 각종 테스트용 화장품을 체험하고 경험에 근거해 구

입할 수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트렌디한 매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샤오홍슈 등 SNS에서 젊은 여성 소비자의 방문후기가 인기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명소가 될 만큼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화메이는 2019년 5억 위안을 투자받았고 2020년 9월 추가 투자를 받아 현재 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50억 위안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고 온라인 구매에 한계가 있는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성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사례다.

그런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인 KKV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깔끔한 상품 진열로 소비자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70여 도시에서 수백 개의 오프라인 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는데 KKV의 모든 매장은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2만여 가지의 제품을 진열하고 한 달에 한 번 500가지 이상의 제품이 새로 입점되는 것이 특징이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주류, 문구류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돼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샘플 제품의 안정적인 구매채널을 확보하고 있어 징둥, 타오바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된다는 점 또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일조했다.

KKV의 전신은 2014년 설립된 수입 상품점인 KK관인데 당시 소셜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홍보가 쉽지 않았고 편의점 대비 제한된 판매 품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전략을 바꾸어 다품종 소량제품을 판매하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 매장 분위기를 고급화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KKV 운영사인 KK그룹은 2019년 1억 달러 투자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 현재 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

로 화장품 이외에도 문구류와 피규어, 남성용 제품 등을 추가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샘플 전문 판매 브랜드의 성장세에 따라 대형 브랜드인 타오바오도 소량 제품 체험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중국 항저우에서 3일간 운영된 U시엔 오프라인 체험관은 타오바오에서 판매 중인 80여 브랜드의 3만여 제품의 샘플을 1위안에 제공했다. 화장품, 영유아 제품, 식품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U시엔 체험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샘플을 구매한 소비자만 1000만 명을 기록했다. 타오바오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고객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 **샘플경제 발전 기회와 전망** = 샘플경제는 연간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소비자는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판매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 풀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소비층인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층)가 샘플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Z세대는 성장기 때부터 글로벌 브랜드를 접할 기회가 많아 고품격 브랜드 소비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이 처한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절약습관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구매력은 크지 않지만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샘플 구매를 선호할 전망이다. 이들은 또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매우 익숙한데 샘플경제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Z세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홍보될 것으로 보인다.

Z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격 부담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꺼렸던 중산층 이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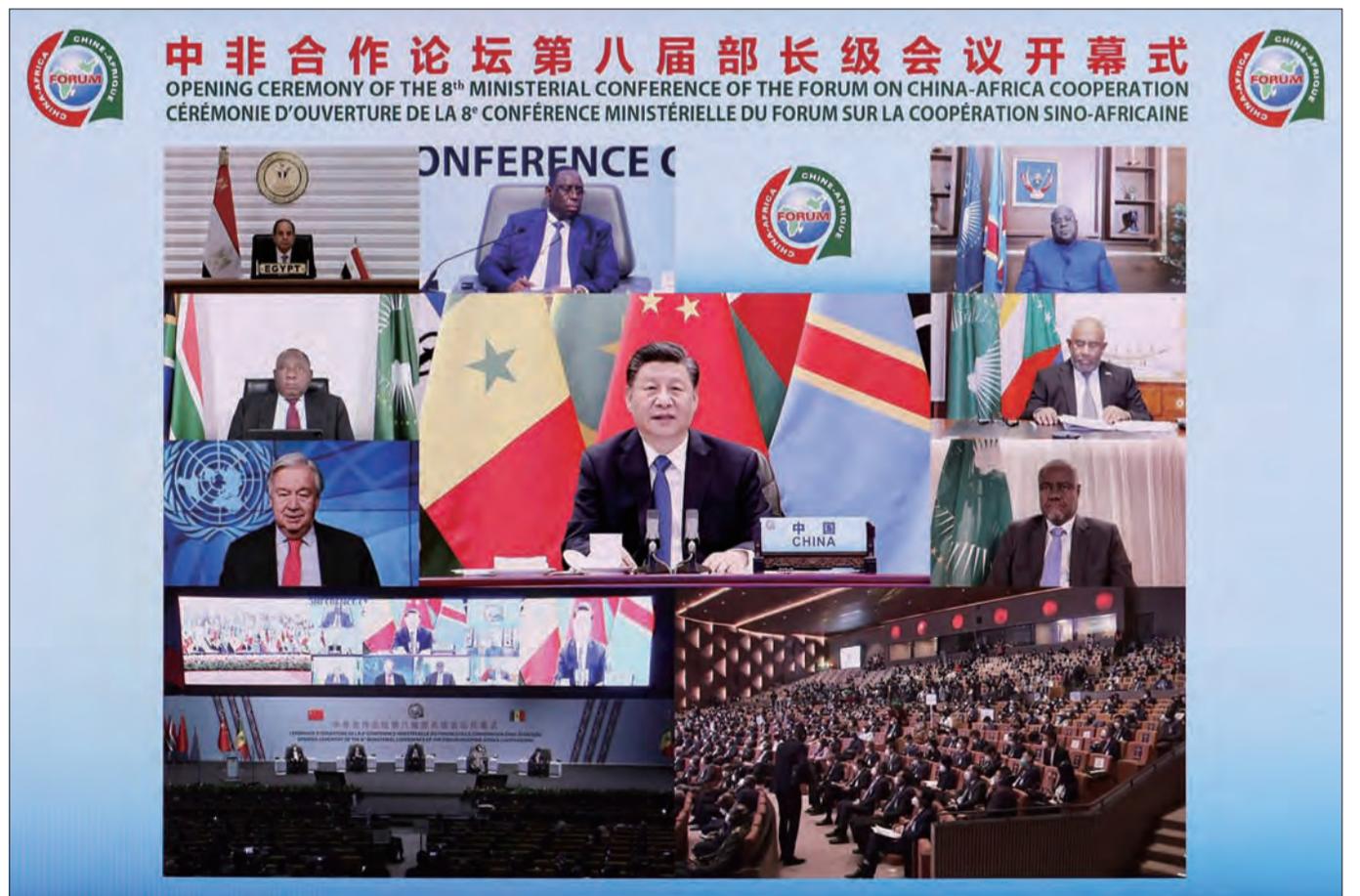
샘플경제는 연간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비자들도 구매력에 맞게 샘플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체험하고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샘플 판매를 진행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2020년 로컬 브랜드 웨이누오나는 30만 개의 샘플을 판매해 29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으며 로레알은 11월 11일 광군제 행사에서 샘플 판매를 통해 25%의 재구매율을 기록했다.

판매자들에게도 샘플경제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다량의 샘플 판매는 구매력이 크지 않은 소비자에게 원제품의 가격 인하와 유사한 효과를 주고 있으며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간단한 공정과 포장 등으로 비교적 원가를 낮출 수 있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샘플경제는 구독경제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샘플 형태의 화장품은 구독판매와 융합해 소비자들이 매번 바뀐 구성으로 다양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미스핑크, 도라 등 로컬 화장품 브랜드는 구독 메커니즘을 활용해 급성장했다. 단기간에 더 많은 상품을 경험하면서 더욱 개성화된 소비습관을 기를 수 있어 두 개념이 상생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 **위조품 대책은 필수** = 화장품 샘플은 비매품으로 인식되지만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아프리카를 품안에 시진핑(중앙)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29일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8차 장관급 회담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부국과 빈국의 코로나19 백신 배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6억 회분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베이징=AP/신화/연합뉴스】

유통되는 샘플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유통기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정식 제조되거나 실제 수입된 것이 아닌 위조품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항상 출처나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 제품과 비교하고 포장 디자인, 브랜드 문구 등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제 35조는 화장품 샘플에 대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품명, 제조 공장명, 제조 허가번호 등을 명기해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3월 티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티몰 샘플제품 발표 규범'을 통해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기 전

에 샘플의 유효한 수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샘플 판매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샘플 판매를 진행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지나친 비교로 매력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구매력을 보유한 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넓은 타겟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타

사 제품과의 비교에 노출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샘플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 또한 주요 브랜드의 과제인데 기존 제품과 비교해 판매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전체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텐진 무역관**

독일, '사민-녹색-자민' 연립정부 수립 합의

독일 사민당(SPD)과 녹색당, 자민당(FDP)이 최근 연립정부 수립안에 합의했다. 이번 연정 합의로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의 중도 우파에서 사민당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로 노선이 바뀌어 유럽연합(EU)의 각종 핵심 정책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보내온 3당 연립정부 합의문 주요 내용과 의미. **[법의 지배]** 현행 제도의 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법치주의 강화를 비롯해 사법부 독립 등 법치주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회복기금 지급 중단을 요구.

[재정준칙] EU 재정준칙의 유연성이 이미 증명됐음을 강조하면서 다만 경제성장, 부채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준칙의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 또한 EU의 현행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일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기금으로의 전환에는 반대. **[EU 기본조약 개정]** 유럽의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협의 플랫폼 '유럽 미래 콘퍼런스'를 통해 향후 EU 기본조약 및 유럽 연방으로의 발전 모색 등을 강조해 사실상 EU 기본조약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외교국방]** EU 외교 담당 기관인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중요 대외정책 관련 EU 이사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의 변경을 추진. 의결방식이 변경되면 각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합의문은 소규모 회원국의 중요 이해관계가 EU 대외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언급. **[미국 관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다자간 통상질서 확립,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정립, 지속 가능한 국제 교역 확대 등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 EU 회원국의 대외 관계는 EU가 전담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선언

적 의미에 그치지만 EU 최대 경제국으로서 EU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 **[중국 관계]** 중국 관계의 기초가 양자 협력 및 경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 특히 메르켈 총리 주도로 합의된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현 단계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언급해 현상이 유지될 경우 비준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 합의문이 CAI 협정의 유럽의회 반대에 따른 비준불가능성 지적이 아니냐면 '정책적 의지 표명인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한다는 지적도 제기. **[영국 관계]** 독일은 EU의 영국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등 양자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 구속력 있고 이행 및 검증 가능한 환경, 사회 및 인권기준 준수 약속이 전제임을 강조. **[경제부장관 배정]** 차기 정부 경제부장관이 녹색당에게 배정됨에 따라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 대표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 경제부 수장이 기업 친화적인 기민당(CDP)의 페터 알트마이어 장관에서 환경 친화적 녹색당 인사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독일 및 EU의 주요 경제정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용석 기자**



미녀들의 관광 미스 유니버스 대회 참가자들이 11월 3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다윗의 탑'을 관광하고 있다. 제70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12월 12일 이스라엘 남단 홍해의 항구도시 에일랏에서 열린다. **[예루살렘=로이터/연합뉴스]**

케이트 "미국 내륙 컨테이너 운송법안 구시대적"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트(CATO)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내륙 컨테이너 운송법안을 비판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북부의 3개 항구인 칭다오, 톈진, 다롄 및 상하이 양산 항구에 적용되던 카보타지(Cabotage) 제도를 시법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 관례다. 카보타지가 해제될 경우 운송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 소비가 절감돼 운송사의 네트워크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항만당국은 이번 카보타지 해제조치로 장차 중국이 국제 운송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화물 중계 및 컨테이너 환적지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루훙준 리강 특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는 칭다오에서 한국 부산항을 경유해 화물을 운송하던 운송사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상하이 양산항이 외국 선박의 화물을 중계하는 국제 중계항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중국 당국의 카보타지 해제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르그 유틀케 주중국 EU 상의 회장은 "카보타지 해제로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어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조치는 해양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도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잠재적으로 운송시간을 줄이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비해 미국 정부는 보다 엄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 제27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건조되거나 상당 부분 건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해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해상운송 비용을 높이고 미국 운송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륙 컨테이너 운송시 대형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선박인 피더선이 부족해 대형 선박이 여러 번 항구에 정박해 수출입 물품을 일일이 선적 및 하역함에 따라 비효율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폴린 그레보우 CATO 선임 연구원은 "중국같은 국가도 카보타지를 해제하는 등 경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에 간헐구식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며 "존스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기자**

FT "중국-LA 해상운임, 2개월 내 재상승"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로스앤젤레스(LA) 간 운임이 2개월 안에 다시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FT>는 최근 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18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해상운임이 10월부터 하락하고 있다"며 "같은 기간 중국

에서 LA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전월보다 51.4%, 9000달러가 떨어졌으며 발틱운임지수(BDI)도 급락했다"고 전했다. BDI는 철광석 등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글로벌 지수다. 코로나19 발생 전 1500달러였던 중국-LA 컨테이너선 운송비가 올 여름에는 2만 달러로 오른 바 있다.

<FT>는 "BDI의 하락은 해상물류 병목현상의 개선을 의미한다"면서 "거대 선박의 운행 증가가 BDI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 항구의 혼잡도도 중국행 화물선박의 감소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운임 조사기업 시그널그룹을 인용해 향후 2개월 안에 BDI의 재상승을 예견했다. 거대 선박에 대한 이용 제

한이 강화되는 반면 해상운송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해상운송 수요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급격히 증가한다. 시그널그룹은 "오는 12월 10일부터 벌크 화물 수요 증가와 거대 선박 공급 부족으로 BDI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에서 LA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선의 운송비는 최근 몇 주 간 83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오른 바 있다. **이용석 기자**

포스트코로나, 주목해야 할 베트남 물류산업

부동산 컨설팅사 존스랑라살의 스테판 와이엇 베트남 책임자는 “여전히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물류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의 베트남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산기지로 인정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베트남 물류산업의 팽창을 의미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꼽아봤다.

①GVC 재편에 따른 제조업 메카 부상 =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역할이 베트남, 멕시코, 헝가리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 보급과 글로벌 교역 회복세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춤했던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연초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베트남의 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작년에는 애플의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폭스콘이 평남성에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준공했으며 올해도 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인데 추가 투자는 애플이 중국 생산시설 중 일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텔 역시 올 초 베트남에 4억7500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으며 전자제품 생산업체 파나소닉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세탁기 등의 조립시설을 옮겼다.

베트남에 제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현지 물류시장의 성장성도 재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어질리티가 발표한 신흥국 물류시장지수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5.67점으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10대 신흥 물류시장에 진입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의 존 캠벨 베트남 산업·서비스 담당자는 “세계적인 물류 부동산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을 유망 시장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는 호주의 물류 부동산 기업 로고스가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싱가포르의 GLP 역시 15억 달러를 들여 베트남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한국 기업들도 현지 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공동 운영하는 아시아성장펀드가 3700만 달러를 투자해 북부의 물

류센터인 로지스밸리를 인수한 바 있다. 부동산 컨설팅사 존스랑라살의 스테판 와이엇 베트남 책임자는 “여전히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물류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베트남에서도 다낭시는 북부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를 내세워 베트남 내 확장 또는 중국에서의 이전을 원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원재료 가공 후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뿐 아니라 다낭시와 중부지역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진출을 꾀하는 소비자 기업도 있으며 이들의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다낭시의 경우에는 하노이와 호찌민처럼 창고 보관에서 배송까지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많지 않으며 현지 기업 중에도 손에 꼽을 정도다.

②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 = 베트남의 최근 5년간 대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수출이 6% 이상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전년 대비 5.3%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역액 5.1%, 수출액 6.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 이래 5년 연속 흑자를 냈다.

베트남 수출은 전망이 더욱 밝다. 작년에는 유럽연합(EU), 올해 1월 1일부터는 영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작년 11월에는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 이 참가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베트남은 총 15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14개의 FTA가 발효됐다. 특히 RCEP의 경우 참가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약 27%, 인구의 약 30%를 차지해 발효 시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선호하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도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항만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최대 8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글로벌 항만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항만 규모를 8배 이상 키웠지만 코로나19 상황에도 물동량이 4% 증가하는 등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항만의 총 물동량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했으며 올해 항만물류산업 역시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의 대표적인 무역항 바리아붕따우성의 까이맵-타바이 항구 확장 중부 중심도시 다낭의 리엔찌우 항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낭의 경우 인도차이나 반도를 횡단하는 동서경제회랑(EWEC)의 관문으로, 향후 베트남 중부 및 인근 국가의 수출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낭은 현재 띠엔사 항을 통해 연간 86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리 화물이 1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신항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낭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면 무역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③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 대비 18%의 증가율에 11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주최로 개최된 포럼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연평균 29%이고 2025년에는 그 규모가 5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응우엔빙밍 VECOM 이사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이끄는 도시는 하노이와 호찌민으로,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온라인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매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VECOM이 실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답했으며 실제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수익은 2010년 2600만 달러에서 2020년 8억2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기업 5곳이 아세안 10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은 데이터의 전송량을 나타내는 트래픽 기준으로 아세안 내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태국의 2배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전자결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2025년까지 인구의 55%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낭시 역시 2018년 다낭트레이드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제품에서 인테리어, 유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 성장에 따라 물류산업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에 따라 물류시장 역시 30~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 인근에 대규모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노후화된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제는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대규모 물류창고를 통해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작년 3분기에만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5~10% 상승하는 등 전자상거래 기업 간에 총성 없는 배송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배송 품목 또한 패션, 전자제품, 위생용품 등에서 신선식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온창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사 존스랑라살 베트남 지부는 저온창고 시



다시 텅빈 거리 11월 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쇼핑 거리는 오후 5시 이후가 되자 거의 텅 비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과 중환자실 입원 사례가 급증하면서 28일 오후 5시부터 상점의 폐점 시간을 3시간 앞당기고 야간 통행금지를 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 【암스테르담=AP/뉴시스】

장을 유망 신규 투자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음식배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선식품, 홈밀키트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향후 저온창고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

어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물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인 쇼피가 호찌민시 인근에 3번째 물류창고를 건설했으며 티키와라 자다역시 신규 물류센터 건설, 배송시스템 디

지탈화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국영 우편배송 서비스 기업인 VN포스트는 다낭시에 5헥타르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건설했다. VN포스트는 2018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우편 네트워크 활용과 IT 및 디지털

화를 통해 매년 20% 매출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레민쥬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VN포스트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이 다낭시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낭 무역관

대만, 첫 유니콘 등장한 요즘 스타트업 동향은?

AI·빅데이터 등 혁신분야 활발 안정성 중시하는 분위기 감안해야

지난해 대만의 스타트업 투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대만의 혁신능력'은 강하지만 스타트업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3월 대만의 첫 유니콘 기업 애플피어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 **대만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 대만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2017년 7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건별 투자금액이 소액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투자유치 건수(342건)는 2017년보다 1.8배가량 늘어난 반면 금액은 6억 달러대로 줄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8월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전년 연간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했다. 감염병 사태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투자심리 변화는 대만경제연구원도 2020년 6~7월 투자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투자자의 56%가 '코로나19로 투자에 더 신중해졌고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답했고 '스타트업 투자 프로세스를 연장하게 됐다'는 응답과 '코로나19가 펀드 레이징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응답도 각각 84%에 달했다.

대만 스타트업 시장에서 투자유치가 활발한 분야는 '헬스테크'로, 건수나 금액에서 거의 매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분야는 2017년에 '오토테크, 제조' 분야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2019년에는 '전자, 기업대상 서비스'에서 투자가 급증했다. 2017년 헬스테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오토테크의

경우 대만 유니콘 중 하나인 전동스쿠터 업체 고고로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활기 되찾는 대만 스타트업 시장** = 앞서 언급한 애플피어는 올해 3월 일본 상장에 이어 5월에는 대만 챗봇 스타트업 보보니를 인수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챗봇 업체 인수로 대화형 커머스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가운데 애플피어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시너지 창출과 시장 확대 효과를 고려해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져 인수 합병(M&A)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M&A에 앞선 일본 상장은 2020년 위축됐던 대만 스타트업 시장의 분위기를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분야 대만 스타트업들이 일본 상장에 뒤따라나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주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장으로 산업집적 효과를 내고 있는데 애플피어가 대만 스타트업의 일본행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풀이다. 실제로 현지 마테크 스타트업인 아우는 일본 상장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고 일본 주주가 참여하고 있는 유력 스타트업들도 일본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힘입어 설립 2년 만에 빠른 속도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대만의 첫 클라우드 키친 업체인 저스트키친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4월 캐나다와 독일에서 상장한 저스트키친은 미국에서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에서도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다. 저스트키친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착안한 반려동물용 도시락 서비스도 선보여 소비자

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20년 1~8월 대만 1위 투자유치 스타트업인 크네론은 엡지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크네론이 개발한 AI 칩은 가트너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2020년 4000만 달러를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폭스콘, 윈본드 대만 주요 전자기업들의 투자가 뒤따랐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크네론은 엡지 AI 솔루션 사업 분야를 자율주행차, 전기차 분야로도 확대 중이다. 엡지AI는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기민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분야에서 시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기반 마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칼라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투자유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스타트업은 실시간 스트리밍 솔루션 플랫폼 스트라스, 구글 클라우드 기반 기업업무 지원 서비스 AI옵스,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KOL레이더, 라이브 커머스 통합 솔루션 플랫폼 쇼플러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쇼플러스의 경우 동남아에서 시장성을 검증한 후 대만에 역진출한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진행 중 빠르게 지나가는 실시간 주문 댓글을 포착한 후 챗봇 기능으로 신속한 주문과 결제를 지원해 매출, 재고 동기화 및 편의점 물류 진행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투자유치에 성공한 대만 스타트업 중에는 언택트에 기반한 주차요금이나 주유비 지불 모바일 앱 처마지와 공유 전기자전거 무보가 눈길을 끈다.

처마지는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주차장과 주유소를 이용

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다.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번호판 인식 후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주유소에서는 직원이 주유를 마친 다음 고객의 모바일 앱에 청구내역을 전송하면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 결제한다.

무보는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대여하고 반납할 때는 대여소에 주차 후 앱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용 도중에 잠깐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앱으로 잠가둘 수 있고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스타트업 시사점** = 대만 중에서도 타이베이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38억 달러로 추정되며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100개국 중 30위로 평가된다. 가치가 390억 달러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AI, 빅데이터, 첨단제조, 로봇공학 분야에서 혁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 투자자들 사이에 AI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망 분야 1순위로 꼽힌다. AI 외에도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5세대 이동통신(5G) 등 모바일 기술, 사물인터넷(IoT), 헬스테크 등이 유망하다.

현지 대기업이 추구하는 혁신 사업분야도 대동소이하다. 대만 르네상스플랫폼과 정부출자 투자공사인 타이와니가 발표한 '2020 대만산업 혁신투자 백서'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및 신유통,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헬스·의료, IoT, AI 분야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대만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는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산업 혁신투자 백서에 따르면 '사업 혁신을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대기업 중에는 '제품 공동 개발 등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고 '데모데이 등 스타트업 행사 참여', '스타트업 직접 투자가 뒤를 이었다',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투자 및 지원, 스타트업 인수합병 방식으로 협력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만PwC가 실시한 '2020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에서 '상장기업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스타트업의 비율이 20%에 그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만 투자자들은 "대만에서 펀딩을 추진할 때는 뚜렷한 목적 없이 투자자 발굴에 나서는 것을 지양하고 운영지표와 모금 방향, 용도를 확립하는 준비성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현지 시장 특성상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스타트업 투자유치가 감소를 보였고 대기업들은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관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는 AI, 빅데이터 등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들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회를 모색해볼 여지도 있다. 타이베이 무역관



유대명절 '하누카' 11월 28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근처에서 유대 전통 명절 '하누카'의 시작을 알리는 아홉 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 '하누키야(하누카 메노라)'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12월 6일까지 '빛 축제'라고도 알려진 하누카를 기념한다. 【베를린=AP/뉴시스】

데스크의 창



위험에 빠진 지구 구하기

기후위기는 이번 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자 도전과제입니다. 기후 변화는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인류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의 높이에 영향을 주어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폭풍우와 화재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담수 부족과 식량 생산능력 저하 등 인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25~30년 사이에 지구는 더 따뜻해져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동식물종의 멸종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하며 정치는 불안정해지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지만, 인류의 경제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학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청정기술'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청정 기술 붐은 박막 태양전지판, 바이오 연료, 에너지 저장처럼 주로 하드웨어(HW) 집

약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신생 기업 위주였는데 관련 기술들은 개발자가 너무 길고 실행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또한, 저렴한 중국산 태양 전지판의 유입, 실리콘 가격 하락 등이 미국 청정기술 기업들에 타격을 입혔고 결국 2007년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청정기술 기업 중 90% 이상은 투자받은 초기 자본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벤처캐피털 세계는 '기후기술(Climate Tech)'이라 불리는 차세대 혁신을 통해 지구를 구하겠다는 사업가, 투자자, 펀드로 떠들썩합니다. 청정기술이 1차 붐이었다면 기후기술은 2차 붐이라고 할 만합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피치북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기술과 관련이 있는 벤처기업으로 유입된 자금이 2012년에는 10억 달러였으나 작년에는 160억 달러로 무려 16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42억 달러를 기록해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왜 기후위기에 다시 주목할까요? 일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태양광, 풍력, 저장장치 같은 기초기술이 화석연료와 비교해도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첨단 제조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이 무리익으면서 차세대 기후기술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도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리콘밸리 투자 생태계를 기

초로 성장한 테슬라, 비욘드미트, 네스트와 같은 기후기술 1세대 유니콘 기업이 본격 등장했고 기후기술이 지향하는 경로가 예전보다 명확해졌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후기술 분야는 AI에 이어 벤처캐피털이 주목하는 투자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이런 흐름의 선두에서 있습니다.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통·물류, 농업·식량·토지 이용, 에너지·전력 등 여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거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감축하거나 기후 및 지구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 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다양한 광범위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발표한 '기후기술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후기술과 관련한 투자 대부분은 교통과 물류, 농업과 식량, 에너지와 전력의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투자액의 약 4분의 1은 AI, 라이더(LiDAR) 같은 기반기술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손들도 기후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아조스는 2040년까지 아마존 전체적으로 완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기후 서약'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전기자동차 개발 스타트업 리비안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 스타트업 파차마와 카본큐어 테크놀로지,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텀타이드 등 저탄소 경제에 힘을 실어줄 기후기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해 1월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즉 자사가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환경에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MS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클라이믹스에 투자하고 클라이믹스의 기술을 통해 자사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사의 기후혁신기금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온실가스 측정 및 분석 플랫폼을 보유한 에이클라이마의 펀딩에 참여했으며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한 커본큐어테크놀러지에도 투자했습니다.

벤처캐피탈들이 기후기술에 주목하면서 관련 신생 스타트업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의 신기술을 기후 예측, 탄소 상쇄, 탄소 배출량 관리, 정밀 농업,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에 적용해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은 연관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를 향해 흐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기후위기를 투자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속속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대치가 시급한 글로벌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닷컴 붐을 잇는 차세대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10년 안에 급격한 탈탄소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배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과 높은 확장성을 가진 스타트업은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성숙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세상은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싱 진행중인 글로벌 유통바이어
거래알선 정보 (12/1~12/31)

한국무역신문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알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CBT마케팅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 사이트(kr.tradeKorea.com)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주] RFI Holdings Limited

소싱품목
1. RET 안테나 제어기(컨트롤러)
- 특이사항 : 1979년에 설립된 가족 소유의 호주 기업, 150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러시아] TOI.RU OOO

소싱품목
1. 장난감 제품
- 특이사항 : 2010년 설립,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동부와 서부 전역에 71개의 점포 보유



[중국] METRO Commerce Group

소싱품목
1. 헤어 케어
2. 바디 케어
- 특이사항 : 독일계 창고형 대형마트체인을 운영하는 METRO Group의 자회사로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있는 전자상거래 유통기업



한국무역협회-하나은행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과 하나은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 및 국내업체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02-6000-4420

■ 서비스 소개

- 우대 대상거래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업체간 외환결제에 한함
- 이용절차

① tradeKorea.com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신청결과에서 현재 상황 확인 → ④ 확인서 발급 확인 시 출력 후 하나은행 방문

■ 우대내용

서비스 문의 : 하나은행 1544-3000, 3500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 수수료	송금금액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80% 할인
타발송금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80% 할인
신용장통지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80% 할인
매입/추심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50% 할인
신용장발행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0.8~1.4%	건당 0.4%P 감면
신용장인수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1.4~2.0%	건당 0.8%P 감면

* 기업의 당행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요율과 우대율이 상이할 수 있음.

전세계 무역인의 온라인
원스톱 거래 네트워크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FTA 사전준비 완료, 중국 시장 개척

P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생활용품 도소매 업종으로 창업 후 그해 하반기 엑상커피 추출 공장을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업종 역시 '커피제조업'으로 변경했다.

P사의 대표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LTHP(저온 고압, Low Temperature High Pressure) 공법을 활용해 만든 인스턴트 커피다. LTHP 공법은 인스턴트 커피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 커피에 버금가는 풍미와 맛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회사가 판매 중인 자가브랜드 제품은 콜드브루 특유의 부드럽고 독특한 풍미와 에스프레소의 깊고 진한 농도를 동시에 표현한 제품으로, 한 잔 당 카페인 함량을 일반 커피의 20~25% 수준인 약 54mg으로 낮추어 여러 잔을 마셔도 인체에 미치는 부담을 줄였다.

식품업체의 기본이 되는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부터 유기농인증, FSSC(식품안전시스템,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KOSHER(유대인 허용 식품),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의 해외 인증을 획득했다.

P사는 2019년부터 지역 테크노파크(TP)에서 진행하는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인증 획득 등을 지원받았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베트남에 제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전략국가 중국... 차이나데스크 노크

이러한 P사는 첫 수출로 맞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했고, 전략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P사는 컨설팅을 통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싶고, 이를 위해 수출입 업무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법 등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특히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정받아야 하는데, 담당직원은 FTA 경험이 부족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뿐이라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무역 업무, 특히 FTA 활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수출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사전준비 차원에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영업·마케팅 활동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턴트는 먼저 제품의 원산지 조건을 확인했다. P사 제품은 원두를 수입한 후 이를 커피 추출물 가공품으로 제조한 것, 즉 '인스턴트 커피'다. 품목분류표상 인스턴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트 커피는 ▷2101.11호(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2호(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차이는 커피만 있는 것이냐, 크리머와 설탕 등이 포함된 것이냐로 구분한 것이다. 2101.11호는 전자, 2101.12호는 후자에 해당한다. P사가 수출을 희망하는 제품은 커피만을 기본 재료로 하므로 2101.11호에 해당한다.

2101.11호의 중국의 기본관세율(MFN)은 12%다. 양허유형은 '15'로 한-중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기준 협정관세는 10.2%로 약 1.8%의 관세 절감 효과를 바이어 측에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101.12호의 한-중 FTA 협정문 기준관세율은 30%이며, 기본관세율은 12%, 양허유형은 '20'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현재 관세율은 21%이다.

한-중 FTA 협정에 부합해 '역내산' 판정

210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다. P사의 인스턴트커피는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요청해 얻은 원재료의 원산지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BOM(소요부품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와 품목분류검토의견서 등을 토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를 작성해 검토한 결과 한-중 FTA 협정에 부합해 '역내산' 판정을 내렸다.

원산지 증명서류 모두 구비를 완료했으나 직접 수출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하지 못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서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 FTA는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준비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등이다. 이 증명서류를 갖춰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턴트는 더 나아가 P사의 원산지를 포함한 FTA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도왔다. 앞으로 다양해질 제품 수에 맞춰 원재료의 기본 정보를 비롯한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비해 이번 기회에 원산지관리 시스템에 올려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과정, 원산지 사후검증 등 전과정을 교육해 수출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턴트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를 조치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원산지 사후 검증에도 대비해야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 간의 거래에서만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후검증을 시행한다.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 방지와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방법 및 조치들은 FTA 협정문과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다.

FTA 상대국과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사후검증 빈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의 체계적인 사후검증 대응 필요성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 FTA에서 정한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검증하거나, 수출국 관세 당국을 대상으로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국 관세 당국의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간접검증은 수입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으면 수출국 관세 당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6개월 내 결과를 수입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입국은 검증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판정 결과를 수출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직접검증, 즉 방문 조사는 수입국이 수출국에 방문 검증을 실시할 경우 검증 30일 이내에 수출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직접 방문 검증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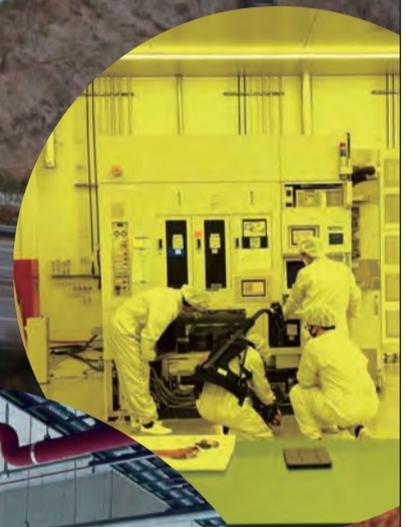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P사는 중국 수출을 위한 준비를 맞췄다. 중국 측 바이어가 P사의 제품을 수입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1.8%의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현지에서 관세 실익만큼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P사는 현재 로카 에스프레소 이외에도 다양한 콜드 커피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엑상커피 아이스크림과 커피 꿀, 커피 소스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바이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사는 수출 마케팅을 통해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능력을 적극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제58회 무역의 날

(주)서플러스글로벌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21년은 서플러스글로벌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계획하고 꿈꾸어왔던
용인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신사옥 시대를 열었으며,
2000년 설립된 이래로 21년 만에
1억불 수출의 탑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심해왔던 일들을 마음껏 펼치며,
고객과 함께 앞으로 더 전진하는 서플러스글로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플러스글로벌 임직원 일동 올림 -

G2 인도 비즈니스가 어려워 보이는 4가지 이유(2)

3배는 느린 시간, 유희적 세계와 도덕관념

●양치기 소년... = 인도 현지 우리 주재원들이 인도 프로젝트나 거래 관련, 자신의 처지를 빗대 자주 하는 말이다. 본국이나 본사에 약속했던 여러 사항이나 기한이 연기,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제수도 서부 뭄바이항과 인도 제조업의 본산 북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간 500 km 구간을 연결하는 인도 최초의 고속철 이수가 뜨겁다. 인도의 산업, 교통지형을 바꿀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프로젝트다. 150억 달러 중 일본 JAICA(한국의 KOICA 같은 정부 산하조직)가 80% 정도를 지원하는데 2023년 완공을 목표로했으나 토지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겹쳐 현재 2028년 완공으로 크게 후퇴해 있다. 터널굴착 등에 여러 우리기업이 참여를 추진해 왔으나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2000년대 중반 인도 동부 오리사(Oriasa)주에 추진된 포스코의 해외 최초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무산은 지금도 회자되는 대인도 투자 리스크 사례다. 중앙 및 오리사 주정부의 승인과 토지 강제수용권은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법적, 물리적 충돌과 인도 토종 철강사들의 방해 벽을 넘지 못했다. 포스코를 포함해 이 프로젝트에 관여된 많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조직 내외적으로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이 사례는 현재 인도 남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관제철소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에 있어 가장 큰 트라우마다.

인도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 허가, 원산지 증명, 통관, 관세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현지에서 기업을 설치 운영하는 데도 등록, 노무, 조세, 금융, 인프라 등에서 그 복잡하고 실타래 같은 관료조직과 법, 관행을 뚫어야 한다. 그 속에서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기업인과 본사 담당자의 속은 타들어 가기를 반복해 숯덩이가 되곤 한다. 부패산업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전반적인 부패수준도 아시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곱하기 3, 내일은 어제와 같고, 모레는 그저께와 같아 = 필자가 인도 현지에서 근무할 때,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 오거나 초기 투자를 위해 의견을 구하는 우리기업인들에게 대인도 비즈니스 관련, 기존 관행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기한에 '3을 곱하라고' 조언 드렸다. 본인 마음가짐도, 대본사 보고도 3을 곱하라 권했다. 사장님들에게는 직원들이 보고하는 기한에 3을 곱해 두고 늦어지더라도 질책을 말고, 빨리 되면 격려를 해주라고 부탁드리곤 했다. 필자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신기하게도 인도와 관련돼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일들 대부분이 실현되어 있었다.

불과 2만 명의 본토 영국인 공무원으로 이 큰 인도아대륙을 통치했던 대영제국의 통치 시스템은 현 인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법적, 행정적 기반과 기록 및 보존 문화는 우리에게 못지않은 것 같다. 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자기 영역이나 권한에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든 표시를 하려 한다. 카스트 전통과 영국 지배가이를 더한 것 아닌가 한다. 물론 많은 부분

현장에서 본 'G2' 인도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 (3)



이 인도의 1인당 소득 2200달러와 우리의 3만 달러에서 기인한 차이, 또는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직 인도에는 덜 투영돼 있는 점 등이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 인도인의 독특한 시간관념을 더해야 한다. 인도의 대표 언어 힌디어는 내일과 어제(Kal), 모레와 그저께(Shabd-kosh)는 같은 단어를 쓴다. 인도에 뿌리를 둔 힌두, 불교, 자이나교의 유희적 세계관에서는 어제도 내일이고 모레도 그저께이다. 문맥의 전후관계를 보아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인도 학교에는 도덕이나 윤리 교육이 없다 = 일본과 싱가포르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주변과 공존하는 도덕 윤리 교육을 학교와 가정에서 반복해 주입한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그러나 세계 7대 종교 중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를 배출한 종교의 나라로 다양성 속에서 공존을 추구해야 했던 인도에는 동양류의 도덕이나 사회윤리 교육이 학교 커리큘럼에 없다.

주변과 이웃에 폐를 끼치지 마라, 공중도덕을 지켜라와 같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공통된 기준도 없고 역사 사회여건상 불가하다. 각 학교별로 특화된 종교교육을 통해,

집안 전통의 어르신 교육을 통해 각 집단 전래의 가치를 전해줄 뿐이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공중도덕이 약하고 주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이 극심하고, 그래서 말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다른 생각, 인종과 종교, 문화에서는 '모태 글로벌(Born To Global)'이고 수용적이다. 일반 인도인의 경우 굳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피부색깔, 언어, 종교, 계층을 일상에서 접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이 공존, 공유하는 여백의 문화를 3000년 이상 다져왔다. 히말라야 산지에서 인도를 침공한 알렉산더 대왕 군대의 후손인 듯 눈 푸른 사람을 보게 되고 미얀마 인근 동북 미조람(Mizoram)에서는 유대교 제식 전통을 따르는 동양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급속히 개선되는 인도의 사업 환경 = 그러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과 행정개혁, 기강확립 운동 등으로 인도의 행정 서비스도 급속히 개선되는 추세다. 1990년대 이종 삼중 청구 관행으로 전기세를 내고도 3~4년 치 영수증을 보관해야 했던 인도의 공공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시스템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와 보관

시스템으로 일반화되었다. 서부 뭄바이에서 도입된 싱크홀 신고 후 1일 이내 미조치 시 500루피(약 8000원) 보상시스템 등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및 피드백 시스템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필자가 인도 남부에 위치한 타밀나두(Tamil Nadu, 현대자동차 및 협력기업이 진출해 있음)주에 출장을 갔을 때, 우리 기업들로부터 그곳의 산업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TIDC(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대비 서부 뭄바이를 관할하는 MIDC(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의 업무관행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모디 13년의 주총리 기간 중 행정기강을 다잡은 구자라트주에 투자한 포스코 등 우리기업 대부분은 자신들이 겪은 MIDC와 달리 이곳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주정부나 구자라트 산업단지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GIDC(Gujarat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뇌물을 제공한 기억이 없었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Ease of Doing Business)' 지표에서 2016년 인도는 130위였으나 2020년은 63위로 놀라운 개선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5위, 중국은 31위, 베트남은 70위다.

김문영은 1992년 KOTRA에 입사해 인도에서만 8년 동안 근무한 인도 전문가로 KOTRA 서남아시아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8월 귀국하여 현재 KOTRA 인도경제경영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3,000년 카르마가 낳은 인도상인 이야기(2021)'가 있다.



인도에 뿌리를 둔 힌두, 불교, 자이나교의 유희적 세계관에서는 어제도 내일이고 모레도 그저께이다.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인도의 관행과 법, 규제 등은 많이 어렵다. 사진은 뉴델리 도심 빌딩 신축 공사 현장. 필자 직접 촬영.

제58회 무역의 날을 축하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해외마케팅은 EC21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기대하며,
EC21이 귀사의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응원합니다



수출상품등록, 해외 바이어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온라인 무역 서비스를 EC21에서 만나세요.



해외에서 더 유명한
B2B 마켓플레이스



전세계 235개국의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



700만 수출상품
250만 바이어 정보가
모두 이곳에 www.ec21.com



TradeSOS
무역애로상담

본 지면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서 무역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상담한 내용들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Trade SOS에서는 관세사, 국제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외환컨설턴트, 무역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무역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한 건의부터 무역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은?

A사는 러시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에 앞서 필요한 인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러시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CU 인증'이 필요하다. CU는 러시아 수입자 또는 제조사의 현지 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인증으로 러시아어 문서만이 인정되며, 샘플 테스트 절차가 필수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의료기기 신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Decree No.1416)

- 1) 제조사는 의료기기 샘플을 러시아 검증(Test) 연구소로 송부.
· Test 사항: 독성, 기술, 전기전자·

전자파·호환성 기능(EMC: Electrical an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

2) 제조사 또는 공식 대표사는 각종 실험 결과와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제품 기술서 (Technical dossier)를 Roszdravnadzor (감독국)에 송부 → Roszdravnadzor가 지정한 전문가는 임상실험 필요성 여부 검토 → 임상실험 필요성 제기 시 보건사회발전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임상실험 실시.

3) 의료기기 안정성이 Roszdravnadzor에 의해 승인, 등록증 발행 및 연방 의료기기품목 리스트에 등록.

4) 등록증 발행 후, 적합성 검증(DOFC, Declaration of Conformity) 발급을 위해 러시아 인증발급기관에 기술의향서와



GOST-R 규정에 준함을 증명.

참고로 러시아에서 의료기기 수입은 정부 인증서 보유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제조사들은 정부인증서 보유 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관련 인

증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있으며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통번역 지원서비스

FTA 컨설팅

무역애로건의

해외인증상담센터

무역실무 상담

TradeSOS
무역애로상담

☎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무역현장 MC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전용

KITA 회원 할인서비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1 해외출장



여봐라~
가격을 매우쳐라!!



공항라운지



더라운지멤버스

국내 및 전세계
공항라운지 30% 할인

로밍



와이드모바일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 대여 20% 할인

항공



대한항공 (KALBIZ)

무료수하물 2개 증정



델타항공 (SkyBonus)

1천 포인트 증정

호텔



신라스테이

전국 11개 지점 60~75% 할인



롯데시티호텔 · L7

최적가 대비 20% 추가할인

보험



현대해상

해외 여행자보험료
20% 할인

해외부가세 환급



브이에이티잇 코리아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
성공보수 수수료 할인

문의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숫자로 되돌아보는 2021년 한국무역]

수출입 단가 고공행진에... '역대 최고' 기록들 연이어 경신

◇... 2021년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침체의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고성장을 이룩하며 온갖 기록 경신 대행진을 이룩해 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유가 급등으로 수출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인한 하반기 자동차 생산·수출물량 차질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인한 견조한 해상운임 상승세 ▶요소수 등 단일국 수입의존형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 확대 등은 2021년 우리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한 해 우리 수출의 성취와 그늘을 숫자로 살핀다. ...◇

연간 수출 규모 역대 1위 달성 전망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으로 무역이 크게 침체했으나 올해는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가장 커질 것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호조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연간 수출금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수출이 604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아직 단 한 번도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지난 11월까지의 연간 누적 수출금액은 5838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해 지난 기록인 6049억 달러를 12월 중 돌파하며 무난히 역대 1위를 달성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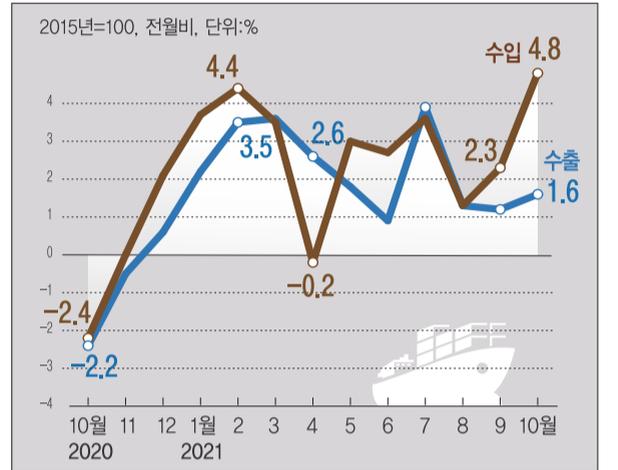
되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적인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타결을 추진 중인 무역협정 11건

2021년 10월 기준 우리나라가 협상 중인 무역협정은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우즈베키스탄 STEP ▶한-러시아 FTA ▶한-에콰도르 FTA ▶한-메르코수르 FTA 등 6가지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태평양동맹(PA)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나 아랍에미리트(UAE)와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논의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역시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8.6% 올라 지난 2010년 1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트럭 화물 비용이 16.3% 오르면서 공급망 차질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입 물가지수 증감률



지난 5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미국 수출 비중 15% 수준 회복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대미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로 다시 올라가면서, 지난 2004년 16.9%를 기록한 이래 17년 만에 최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대중국 수출이 주춤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전산기록매체,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최근 2년 새 수출이 50% 이상 늘어난 까닭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가 원인이자.

타결 또는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3개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한-필리핀 FTA 타결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을 마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협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식 서명한 한-이스라엘 FTA 또한 곧 발효될 전망이다.

하고 있으며, 걸프협력이사회(GCC) 및 멕시코와의 FTA 추진에 관해서도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5가지 준비 작업 중인 협정을 합치면 타결을 추진 중인 무역협정은 총 11가지가 된다. 아울러 올해 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된 협정 중에서도 칠레·아세안·인도·중국과 협정문 개선을 논의해온 바 있다.



지난 11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GCC 및 한-멕시코 FTA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출기업 44%는 안정적 원자재 수급처 원해

우리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원자재 수급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44.0%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대 수출주력 업종 100곳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3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폐자원 재활용 지원을 통한 원자재 확보(9.9%), 정부의 원자재 비축물량 방출(8.2%) 등도 제시했다. 응답 기업 중 76.1%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무역 규모 8위국 자리 탈환

올해 수출입 호조에 힘입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무역 규모 순위는 올해 8월까지 누계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지금까지 무역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한 세계 무역 10대국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홍콩,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이며, 한국은 그 중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치고 8월까지 무역 규모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면에 브렉시트를 겪은 영국은 2020년 세계 무역 순위 8위였던 것이 10위로 거꾸러졌다.

FTA 발효된 시장 57개국으로 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현황은 57개국과 17개 협정에 달한다. 칠레, 싱가포르, 인도,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13개국과의 양자협정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동남아시아연합(ASEAN) 10개국, 유럽연합(EU) 27개국, 중미 5개국 등 46개국과의 다자협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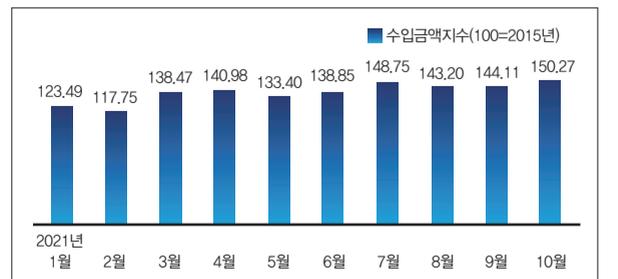
한국 겨냥한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 10개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개시된 한국에 대한 반덤핑 혐의 신규조사는 10건으로 전년도의 26개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신규조사 건수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온 수입규제 강화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계속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입물가 상승률

지난 10월 들어 수입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5.8% 급등하면서 2008년 10월(47.1%)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증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5년 8월(13.5%) 이후 26년 2개월 만

2021년 수입금액지수 추이



[숫자로 되돌아보는 2021년 한국무역]

무역 규모 사상 최대 간다... 공급망 대란은 하방 위험요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월간 수입금액지수 150 돌파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들어 수입금액지수가 39% 오른 150.27로 나타나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 자체로는 1988년 1월 관련 통계 편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금액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물이 91.5%, 석탄·석유제품이 213.1%,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18.2% 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은 1990년 11월(448.6%) 이후 3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9일 만에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돌파

10월 26일 우리 2021년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가장 빠른 돌파 기록이다. 이전의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돌파 기록은 2018년 11월 16일 13시 23분이다. 올해는 이 기록을 21일 당겨 돌파하게 됐다.

원/달러 환율 연고점 1200 돌파

지난 10월 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00.4원까지 오르는 등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전 거래일 기록한 연고점(1194.6원)을 경신했다. 원/달러가 장중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28일(1201.0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恒大(恒大)그룹 위기를 비롯한 경기 둔화 우려,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전망,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으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져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요소수 우려 품목 수 3911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특정국에 80% 이상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이 1만2588개의 HS코드 품목 중 총 3911개에 달하며, 이는 주로 중국(1856개)에 집중돼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는 잠재 위험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역내화하는 '경제 안보'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이유다. [표 참조]

■중국·미국 대상 단일국 수입의존형 주요 원자재 현황

수입국	품목	HS코드	2020년		2021년 1~10월	
			수입액(천 달러)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중국	요소	3102109000	89,109	88.6	135,709	95.2
	마그네슘잉곳	8104110000	26,910	99.7	38,761	99.8
	산화티스텐	2825901020	60,879	98.4	66,859	93.6
	네오디뮴영구자석	8505119000	158,899	88	208,308	86.3
	수산화리튬	2825202000	355,041	81.1	410,462	83.2
미국	프로판	271112	2,455,064	95.8	2,861,913	93.1
	부탄	271113	475,083	91	873,540	91.4

하루평균 수출금액 연중 \$2,000,000,000 달성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하루평균 수출금액은 매일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루평균 수출금액은 3월부터 매일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1월 들어서는 25억2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해도 수출증가율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셈이다.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첫 \$10,000,000,000 돌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수출증가율도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인 16.1%에 달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은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과 한국의 전통식품인 인삼·김치였다. 인삼과 김치는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관심 증대에 힘입어 올해 최고 수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 농식품부 홍보관을 찾아 중소 김 가공업체의 한류와 연계한 수출 성공사례를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액 경신이 기대된다. 딸기·포도는 과거 내수 중심 품목이었지만, 수출 적합 품종을 개발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김은 6억 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는 1위 수출 품목이며, 단일 품목 기준 113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K-콘텐츠 수출 규모 \$11,560,000,000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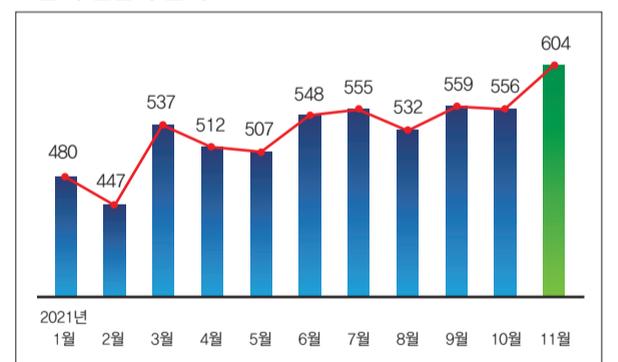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초 '콘텐츠 산업 2021년 결산과 2022년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1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한류 영향으로 영화·음악·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음악·영상서비스 수입이 현저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월별 수출 규모 \$60,000,000,000 돌파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1월 들어 우리 수출금액이 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10월 처음 월간 5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래 8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수출은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매일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7월 이후로는 월평균 수출 규모가 약 550억 달러조차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 올해 월별 수출액 (억 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올해 반도체 수출 규모 \$123,000,000,000 간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2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산업과 5G 수요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파운드리 업황 호조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무역 규모 \$1,241,900,000,000 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에서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6362억 달러, 수입은 29.5% 증가한 605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둘을 합친 무역 규모는 약 1조241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김용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1월 25일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통관수출 규모가 6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미 12월 1일부터 우리 무역 규모가 2018년의 1조 1401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 무역액을 경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채 기자



K-콘텐츠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31일 도쿄 시부야에 오징어게임 복장의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AP/뉴시스]

www.ecplaza.net | www.ecplaza.co.kr | design.ecplaza.net

제58회 무역의 날을 축하합니다

글로벌 B2BC 마켓 플레이스

ecplaza

해외마케팅 No.1 성공파트너 이씨플라자가 함께합니다

중기부, 산업부 수출bauer 
우수·파워 수행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aT, 지자체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데이터 Bauer 공급기관 선정



GLOBAL DIGITAL TRADE PLATFORM

ecplaza.net
Global Digital Trade Platform 이씨플라자(주)
e-mail. export10@ecplaza.net

서울
Tel. 02-6952-4577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50, 1F

부산
Tel. 051-469-5105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0, 7F

광주
Tel. 062-655-4617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73



[2022년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추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1. 최근 환율 동향

2020년 말 대비 101.60원(9.35%) 상승
미국 인플레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달러-원 환율 동향] 올해 달러-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4일 1080.30원까지 하락하며 연중 저점으로 시작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중 내내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 상승 기류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내 설비 투자 확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 등에 기인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됐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연중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했던 달러-원 환율은 10월 12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연중 고점인 1200.40원까지 상승한 후 잠시 숨 고르기를 거치며 하락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긴축 압력을 받았다. 반면에 유로존, 일본은 완화책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달러 강세와 유로화 및 엔화 약세가 전개됐다. 이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해 증가 대비 101.60원 상승한 1187.90원에 11월을 마감했다. [표-1 참조]

달러에 대해 위안화(CNH) 강세 지속적 유지
수출 호조, 위안화 결제 증가 등이 주요 요인

[위안-원 환율 동향] 위안화도 달러와 마찬가지로 올해 서울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4일에 167.18원까지 하락하며 연중 저점을 기록했고 연중 내내 지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이며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이는 위안화(CNH)가 달러에 대해 연중 내내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인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 모습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해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한 것은 중국 수출 호조는 물론,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 비중과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안화 비중이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 2 참조]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로 엔화 약세 심화
11월 말 들어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 전환

[엔-원, 유로-원 환율동향] 올해 엔-원 재정환율은 상반기 내내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유지함에 따라 꾸준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전개

했고 6월 초에는 1010원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7월부터 달러-원 환율의 상승 속도가 높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달러-엔 환율은 소강 국면을 보여 엔-원 재정환율은 상승 반전했고 9월 말에는 1080원대로 진입했다. 이후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재부각되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임에 따라 10월 26일에는 1023원 선까지 밀렸고 11월 29일에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 강세를 보여 1055원까지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1, 2 참조]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로 유로화 약세 심화
원화 약세 심화로 연중 내내 완만한 상승세 유지

유로-원 환율은 3월 19일 들어 1400원대로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일본은행과 같이 완화책 유지에 따른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로 유로화가 올해 내내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 약세 기류가 더가 파름에 따라 10월 초순까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에 9월 중순쯤에는 138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유로화 약세가 심화함에 따라 11월 22일에는 1330원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을 전개했고 이후 29일 들어서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달러 약세로 1350원대까지 상승 반전했다. [표-1, 2 참조]

2. 향후 환율전망

달러 인덱스 작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달러 강세 지속 예상
미중 물가 상승의 국내 전이도 원화 약세 요인

올해 달러는 미국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으로 연중 내내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인데 이 통화 가운데 유로화가 57.6%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 산출에 가중치가 제일 큰 유로화의 가치 절하가 달러 인덱스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2 참조]

원화도 이러한 달러 가치 상승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달러-원 환율 상승 폭(원화 가치 절하)이 비교적 컸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가파른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글로벌 공급망 병목 심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고

■ [표-1] 주요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동향

구 분	환율 (종가 기준)			
	달러-원	위안-원	엔-원	유로-원
2020.12.30	1086.3	167.02	1051.14	1333.98
2021.11.30	1187.9	186.3	1049.52	1343.75
지난해 대비	101.6	19.28	-1.62	9.77
변동률(%)	9.35	11.54	-0.15	0.73

■ [표-2] 달러에 대한 주요 통화 환율동향

구 분	환율 (15:30 기준)				
	달러인덱스	달러-원	달러-엔	유로-달러	달러-위안
2020.12.30	89.652	1086.3	103.35	1.228	6.5062
2021.11.30	95.58	1187.9	113.19	1.1312	6.3776
지난해 대비	5.93	101.6	9.84	-0.0968	-0.1286
변동률(%)	6.61	9.35	9.52	-7.88	-1.98

■ 2022년 달러-원 예상 거래범위

- 2차 지지선 : 1080원 // 1차 지지선 : 1100원
- 2차 저항선 : 1250원 // 1차 저항선 : 1230원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할 경우 미국 연준의 긴축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기에 현재의 달러 강세 흐름은 일단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며,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우리나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국의 높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추가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 상승은 해당 국가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는 구조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런 연결 구조가 반복될 경우 달러-원 환율 상승이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고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달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상저하고 예상
오미크론 리스크는 주요 변수로 주목

상당수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11월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은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기에 당분간 원화 약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잔물결이 자주 나타나는 부침 속에서도 중기적으로 하단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내년 달러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속에서 테이퍼링이 계속 진행되는 상반기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상저하고' 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깊은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향후 오미크론 리스크가 증폭될 경우에는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 연준이 긴축보다는 완화로 선회할 경우 예상과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리스크는 향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다.



이 석 재
한국무역협회 TradeSOS
외환 상담 전문위원



1964년 수출 1억불 달성 기념으로 제1회 무역의 날을 축하하는 한천수출조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천은 우물가사리의 열수추출액의 응고물인 우무를 열려 말린 해조가공품으로 당시엔 주력 수출품 중 하나였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박정희 “경제자립 위해 수출 증진해야”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는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고 10억 달러에 육박한 1960년대와 중화학공업 체제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급성장한 1970년대로 구분해 봐야 한다.

1964년 하인리히 뤼프게 서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1회 수출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평소에 우리들의 숙원이던 역대 수출의 달성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 나는 수출증진이라는 국가 지상의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일선에서 애써 노력한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여러분은 물론, 온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중심으로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라고 기쁨을 대변했다. 1967년 4회 축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자립을 위해 달성해야 할 연간 수출 규모의 고민 결과 10억 달러라는 수치를 도출했고, 1968년 5회 축사에서는 대한민국 수출의 나아갈 길로 ▷산업계 시설의 현대화 ▷경영관리 개선 ▷품질 좋고 값싼 제품 개발 ▷대규모 양산 체제 구축 ▷시장개척 노력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커다란 시련기를 겪으면서도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성장을 구가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9회 행사에서 “1980년대 초까지 100억 불을 수출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1974년 11회 행사 때에는 당시 남북 간 대화가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반영해 “우리의 국력이 막강해질 때 한반도의 전쟁 재발도 미연에 방지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성실한 태도로 남북 대화에 임해 올 것이며, 또한 민족적 숙원인 평화 통일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13회 수출의 날 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며 처음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977년 14회 수출의 날은 연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0억 불 수출은 비단 물량의 크기에 서뿐만 아니라, 거래의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와 보람이 있다고 믿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1978년 15회 행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그는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장벽은 비단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는 자만과 안일과 방심”이라면서, “이를 스스로 역세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밖으로부터의 모진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단없는 수출 개척 노력을 당부했다.

1979년 16회 수출의 날은 '10·26사태' 직후 사회 혼란 속에 치러졌다. 최규하 대통령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수출증대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외 지향의 개발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추구”

대한민국은 1986년 건국 이래 최초로 3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흑자 시대를 열었다. 국제원유가 급락, 원화 약세, 국제금리 하락 등 소위 '3저 현상'의 덕을 톡톡히 봤다.

1980년 17회 수출의 날 처음으로 축사를 한 전두환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경제운용을 경쟁과 개방을 토대로 한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는 연간 수출 500억 달러 이상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1981년은 대한민국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해 열린 18회 수출의 날에서 전 대통령은 “기술 집약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더욱 앞차게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뒤

1964년 수출 1억불

1977년 수출 100억불

1986년 첫 무역흑자

1995년 수출 1000억불

떨어진 부품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3년 20회 수출의 날을 두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은 ‘버마암살사태’를 겪었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의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졌다. 평화파괴 국가의 반이성적 만행과 더불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북한 공산집단의 폭력살인 만행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 숭고한 노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1985년 22회 수출의 날에는 수입대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자재와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직접적인 수입 절감은 물론이고 수출의 외형적 신장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여 줌으로써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 절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1986년은 건국 이래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를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때 행사명도 무역의 날로 바뀌었다. 그해 23회 행사에서 전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들어 마침내, 건국 이래 줄곧 시달려온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혜와 땀으로 흑자경제의 달성이라는 신화를 창조해냈다”고 자평했다. 1987년 열린 24회 무역의 날 그는 마지막 축사를 통해 “수출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과 함께 어떤 상품도, 어떤 나라건, 어떤 때든지 공급할 수 있는 전천후 무역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계 12위 무역국으로 부상한 1988년 제2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노태우 “무역은 번영 키워갈 유일한 길”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대한민국 수출은 3저 현상에 따른 무역흑자 시대의 짧은 도래에도 불구하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제적 호황,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출국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출은 607억 달러로 전년 400억 달러에서 1년 만에 100억 달러 넘는 신장세를 실현했다. 그해 25회 무역의 날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선진산업사회의 문턱에 진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흑자 기반이 정착됨으로써 자립경제의 터전이 다져지고 두 자리 숫자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무역적자로 돌아선 1990년 27회 무역의 날 노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분단된 이 나라의 통일도 경제력의 바탕 없이 이룰 수 없다”면서, “이 모든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국민 소득 1만 달러, 무역 2000억 달러의 시대를 열어야 한

무역의 날 역대 대통령 축

‘무역의 날’은 민간 주관 행사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이 매년 참석 맞춰 변화했으나 무역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례는 개화한 국가 경제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 되어 선진국 수준에 수출에 있었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행사장 리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무역의 발전상을 제시해왔다.

1964년 1회부터 2020년 57회까지 대통령들은 축사를 했다. 기간장으로 인해 장기영 부총리가 대독한 1회부터 15회까지 축사를 했으며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뒤부터는 노태우(26회는 해외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5회의 축사를 했다.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난 대행을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1회의 축사를 했다. 대통령들의 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성공한 2020년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다. 무역의 성장은 우리의 번영을 즐기차게 키워 갈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1992년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무역적자가 약 51억 달러로 축소됐다.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대통령은 29회 행사 축사에서 “우리의 경쟁 대상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낮은 임금, 저급 노동, 값싼 상품으로 수출을 늘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기업은 기술과 품질에 바탕을 두고 고급,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 “세계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대한민국 무역은 ‘암흑기’라 불린다. 연간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으나, 수출이 늘면서 원자재 부담도 상승해 집권 5년간 연간 최대 무역적자 규모를 두 번이나 경신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몰린 대한민국은 결국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요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94년 31회 행사 축사에서 김영삼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인 ‘세계화’가 등장했다. 김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1995년 32회 무역의 날 행사는 연간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불과 한 세대의 짧은 기간에 수출고를 무려 1200배로 키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국민이 이루어 냈다”고 자평했다.

1997년 34회 무역의 날 행사는 12월 1일에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위한 결의와 다짐’이라는 제목의 축사를 통해 “개발연대부터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시 아를 휩쓴 금융위기와 맞물려 우리의 외환·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부도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IMF와 미국·일본 등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뒤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대중 “IMF 위기, 도전과 응전으로 극복”

역사로 본 한국무역 변천사

하는 최고 권위의 행사다. 명칭과 주관기관, 날짜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건국 초기 피폐함으로 끌어올리며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의 핵심은 수출이다. 대통령의 축사는 당해 연도의 수출 성과를 정면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 가운데 하나다.

장 많은 무역의 날 축사를 한 이는 단연 박정희 대통령이다. 서독 출생이다.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8회(17~24회)를 기록했으며, 대통령과 겹쳐 강영훈 국무총리가 대신함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이 3회, 최규하 대통령이 1회를 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의 날 축사 가운데 시대별로 중요한 발언을 요약해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유공자 포상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외환위기의 시작과 함께 국정 업무를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급격한 경제 위축 상황 속에서 국가 구조개혁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조기에 졸업했다. 특히, 1998년은 대한민국 무역흑자 기조 정착이 본격화하는 해로 기록되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36회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무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 무역에 대비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21세기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 수출에 전력 등을 제시했다.

2000년 37회 행사에서는 수출증대를 위해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정보산업(IT)과 생물산업(BT) 등 지식기반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무역의 날 대통령 축사에서 정보산업과 생물산업 단어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001년 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중국 경제는 2020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대시장이다”라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이루어질 시장개방으로 연간 11억 달러가 넘는 대중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해였다. 39회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관리체제로 시작한 지난 5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면서, “이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나아가자. 고품질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2010년 무역 규모 6000억 달러의 세계무역 8강으로 도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무현 “수출 온기가 전 구석에 퍼져나가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다자간 무역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의 본격화와 더불어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히 이뤄졌다. 대한민국도 2003년 칠레와의 FTA가 정식 발효해 FTA 시대의 막을 올렸다.

2003년 4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망의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열린다”면서, “국민 소득 2만 달러 실현에도 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수출이

1997년 IMF 체제 2003년 FTA 시대 개막 2011년 무역 1조불 2020년 수출 6000억불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 4000억 달러가 되어야겠다”는 ‘2010년 국민 소득 2만 달러, 수출 4000억 달러 시대’를 제안했다. 2004년 41회 무역의 날에는 4000억 달러 시대 도래를 위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5년 42회 무역의 날 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철학인 ‘상생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더욱 육성해서 수출과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44회 행사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0월 2~4일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우리 경제가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우리 우환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박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 열자”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가장 큰 사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이었다. 21세기 들어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경제 지표들은 급락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수출도 바로 회복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9년 46회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0년 47회 행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을 극복하자면 새로운 무역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시장 진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FTA 시대 적극적인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2011년 48회 행사는 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해왔다”면서, “우리는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하고, 또 열 수 있다”고 전했다. 2012년 49회 무역의 날 축사에서는 이탈리아가 화제어로 눈길을 끌었다. “20여 년 전 ‘2020년까지 장기국가발전전략’을 세울 때 이탈리아는 우리가 넘어야 할 꿈의 목표로 세웠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2014년까지 무역 8강 이탈리아를 넘어설 목표를 세웠고, 그보다 2년 앞서 금년에 우리는 마침내 그 고지를 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했지만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어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제2의 무역 입국’ 실현해야”
박근혜 대통령 재임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3년 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제2의 무역 입국’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 세일즈 외교와 자유무역 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4년 51회 행사에서는 ‘제2의 무역 입국’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무역이 가야 할 길로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 발굴해 수출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의 중요축으로 성장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2016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53회 축사를 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기적을 이룩한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무역 대국의 큰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포용적 성장 통해 혜택 모두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 세계무역은 유가 변동성의 영향으로 호황과 부진이 반복됐다. 무엇보다 2020년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은 전 세계를 교역을 중단 사태로 몰아넣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4회 무역의 날 축사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출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수출산업 고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한 2018년 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19년 56회 행사에서는 무역 시장 다변화 계획 등을 비중 있게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하여,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의 77%에서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0년 열린 57회 무역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늘 그랬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며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2년 눈길 끄는 전시회 국내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은 전시업계에 암흑기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전시회가 취소·연기되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고, 국가 간 이동 제한과 혼란스러운 물류 일정, 치솟는 물류비에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선진국을 필두로 백신접종률 증가,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발표 등이 이뤄지면서 전시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해외 방문객과 참가기업도 하나 둘 늘며 '국제 비즈니스의 장' 역할도 재개되고 있다.

전시회는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업과 상품을 홍보하며 네트워킹하는 창구로,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기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온라인 전시회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이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잠재고객을 늘리는 데 있다면 활용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나 고객과의 네트워킹과 신뢰관계 강화, 단기간 내 수출 성과 등을 염두에 둔다면 오프라인 전시회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 오프라인 전시회를 기다렸던 기업들의 '보상참여'가 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국내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출입국 제한이 완화돼 전시업계가 활기를 되찾길 바라며, 2022년 주목할 만한 전시회를 소개한다. 민유정 기자

대한민국 최초·최대 규모 베이비페어 제40회 베페 베이비페어(The 40th BeFe BABYFAIR)

- 주최 : (주)베페
- 일자 : 3월 3~6일(1년에 두 번, 첫 번째 전시회 일정)
- 장소 : 코엑스 A·B홀

'믿을 수 있는' 임신·출산·유아용품을 찾고 있다면 베페 베이비페어를 주목하자. 베페 베이비페어는 2000년부터 약 20년간 성황리에 개최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유아용품 전시회로, 매회 평균 1000부스가 마련되고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시회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1년에 두 번 만나볼 수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베이비페어 중 유일하게 B2B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해외 수출상담회(BeFe Trade Meeting)와 국내 유통상담회를 통해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비즈니스 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열린 제

35회 전시회에는 14개국 바이어 46개사가 참가, 계약실적 211건, 4370만9940달러, 상담실적 368건, 1억8006만4700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상담회 관련 문의는 베페 전시팀(02-556-2236, babyfair@befe.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베페는 일반 참관객도, 기업들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기업은 모두 제조사 본사며, 해외 브랜드의 경우 독점 수입원이 참가한다. (주)베페의 등록상표인 베페(BeFe) 또한 오직 (주)베페만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다. 약 120만 명(온라인 회원



3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제39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전시된 아동복을 참관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20만 명, 오프라인 회원 100만 명)의 잠재 구매고객 DB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신규 회원 약 10만 명이 유입돼 참가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한국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

- 주최 : (주)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일자 : 3월 10~13일
- 장소 : 코엑스 전관

1980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한국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코엑스 전관(A·B·C·D홀)과 그랜드볼룸을 사용해 4만㎡의 규모로 개최됐으며, 33개국 1208개사가 참가하고 출품기업 관계자 제외 5만 2362명이 방문했다.

전시회 기간 KOTRA와 협력해 개최하는 수출 상담회 'GMEP'는 매년 많은 관심을 받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상상담회 형태로 개최됐다. 전시회가 열리던 3월 18~19일에는

전시장 안에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상담회에는 국내 250여 개사와 해외 550여 개사가 참여했다. KOTRA는 진단방역물품의 경우 바이코리아 방역물품 온라인 특별관을 통해 연중 수시로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MES는 매해 신기술·신제품 전시, 수출상담회와 더불어 최신 정보와 의료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책 세미나는 물론 의학술 세미나, 신기술 세미나, 해외 마케팅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관계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참가업체의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KIMES 공식 유튜브 라이브 채널 'KIMES



3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21'에서 참관객들이 음압 챔버 및 이송 장치, 음압 구급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Live!'를 운영, 참가업체의 첨단의료기기를 실시간으로 우리말로 영어로 소개하기도 했다. 출품 관련 문의는 전시회 사무국(02-551-0102)으로 하면 된다.

원료부터 포장까지... 제약·화장품산업 대표 전시회

PACK-ICPI

- 주최 : (주)경연전람, (주)케이와이엑스포
- 일자 : 6월 14~17일
-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전관, 제2전시장 7·8홀

식약·화장품 분야의 패키징 공정 개선 및 자동화기기,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가공 및 패키징산업 전시회 '제23회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 제품 개발에서 생산·포장·물류유통의 전 과정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국제 화장품·제약산업 기술 주간(ICPI WEEK)'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찾아온다.

KOREA PACK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약, 화장품, 공산품 분야를 아우르는 포장산업을 다루며, ICPI WEEK는 ▷KOREA MAT(제12회 국제물류산업대전) ▷COPHEX(제17회 국제제약·바이

오·화장품기술전) ▷KOREA CHEM(제14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KOREA LAB(제16회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KOREA PHARM&BIO(제12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CI KOREA(제7회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로 구성된다.

올해 온라인 전시회는 가상부스와 비즈매칭, 웨비나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바이어는 가상부스를 통해 참가기업의 제품을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심 있는 참가기업과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해 1대1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인콰이어리 오피도 가능했다.



제22회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에서 방문객이 한 참가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방문객은 한 번의 등록으로 내년 7개 전시는 전시회 홈페이지(www.icpiweek.org)에서 6월 1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소비재 분야 B2B 거래를 쉽게

2022 서울 국제 소싱페어(SOURCING FAIR)

- 주최 : 코엑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 일자 : 9월 29일~10월 1일
- 장소 : 코엑스 B홀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체라면 서울 국제 소싱페어 참가를 고려할 만하다.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출동하는 소싱페어에서는 B2B 비즈니스가 쉬워진다. 품목도 스마트기기, 관측용·답례품, 사무용품, 의료·건강용품, 건강기능식품, 주방·육식용품, 유아용품, 차량용품, 의류·패션소품, 액세서리, 화장품, 이·미용기기, 스포츠·아웃도어용품, 취미 관련 제품 등 방대하다.

우선 소싱페어에 방문하는 참가객 중 80.3%는 의사결정권자, 즉 유효 바이어다. 2019년 기준 국내외 유효 바이어 1만5147명이 참가했다. 전 품목 참가업체의 투자 대비 수익률(ROI)은 1938%에 달했다. 전시회

이전 참가기업 대상 사전 교육을 통해 B2B 성과 극대화를 지원하며, 종료 후에는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시회 기간 데이터 기반 시장조사 결과, 매출 향상 마케팅 전략, 유통산업 전망, 제품 소싱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전문 세미나도 마련, 참가업체 및 관람객 대상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기업과 바이어의 만남을 주선하는 국내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도 기다리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184명, 해외 195명의 바이어가 초청됐다. 코로나19 이후 현장 방문이 어려운 바이어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화상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바이어, 참가객 대상 365



11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소비재 전문 전시회 '2021 서울국제소싱페어 Fair'에서 참가업체 직원이 이·미용 기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전시회 홈페이지】

일 제품 홍보(e-소싱) ▷거래상담(일반·제품 문의) ▷참가업체 인터뷰 및 특집기사 소

식지 게재 등 참가기업의 마케팅을 상시 지원한다.

아시아 넘버원 커피 이벤트

제21회 서울카페쇼(Cafe Show Seoul 2022)

- 주최 : 엑스포럼, 월간커피
- 일자 : 11월 23~26일
- 장소 : 코엑스 전관

식품료산업의 국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플랫폼, 전 세계 업계 리더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곳,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문화 체험의 장. 모두 서울카페쇼를 설명하는 말이다. 올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카페쇼에는 30개국 625개 업체가 2003개 부스를 구성했으며, 참가객은 30개국 10만8664명에 달했다.

출품기업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객이라면 특히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카페쇼 모카포트(Mocha Port)'를 주목하자. 참가업체는 기업과 제품 정보를, 바이어는 관심품목 세부사항을 플랫폼에 미

리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모카포트가 미팅업체를 추천한다. 추천된 기업 정보를 읽고 참가기업과 바이어는 미팅을 신청·수락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온라인에서 미팅이 이뤄진다. 모카포트 플랫폼에서는 추천업체뿐 아니라 등록된 참가기업·바이어 정보를 모두 미리 열람할 수 있다.

'체리스 초이스(Cherry's Choice)'에서는 히트(예감) 아이템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HOT과 NEW로 구역을 나눠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전시한다. 또, 세계 최고 커피석학과 전문가들이 한



'제20회 서울카페쇼'가 개막한 11월 10일 오전 참가객들이 출품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World Coffee Leaders Forum)'에서는 커피시장 최신 트렌드와 지

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된다. 이밖에도 각종 경연대회와 페스티벌이 전시회 기간 개최된다.

민유정 기자



미국 CBS TV '코든쇼'에서 '퍼미션 투 댄스' 무대를 꾸미는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북미 주류시장에 안착한 K-팝... 음반 수출 2억 달러 눈앞

빌보드 최상위권 예상일이고 미 유명 음악 프로그램도 잇따라 모셔가

“K-팝을 좋아하는 이유요? 노래가 매우 좋고 가사가 의미 있어요. 소속사의 마케팅도 훌륭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한 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K-팝 한류는 높은 퀄리티를 앞세워 아시아를 넘어 미국 주류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K-팝 음반 수출액 경신... ‘꿈의 차트’ 빌보드에 한국 팀 넘친다 = 12월 1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올해 1~10월 1억8974만 달러(약 2256억 원)를 기록해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음반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1억3620만 달러(약 1620억 원)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11월과 12월 기록을 더하면 수출액 2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신기록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K-팝 음반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갔는지 보면 일본이 6703만4000달러(약 797억 원)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홍콩 순이었다.

특히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수출액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9년 전인 2012년에는 전체 음반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이 2.2%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17.1%까지 치고 올라왔다. K-팝 한류가 일본·중국 등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음원 유통사 지니뮤직의 해외 매출은 2019년 121억 원에서 지난해 192억 원으로 58.7%나 급증했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그만큼 해외 플랫폼에서 K-팝 음원을 더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라며 “해외 매출은 올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음악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빌보드 차트에는 K-팝 스타들이 수시로 오르내린다. 두 메인 차트인 ‘핫 100(싱글)’과 ‘빌보드 200(앨범)’ 진입 성공 사례가 잇따르다 보니 그 밖의 여러 하위 차

트 진입은 이제 어지간한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방탄소년단은 ‘버터(Butter)’로 빌보드 핫 100에서 무려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와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도 각각 1위에 올랐다.

다른 K-팝 가수로 눈을 돌려도 빌보드 선전은 눈에 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빌보드 200 2위를 기록했고, 트와이스와 이지도 이 차트에서 각각 3위·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에이티즈, 엔하이픈, 몬스타엑스, 블랙핑크 리사, 에스파, NCT 127 등 많은 K-팝 스타들이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K-팝은 전 지구적 현상... 확대·재생산 통해 하나의 ‘놀이’로 = K-팝이 이처럼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비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은 신보뿐만 아니라 가수의 과거 음악과 음반까지 듣고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날 만큼 K-팝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확장하고, 신규 팬덤이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며 “K-팝이 전방위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호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인들이 K-팝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챌린지’·‘리액션’ 영상 등으로 프로슈머(소비자 겸 생산자)가 돼 재생산(Re-creative)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더 나아가 재생산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것이 K-팝만의 새로운 놀이 문화이자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규탁 한국 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는 K-팝의 성공 비결로 ‘입소문’을 꼽았다. 이 교수는 “K-팝이 1~2년 사이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20년, 서구에서도 10년 넘게 이미 인기를 끈 역사가

있다”며 “인터넷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는 주류 미디어보다 유튜브, SNS, 틱톡 등을 통해 노래와 퍼포먼스를 직접 듣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게 바로 입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요즘 팬들은 워낙 유튜브에 자발적으로 자막과 해석본을 잘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한국어가 가진 생경함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성 미디어에서 유튜브 등으로) 문화의 축이 옮겨갔고, 그 바뀐 흐름의 수혜자가 K-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TV 출연 줄이어... 언어의 장벽 넘어는 비결 = K-팝의 미국 내 ‘대중적’ 영향력 확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지 TV 출연이다. 현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내로라하는 굵직한 방송에 줄지어 나오고 있다.

세븐틴과 트와이스는 음반 출시와 동시에 미국 유명 음악 방송 ‘MTV 프레스시 아웃 라이브’에 출연해 신곡 ‘록 위드 유(Rock With You)’와 ‘사이언티스트(SCIENTIST)’를 불렀다. NCT 127도 이달 미국 NBC 유명 토크쇼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해 신곡 ‘페이보릿(Favorite)’을 선보였다.

아예 블랙핑크의 리사처럼 국내가 아닌 미국 방송에서 먼저 신곡을 내보내는 사례도 있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NBC ‘펠런 쇼’에서 솔로곡 ‘라리사(LALISA)’ 데뷔 무대를 꾸렸다.

미국 방송가가 K-팝 가수에게 이처럼 문을 활짝 연 배경은 무엇일까.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K-팝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현지 출연을 못 하게 돼 한국에서 대신 촬영해서 보내주는 영상의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요 TV 쇼는 프로그램마다 섭외를 담당하는 일종의 외부 에이전트인 ‘부커(Booker)’가 있다. K-팝 그룹과 연계된 해

외 에이전트나 음반 레코드사가 이들 부커와 연계해 출연을 논의한다.

미국 현지 출연은 당연히 해당 TV 방송국의 인력과 비용으로 무대를 꾸미겠지만, 한국에서 송출하는 K-팝 가수들은 한국 기획사가 거의 비용을 낸다. 주로 뮤직비디오 세트장 혹은 방송국 스튜디오 등을 빌려 촬영이 이뤄지는데, 무대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 회당 촬영 비용이 1억~2억 원이나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미국 방송사 입장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에 훌륭한 무대 한편이 ‘뚝뚝’ 나오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기획사 관계자는 “K-팝 아티스트의 방송 무대는 미국 아티스트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퀄리티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K-팝 가수가 출연한 편의 유튜브 조회 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K-팝 팬들은 다른 팬덤에 비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 수 역시 다른 출연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 방송사 입장에서도 K-팝 스타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블랙핑크의 리사가 ‘펠런쇼’에서 선보인 ‘라리사(LALISA)’ 무대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300만 건이 넘었다.

미국 최고의 팝스타로 꼽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2017년 11월 이 방송에서 부른 ‘뉴 이어스 데이(New Year’s Day)’ 무대 영상 조회 수가 4년간 930만여 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화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보편화되고 치료제까지 개발되면서 미국 방송가에도 ‘위드 코로나’ 바람이 부는 점은 변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는 달리 스튜디오 현장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경우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는 해외 스케줄을 내기가 가수들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무역의 날 특집

한국무역신문 제700호 2021년 12월 6일

- 숫자로 되돌아보는 2021년 한국무역 20~21면
- 2022년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나 23면
- 무역의 날 역대 대통령 축사로 본 한국무역 변천사 24~25면
- 2022년 눈길 끄는 전시회 26~27면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훈포상 수상자 프로필 30~36면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훈포상 수상자 명단 38~43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지수 쓰리씨랩 대표이사에게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첫 1100억불 수출의 탑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온용현 대표이사 외 4인 금탑산업훈장

한국무역협회는 12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우리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치하하기 위해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1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또 (주)호텔롯데롯데면세점, 주식회사씨젠, (주)파트론, 제이셋스테츠칩팩코리아(유), 희성축매주식회사가 10억불탑을, 그리고 주식회사에코프로비엠, (주)크라프트온은 8억불탑을 받았다.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모두 1573개 업체

로 지난해보다 68개사가 늘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서는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온용현 대표이사, 현대자동차(주)이영택 본부장, (주)대창 이길상 대표이사, 주식회사 제놀루션 김기욱 대표이사, 디씨엠주식회사 정영택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에쓰오일(주) 후세인 알카타니 대표이사 외 4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주식회사 한국에보트진단 정재호 대표이사 외 8인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샬롬엔지니어링(주) 김봉택 대표이사 외 8인은 철탑산업훈장을, (주)도루코 백학기 사장과 5인은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이사 외 30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밖에 대통령표창(79명), 국무총리표창(86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369명)이 수여됐다.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최근 10년 수상업체 수를 보면 ▷2011년 1929개 ▷2012년 1742개 ▷2013년 1526개 ▷2014년 1481개 ▷2015년 1328개 ▷2016년 1209개 ▷2017년 1153개 ▷2018년 1264개 ▷2019년 1329개 ▷2020년 1505개 ▷2021년 1573개사다.

'1억불탑' 이상 수상업체는 올해 70개사로 지난해(36개사)보다 2배 늘었다. 김영채 기자



무역의 날

올해 58회째인 '무역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것이 기원이다. 1986년에는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이듬해인 198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변경됐다.

1988년부터는 KOTRA에서 한국무역협회로 주관기관이 바뀌어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후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여 무역의 날은 12월 5일로 변경됐다.

무역의 날에는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무역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한다. 수출의 탑은 전년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출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여하는데, 올해는 '1백만불탑'부터 '1100억불탑'까지 총 19종이다.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종업원을 위한 10종의 수출업체 포상(훈장·포장·표창)도 마련돼 있다. 김영채 기자

'수출 역사'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

1100억불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에 해당

삼성전자가 올해 무역의 날에 110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사상 최초다.

무역의 날 시상식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년도 6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중 1132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이 탑을 받게 됐는데, 이 실적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751억 달러의 20%에 해당한다.

수출탑의 역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새로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1995년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100억불탑을 받았다. 이후 2000년 150억불탑, 2001년 200억불탑, 2003년 250억불탑, 2004년 350억불탑, 2005

년 400억불탑, 2007년 450억불탑, 2008년 500억불탑, 2011년 650억불탑, 2014년 750억불탑, 2018년 900억불탑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전까지는 주로 종합상사 전성 시대였다. 1979년 대우실업이 최초로 10억불탑을 받았으며 1994년에는 삼성물산이 단일기업 처음으로 100억불탑을 수상했다. 현대종합상사는 1998년 150억불탑에 이어 2000년 250억불탑을 받았다. 최초의 1억불탑은 수출탑이 처음 제정된 1973년 한일합섬의 몫이었다.

수출탑은 그해 수출 유공업체들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며 훈장이나 포장, 표창은 수출 유공자 개인에게 주어진다. 김영채 기자

■ 수출의 탑 수상 (단위: 개사)

수출의 탑	2020년	2021년
1100억불탑	0	1
30억불탑	1	0
10억불탑	1	5
9억불탑	1	0
8억불탑	2	2
7억불탑	2	2
6억불탑	0	3
5억불탑	1	1
4억불탑	3	2
3억불탑	2	7
2억불탑	9	11
1억불탑	14	36
7천만불탑	21	14
5천만불탑	29	28
3천만불탑	54	65
2천만불탑	69	79
1천만불탑	155	199
7백만불탑	138	147
5백만불탑	165	191
3백만불탑	252	264
1백만불탑	586	516
계	1505	1573

‘수출의 탑’ 영광의 얼굴들

1100억불탑

삼성전자(주)



- 수출품목 : 반도체
- 수출실적 : 1132.2억불

2006년 이후 TV 전체 세계 1위, 2011년 이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CE), 모바일(M), 반도체(DS) 부문 모두 큰 성장을 이뤄냈다. TV는 2020년 말 기준 31.9%의 점유율로 15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Neo QLED·마이크

로 LED 등 혁신 제품과 더 프레임·더 세로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리빙 가전 부문을 확대하면서 ‘비스포크 홈’을 완성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5G, 사물인터넷, 삼성녹스, 빅스비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온 모바일 부문에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로 신규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과 한층 더 진화된 ‘갤럭시 Z 폴드2’를 출시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0년 DRAM 수요는 2019년 대비 약 22% 성장했으며, 서버 응용 제품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D램의 점유율은 43.6%, 낸드플래시에서는 34%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0억불탑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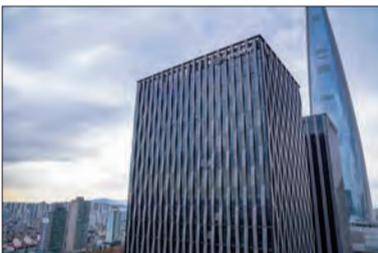
- 수출품목 : 메이크업, 기초 화장품 등
- 수출실적 : 10.3억불

롯데면세점은 1980년 개점한 이래 국내 8개 면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미국, 괌, 베트남, 호주 등 6개국에서 11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면세업계 최초로 온라인 명품관을 오픈했고,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호주 시드니 등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해외 출점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 40여 년간 세계 2위, 국내 1위 면세사업자로 성장한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부터 국산 중소중견 브랜드까지 2000여종의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미용기기 등 우수한 품질의 국내 뷰티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투어 마케팅을 선보이며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0억불탑

주식회사 씨젠



- 수출품목 : 분자진단 시약 및 장비
- 수출실적 : 10.5억불

노리는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켜 결과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을 결합한 진단 시약을 주력으로 전 세계에 분자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씨젠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한 진단 시약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분자진단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신개념 분자진단 장비 솔루션 ‘STARlet-AIOS’를 공개한 바 있다. 리얼타임 PCR 원천기술과 개발 자동화 시스템으로 2020년 1월에 코로나19 진단 제품을 2주 만에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에 공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진단에 널리 이용케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국가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PCR 진단을 위한 장비의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500% 증가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에 7000만 테스트를 판매했다. 2021년 6월 말까지 추가로 1억3000만 테스트를 판매한 실적을 달성했다.

10억불탑

제이셋스테츠칩팩코리아(유)



- 수출품목 : 반도체 소자
- 수출실적 : 11.8억불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그 중에서도 System-in-Package(SIP)를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전문업체이다. SIP는 시스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도기술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반도체 부품들을 단일의 패키지로 통합해, 전자제품의 단일 시스템이나 모듈식

하위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고 전자 제품에 쉽게 이식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긴 개발 기간, 검증이 되지 않은 작동 기능이나 높은 제조비용 등 기존 패키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유망 기술과의 결합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의 부품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IP 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제품의 성장과 차세대 반도체 제품 기술개발로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10억불탑

희성촉매 주식회사



- 수출품목 : 자동차 촉매
- 수출실적 : 12.1억불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으로 희성그룹과 글로벌 화학업체인 바스프(BASF)의 합작회사이다. 1983년 설립 이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해왔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촉매기술을 확보해, 국내 촉매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가스를 무해가스로 정화하는 환경 촉매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보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 촉매 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촉매를 국산화함으로써 외화절감의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촉매 등 친환경 에너지 소재를 개발하고 고객가치 혁신과 인간 존중 기반의 투명 경영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8억불탑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 수출품목 : 이차전지
- 수출실적 : 8.5억불

2차전지용 하이니켈(High Nickel) 양극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리튬 2차전지용 초고용량, 장수명 하이니켈계(Ni 함유량 80% 이상) 양극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차세대 양극소재인 NCA, CSG 모두 양산이 가능하며, 생산능력은 세계 2위

에 이른다.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인 전구체 합성 기술, 고용량 NCA 기술, 고안정성 CSG 기술, 양산화 기술 등의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현존하는 LIB 양극소재 중 최고의 가역 용량을 확보해, 고객사 요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NCA 모델링까지 가능케 했다. 핵심 고객인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유럽 및 미주 현지에 공격적인 생산기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 역시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이다. 2021년 9월 설립한 ‘에코프로 글로벌’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유럽 1조1000억 원, 북미 9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양극재 총 25만 톤을 확보할 예정이며 국내 생산량까지 합치면 총 48만 톤으로 국내 양극재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수출의 탑’ 영광의 얼굴들

8억불탑

(주)크라프트



- 수출품목 : 게임
- 수출실적 : 8.8억불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현재는 펍지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 라이징윙스 등 총 5개의 독립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언노운 윌즈를 인수하고 새로운 독립 스튜디오로 영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매출은 약 3조8779억 원이며, 그중 해외매출은

약 3조4454억 원으로 전체의 89%에 달한다. 2021년 1분기 매출 역시 4610억 원 중 해외매출이 4390억 원으로 약 9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영국 등이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배틀그라운드 PC 등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이 있다. 아울러 게임 IP를 샷필름, 다큐멘터리,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 탄생 비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미스터리 언노운과 단편영화 그라운드 제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북미 흥행수익 1위 경력을 지닌 할리우드 제작자를 총괄 프로듀서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7억불탑

희성피엠텍(주)



- 수출품목 : 백금족 귀금속
- 수출실적 : 7.7억불

자동차와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촉매와 귀금속 스크랩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정제하고 귀금속 화합물을 제조 판매하는 귀금속 회수정제 전문업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금족 금속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폐기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귀금속 함유 폐촉매를 국내에서

정제·회수하고자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3년간의 국책과제를 수행해 습식법을 이용한 귀금속 회수정제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매년 런던과 뉴욕에서 열리는 귀금속 포럼에 참가하여 지속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의 해외업체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높은 수출실적을 이뤄내고 있다. 새로운 원재료로 귀금속을 정제·회수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투자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폐촉매가 아닌 친환경 자동차에서 추출된 폐촉매를 사용해 귀금속을 정제·회수하기 위해 계속 연구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6억불탑

대한조선주식회사



- 수출품목 : 석유제품운반선, 원유운반선, LNG 추진선박 등
- 수출실적 : 6.3억불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신조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회사며, 주요 생산품목은 석유제품운반선, 원유운반선, LNG 추진선박 및 국가발주선박(어업지도선, 상선실습선 등) 등이다. 국가발주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외선주사가 발주하는 신조선박이다. 몇 년간 침체된 조

선경기에도 주력 생산 선종에만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신규 선종을 개발·설계하면서 신규 선박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2021년도에는 DWT 11만5000톤급 LNG Dual Fuel 크루즈 오일탱커 신규 선종을 수주했다. 노르웨이 독일선급(DNV GL)과 실용인증 획득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감 향상 및 협력관계를 증대했으며, 그리스, 싱가포르 등에서 고객사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력 설명을 위한 현지 기술미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년 연속 Aframax급 탱커 누적 수주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2년 연속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됐다. 당사 사후선박관리 A/S 시스템과 우수한 설계능력으로 선박 모형 테스트 통과율이 100%를 이룩했다.

6억불탑

한국알프스(주)



- 수출품목 : 전자부품
- 수출실적 : 6.3억불

차재전자부품(Automotive Electronics), 통신관련품(Communication), 입력장치(Input device), 컴포넌트(Components) 등의 전자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기기의 핵심부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2021년 수출은 6.3억 불로 전년 대비 154%의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반

도체 수급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불안정 및 수출입 물류대란 등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고성장의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73%), 독일(9%), 일본(7%), 미국 및 기타(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 수출품목은 VCM와 차량용 전자제품이 꼽힌다. 차량용 전자제품(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을 자체 설계해 그 설계품을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제안·개발·납품함으로써 차량용 전자 스위치의 고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금형기술과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고주파 기술을 바탕으로 TV 채널 선국장치인 튜너(Tuner)를 자체 개발해 삼성 디지털 TV 브랜드의 세계시장 1위 달성에 동참하고 있다.

3억불탑

(주)대동



- 수출품목 : 농기계
- 수출실적 : 3.9억불

종합 농기계 제조사로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에 이르는 당해 연도 수출은 3억8687만불을 달성했고,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은 2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트랙터, UTV, 콤파인, 이앙기 등으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수출량이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15% 이상이 R&D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위해 신규 사업(Skid Steer Loader, 전기 상용차, 건설중장비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21년 국내 업계 최초 트랙터 10년 품질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국내 특허 및 디자인등록 등 100건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시장으로는 북미 포함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까지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 브랜드인 KIOTI를 내세워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3억불탑

삼양식품(주)



- 수출품목 : 면류 및 식품
- 수출실적 : 3.1억불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한 업체로 최초의 라면 수출기업이다. 1969년 베트남에 국내 최초로 160만불의 라면을 수출한 기록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 수출은 2020년 2억8440만불 대비 2021년 3억840만불로 전년 대비 8%의 성장을 이뤄냈다. 주요 수출

국은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44.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27.5%), 미주(16.6%), 유럽 및 중동(9.1%), 오세아니아(1.8%)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주요 수출품목은 불닭볶음면 관련 제품군(86.7%)과 그 외 제품군(13.3%)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통해 전 세계시장에서 블루오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꾸준한 품질 개선과 제품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의 증대를 이뤄가고 있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 HACCP, HALAL, 유기 초지인증, 유기 축산인증, BSI-KOREA의 안전인증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수출의 탑’ 영광의 얼굴들

2억불탑

(주)네패스

- 수출품목 : 반도체용 화학 부품소재
- 수출실적 : 2.2억불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은 (주)네패스는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후공정의 거의 모든 과정을 턴키로 수행할 수 있어 글로벌 우수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원스톱’ 후공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국과 필리핀, 중국, 인도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해외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주)네패스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주요 수출액 구성은 Bump와 EDS공정이며, 최근 1개년도 직수출은 6100만불, 간접수출 1억6200만불로 간접수출이 7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부문은 계열사 포함 (주)네패스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한다. (주)네



패스는 1992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및 TFT-LCD용 박막트랜지스터 생산에 사용되는 미세회로 형성용 현상액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 1995년 ‘올해의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WLP(Wafer Level Package) 기술과 FO-PLP(Fan-out Panel level Package) 기술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2억불탑

(주)동성화인텍

- 수출품목 : 초저온보냉재
- 수출실적 : 2.6억불

(주)동성화인텍은 세계 유일의 초저온 보냉재(영하 163도 이하에서 LNG를 액화시켜 기화손실을 방지하며 안전적 장거리 운송을 가능케 하는 극저온용 단열재) 일괄생산시스템을 보유한 전문 생산기업으로, 1985년 7월 폴리우레탄 정밀화학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삼정화인 주식회사로 시작했다. 현재는 PU보냉재 부문(경기도 안성공장, 경남 통영공장), GAS 부문(울산 영남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적인 자체 시스템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LNG 보냉재 부문 세계시장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폴리우레탄 시스템에 더해 초저온 보냉재, 방재 및 냉매 부문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주)동성화인텍은 국내 메이저 조선소를 대상으로 초저온 보냉재를 납품하는 밸류체인 특성상 전체 수출금액 중 직접수출이 20%, 간접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주요 강대국들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수요 상승으로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억불탑

주식회사 심원테크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2.9억불

(주)엠에스오토텍의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심원테크는 해외 주요 자동차 회사의 1차 벤더로, 핫스탬핑 등 첨단기술이 반영된 경량화 자동차 부품, 고품질 금형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선루프를 국산화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으며, 지속적인 R&D 사업으로 차량 선루프용 슬라이드 장치, 차량용 디플렉터 장치, 선루프 조립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주식회사 심원테크의 수출 실적은 지난 3년간 연간 38%씩 꾸준히 성장해 올해는 총 수출액 2억9000만여불을 달성했다. 56회 무역의 날에 1억불탑을 수상한지 불과 2년 만에 2억불탑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올해 수출의 90%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된 차체파트 기타류(HS CODE 8708.29)가 차지한다. 주식회사 심원테크는 2007년 인도 첸나이 현지 공장 생산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인도 2공장을 통해 다임러 및 닛산 등에 부품을 공급, 2012년 9월에는 브라질에서도 양산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다.

2억불탑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 수출품목 : IT소재
- 수출실적 : 2.4억불

주식회사 이녹스로부터 IT소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분할된 신설법인이다.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의 기술 연구소는 고분자 설계, 고분자 합성 등의 핵심 기술과 고순도 정제기술, 무결점 코팅 기술, 결점 검사기술 등과 같은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점·접착 테이프, 코팅 필름, 코팅용 Varnish 및 Paste 등 핵심 솔루션 제품을 개발해 제공한다. 현재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박닌에 IT소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고객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44%), 대만(26%), 베트남(10%) 등이 있으며, 주



요 수출품목은 OLED TV용 Encapsulation 소재, 스마트폰용 첨단소재인 디지털러 소재, FPCB용 소재 및 기타 등으로 신제품이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OLED TV용 핵심소재의 경우 올해 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에서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포함 오직 두 회사만 만들 수 있는 대체 불가능 제품이다.

2억불탑

콜마비앤에이치(주)

- 수출품목 : 건강식품
- 수출실적 : 2.1억불

콜마비앤에이치(주)는 한국콜마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민관 최초 합작회사로, 천연물 기반 신소재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제조한다.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시장 분석, 제품 기획 및 개발, 완제품 생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제조자개발 생산(ODM)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21개국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수출 중이다. 수출액도 2011년 100만불, 2013년 500만불, 2015년 1000만



불, 2016년 2000만불, 2017년 3000만불, 2018년 5000만불, 2020년 1억불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도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와 2021년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등으로의 신규 진출을 통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2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2억불탑

한미반도체주식회사

- 수출품목 : 반도체 장비
- 수출실적 : 2.2억불

한미반도체는 1980년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독자기술 확보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를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장비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EMI 쉴드 장비가 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과 적재까지 일괄 처리하는 제조용 필수장비로 경쟁사 대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또, 반도체 차폐 공정(Electronic Magnetic Interference)을 수행하는 장비인 EMI 쉴드는 5G, IoT,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자율 주행 등 4차 산



업혁명을 맞아 새롭게 요구되는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장비인 만큼 전망이 밝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해외고객사로는 ASE, AmKor, Infineon, ST Micro, SPIL, PTI, Skyworks, JCET, Huatian Technology, Nantong Fujitsu, SK하이닉스(충청), 베이징 엔동(BYD) 등이 있다.

‘수출의 탑’ 영광의 얼굴들

1억불탑

주식회사 메디트

- 수출품목 : 의료기기
- 수출실적 : 1억불

주식회사 메디트의 주력상품은 치과용 구강스캐너 IOS(Intra Oral Scanner)다. 매출액 구강스캐너 출시 전인 2017년에는 17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 Intra Oral Scanner가 출시되면서 2018년 329억, 2019년 720억, 2020년 832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액 또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메디트의 매출은 해외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 500만불, 2017년 1000만불, 2019년 30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그 외 국가의 경우 현지 직원 영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현재 메디트 구강 스캐너는 70여 개국의 딜



러를 통해 110여 개국의 치과 의사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주 28%, 유럽 및 CIS 38%를 차지하며 선진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본사에는 세계 각국의 해외 인력이 근무 중이다. 기술혁신을 위해 매출액의 9~10%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테이블탑 치과용 스캐너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1억불탑

주식회사 비트망고

- 수출품목 : 모바일 게임
- 수출실적 : 1.3억불

2011년 설립된 비트망고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다. 글로벌 1억7000만 이상의 유저가 다운로드한 Roll the Ball을 비롯해 북미 국가에서 퍼즐게임 상위 랭크 중인 Block! Hexa Puzzle 등 50여 종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다.

비트망고는 매출의 99%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2020년에는 기존 매출의 79%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비트망고의 매출액은 2018년 900억, 2019년 1050억, 2020년 1600억으로, 매해 최고 매출을 갱신하며 성장 중이다. 2020년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퍼즐장르) 기준, 한국 게임 Top5의 게임이 모두 비트망고의 게임이었으며, 미국 내 글로벌 퍼



블리셔(퍼즐장르, 다운로드 기준) 중에는 7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퍼즐게임 장르에서는 경쟁한 외국기업 사이에서 TOP10에 기록된 유일한 대한민국 퍼블리셔인 셈이다. 비즈니스 변동이 심한 상황 속에서 비트망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성향을 분석해 이벤트를 설계하는 등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1억불탑

주식회사 광메탈

- 수출품목 : 구리, 구리인고트
- 수출실적 : 1.1억불

주식회사 광메탈은 금속성분이 함유된 폐수오니를 재활용해 유가성이 높은 구리, 금, 은, 팔라듐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2009년 창업 후 3년여 동안 용해로 제작기술, 재료배합기술, 용해기술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2012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생산량의 99%를 L/C 및 T/T 방식으로 중국으로 직수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광메탈이 생산하는 구리인고트의 구리함량은 95~97%이며, 금, 은, 팔라듐 등이 함유되어 부가가치가 높다. 2013년부터 중국의 관련 산업지역인 절강성, 강소성, 강서성 등의 업체들에 대한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 2014년 195만 달러의 자본투자를 유지했다. 2019년 3월부터 양산



을 시작해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제구리가격 상승으로 월 1000만 달러 이상을 직수출했다. 더불어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되던 금속폐기물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조시설, 용해시설 및 용해기술을 사용해 인고트 형태로 제품화하고 중국으로 전량 직수출함으로써 국내 환경보전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1억불탑

(주)래피젠

- 수출품목 : 체외진단의료기기
- 수출실적 : 1억불

주식회사 래피젠은 20년 업력의 래피드 키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라리아 진단키트, 코로나19 Ag, 코로나19 IgG/IgM 외 100여가지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나노골드 입자를 이용한 래피드 진단키트 전문 제조회사로 최근 수년간 연구개발한 끝에 블랙골드나노입자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래피드 진단키트에 블랙골드나노입자를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로 실시한 실험과 동등한 결과를 도출, 실험실과 고가의 장비 없이도 10~30분 안에 최고의 결과를 시연할 수 있게 했다.

래피젠은 2002년 창업 이후 2004년 첫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2019년 234만8000달러 대비 2020년에는 8383



만7000달러로 약 30배의 직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2021년 수출 목표액은 1억 달러다. 주요 수출품은 코로나19 Ag 신속진단키트(70%), 코로나19 IgG/IgM 항체진단키트(10%), 말라리아 Ag Pf(pLDH) 진단키트(10%), 기타 제품(10%)으로 향후 신제품인 코로나19 Ag 자가검사키트의 수출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억불탑

주식회사 뷰웍스

- 수출품목 : X선 및 방사선 기기
- 수출실적 : 1.1억불

주식회사 뷰웍스는 의료 및 산업용 영상 솔루션(Imaging Solution) 전문 기업으로, 1999년 설립됐다.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Digital X-ray Detector)와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바이오진단기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AED(Automatic Exposure Detection)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하이브리드 TDI(Time Delayed Integration) 센서를 개발하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2억6000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2021년에는 16:9 비율의 1억5200만 화소 대면적 초고속 카메라를 출시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으로 글로벌 시장에



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뷰웍스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약 3896억 원 중, 수출액은 약 2798억 원으로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2020년 수출 실적은 1174억으로 2019년 855억 대비 37% 성장했다. 해외거래처도 2018년 대비 39% 늘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총 6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1억불탑

(주)서플러스글로벌

- 수출품목 : 반도체 제조 장비
- 수출실적 : 1억불

반도체 고고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서플러스글로벌은 지난 21년간 4000여 기업들과 4만대 이상의 중고반도체 장비를 거래해왔다. 2000년 3월 설립 이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용인 반도체장비클러스터 본사를 거점으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반도체 전공정부처 후공정 장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며 단순한 장비 판매에서 벗어나 Power on Demonstration, Reconfiguration, Refurbishment, Remarketing, Global Sourcing, Logistic 등 다양한 고객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전체 매출의 60~70%는 수출과 삼국



간 거래로,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장비클러스터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동안 전세계 판매·구매 네트워크와 세계 최대의 중고장비 거래 경험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반도체 중고장비를 적기에 공급해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 기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 탑’ 영광의 얼굴들

1억불탑

주식회사 팔도

- 수출품목 : 식품
- 수출실적 : 1억불

주요 사업 항목은 라면과 음료 제조이고, 대표 상품은 비빔면, 왕뚜껍, 비락식혜, 뽕로로 음료가 있다.

2020년 기준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28% 성장한 약 9700만불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음료 매출이 20% 이상 성장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을 중심으로 라면 매출이 20%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50개국 104개 바이어와 거래하며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제 인증으로는 HACCP, ISO, FSSC22000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무슬림 국가의 판매 확대를 위해 협력 업체 공장의 할랄 지원을 시행했고, 그 결과 조미김과 뽕로로 음료에서 인도네



시아 MUI 할랄을 취득해 시장 진출의 밑바탕을 쌓았다.

레토르트 기술, 전자레인지 조리기술, 제품 안정화 기술을 강화해 비빔면이나 짜장류의 매출이 늘었으며,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용기 면제품으로 인해 미국, 호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주류 판매 채널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

1억불탑

국제종합기계(주)

- 수출품목 : 농업용 기계
- 수출실적 : 1.4억불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근대 농업의 시작과 함께해오며, 1987년 미국 존디어사와의 최초 기술제휴로 해외 농기계 시장과 동반 성장했다.

2001년 미국 커민스사에 디젤엔진을 독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고, 2003년 미국 브랜슨 법인을 설립해 꾸준한 판매와 서비스를 이어갔다.

그 결과 북미 농기계 딜러 협회(EDA)에서 실시하는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2017년부터 4년간 골드 레벨(Gold Level)을 수상했으며, 2020~2021년 EDA 딜러 초이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수상했다. 수출 지역별 비중은 북미 72%, 유럽 20%, 아



태 1%, 엔진 7%로 북미 시장이 메인이지만, 독일을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의 EC 규정에 맞춘 친환경 엔진 생산 및 인증 대응을 통해 수출의 폭도 넓히고 있다. 그밖에도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억불탑

더블유씨피 주식회사

- 수출품목 : 이차전지 분리막
- 수출실적 : 1.6억불

리튬 계열 이차전지용 분리막의 수요 증가에 맞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의 시작으로 348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유럽, 기타지역까지 수출이 확대되어 2020년 11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321% 성장한 수치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직수출이 발생했고, 당해년도 상반기까지 직수출 1억5000만불을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며 전체 수출의 31%가 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수출은 유럽과 그 외 지역으로 하고 있다.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분리막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분리막 제조와 관련된 특허는 국내 38건, 해외 2건을 가지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분리막의 시장 수요가 2020년 40억㎡에서 2025년에는 158억㎡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에서 이차전지의 안정성과 전력량을 높이는 제조기술 개발의 정부 과제 참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1억불탑

바디텍메드(주)

- 수출품목 : 체외진단제품
- 수출실적 : 1.2억불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 당뇨 질환, 갑상선 및 임신 질환 등과 같은 호르몬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질환 등 영역을 포괄하는 면역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기기 등 체외 진단제품의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현장진단검사 시장은 과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 시장 수요 대부분이 편중돼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의료시장을 보유한 지역의 경우, 대형 자동화 장비와의 기술 경쟁이 어렵고 대형장비의 높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



운 점 때문에 소형화와 빠른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따라서 대형장비에 버금가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나타내는 현장 진단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자사 브랜드인 ichroma™ 을 이용해 10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브랜드 강화를 위해 매년 주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1억불탑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 수출품목 : 방송 프로그램
- 수출실적 : 1.3억불

글로벌 프리미엄 IP 180여 편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스튜디오로, 2016년 CJ ENM의 드라마 사업본부에서 분리돼 나왔다. 230명 이상의 핵심 크리에이터와 함께 연간 30여 편의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Worldwide TOP10에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청춘기록>, <스타트업>, <경이로운 소문>이 랭크된 바 있으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뉴욕타임스가 2020년 12월 발표한 인터넷서널 TV쇼 탑텐에 선정됐고 전 세계 43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10위 안에 올랐다.



빈센조는 넷플릭스 글로벌 인기 순위 4위까지 올랐으며, 전 세계 55개국에서 인기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연간 전체 매출은 5257억 원으로, 총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을 43%로 끌어올려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K-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단가가 상승하고 협상력도 높아지고 있다.

1억불탑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 수출품목 : 극판
- 수출실적 : 1억불

휴대용 IT기기 및 전자동차용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차전지 제조설비 중에서도 핵심공정에 해당하는 극판(electrode)을 제작하는 설비를 다루는 업체다.

삼성SDI, LG화학, SKI 등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전자제조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고정밀급 제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2011년도에는 유럽, 일본 등 신시장을 개척한 결과, 수출실적이 2011년도에는 700만불, 2012년도에는 1800만불, 2016년도에는 중국시장 개척을 통하여 2900만불 이상을 달성했다.



2017년도부터는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많은 수주량을 확보해 5000만불 이상의 수출을 이뤄냈고, 2020년도에는 90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21년도에는 1억불의 수출을 이뤄내는 등 적극적인 영업과 해외업체로의 많은 수주량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훈장’ 영광의 얼굴들

금탑산업훈장

이영택 | 현대자동차(주) 본부장

- 수출품목 : 자동차
- 수출실적 : 220억불

자동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주도해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핵심 시장진출과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코로나 관련 CSR 프로그램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한 바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됐다.

지난 25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터키, 브라질,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시장들을 오가며 신제품 출시와 개발은



물론, 각국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대차가 글로벌 일류 회사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했다.

최근에는 아태권역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일본계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사치세율 법안을 글로벌 표준인 전기차 중심의 세제로 개정시키는 등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금탑산업훈장

김기욱 | 주식회사 제놀루션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핵산 추출 장비
- 수출실적 : 8천만불

수입에 의존하던 핵산 추출 장비를 국산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코로나 진단키트를 출시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K-방역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기존에 수입하던 핵산 추출 장비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확보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산 추출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지속해서 신제품을 개발·출시해왔다.

기존에는 최대 3시간이 소요되던 질병 바이러스의 DNA/RNA의 핵산 추출시간을 15분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현장 응급 검사를 위한 전자동 이동식 핵산추출기를 출시하고 코로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방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그밖에도 해외 대리점을 통한 영업활동, 웹사이트를 통한 주문계약 체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해오면서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 50개국 시장에 수출을 진행하는 중이다.

은탑산업훈장

후세인 알 카타니 | 에스오일(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석유화학 제품
- 수출실적 : 95억불

국내 정유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복합시설(RUC/ODC)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안정화하고 저가의 잔사유에서 휘발유, 프로필렌 등 고부가 제품의 생산능력을 크게 높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와의 비즈니스 협력으로 2021년 상반기에 아람코 자회사와 35억불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국가 수출증진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에스오일 석유화학 준공기



념식에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와 에스오일 간 7조 원 규모의 2단계 석유 화학복합

시설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23억불 상당의 에너지 및 산업 부문 MOU 및 계약 체결에 공헌함으로써 한-사우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조력했다.

은탑산업훈장

오용석 | 코오롱하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출품목 : Staple Fiber 단섬유
- 수출실적 : 4.9천만불

스테이프라이버(Staple Fiber) 단섬유 제품을 30년 이상 생산 및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국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 마스크 관련 제품 생산업체에 제품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감염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신력 있는 ISO9001 인증을 획득해 품질의 표준화 및 시스템화를 정착시켰으며,



유럽시장에서는 섬유 제품품질인증제도 중 1등급인 Baby Class를 획득해 제품의 안정성과 인체의 무해함을 유럽에서 검증받았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식품의약품감독국(FDA)의 기준에 따른 테스트 성적서를 획득하고 유지해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 2450만불, 2020년 약 46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은탑산업훈장

차정학 | 휴마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체외진단 의료기기
- 수출실적 : 3.6천만불

각종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개별 국가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해 유럽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공헌했다.

면역화학검사분야의 100여 개의 제품을 개발·생산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심혈관 질환 진단 시약 제품군을 개발했다. 1세대 말라리아 진단 제품은 WHO 성능평가에서 최상위 제품군으로 평가받아 국제 입찰 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 54개국에 89개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고객 데이터베이스, 유통망, 의료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

으로 2019년에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시장을 개척했다.

2020년에는 브라질, 체코, 헝가리 등의 국가에 수출해 회사 매출이 2019년 매출액 55억 원에서 2020년 매출액 360억으로 증가했다.

동탑산업훈장

김철호 | (주)티에스이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반도체 검사장비
- 수출실적 : 1억불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 및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수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매년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한 공이 인정돼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됐다.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검사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MEMS 기술발전에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검사장치의 핵심부품을 개발해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G 자율



주행, 인공지능과 같은 초고속 반도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최적의 제품(엘튼)을 개발해, 국내기업 및 해외 반도체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03억90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했다.

그동안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버티컬 프로브카트의 핵심부품을 개발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진보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동탑산업훈장

최기석 | (주)스마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수출품목 : 고주파 실링기
- 수출실적 : 7백만불

고주파 실링기(Easy Sealer)를 고객의 요구와 시장 상황에 맞게 연구·개발해 해외에 수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 위한 기계를 개발하고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 성과로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됐다.

이러하면 '고주파 유도 가열'을 적용한 기계를 개발·상용화해 별도의 예열과정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열로 밀봉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력소비 감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고객 요구와 시장 상황에 맞는 실



링기를 개발해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 전세계로 수출해 2019년 약 29억 원, 2020년 약 7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단시약트브 실링기를 신속히 개발·제작하고 공급함으로써 국내 진단시약·키트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국내 제약 업체의 수출액 증대에 이바지했다.

동탑산업훈장

전성일 | 희성축매 주식회사 상무

- 수출품목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 수출실적 : 12억불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국제 규격에 맞는 자동차 촉매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양산함으로써 무역수지 증대에 기여해왔다.

우선 ISO9001(품질/환경 경영관리시스템), IATF16949(차량용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하는 데 이바지했다.

생산능력 향상과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 F/proof 시스템과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관리를 시행하면서 모든 고객사에 대해 클레임 제로를 달성했다. 자동차 촉매생산 신규설비 국산화를 통해 설비 생산능력치를 증대

하고, 원가를 절감하며, 설비 제작능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조력했다. 설비별 이상 발생 시 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불량 없는 생산에 기여했으며,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생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수출을 올리다

대한민국 수출의 고공행진,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합니다.



수출의 탑 · 훈장 · 포장 · 표창 수상자

수출의 탑 수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1100억불탑	
삼성전자(주)	김기남
10억불탑	
(주)호텔롯데대면세점	이 갑
주식회사씨젠	천종윤
(주)파트론	김종구
제이셋스테츠허브코리아(유)	김원규
희성축매주식회사	최창학
8억불탑	
주식회사에코프로비엠	권우석, 김병훈
(주)크라프트	김창한
7억불탑	
덕양산업(주)	윤성희, 이종숙
희성피엠텍(주)	이하동
6억불탑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윤용현
대한조선주식회사	정대성
한국알프스(주)	강동완
5억불탑	
주식회사한국애보트진단	정재호
4억불탑	
에스케이넥실리스주식회사	김영태
해성디에스주식회사	조병학
3억불탑	
(주)대동	김준식
(주)에스에프에이	김영민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고한승
삼양식품(주)	진종기
애타미주식회사	박한길
주식회사티에이치엔	이광연, 채승훈
한국경남태양유전(주)	안도 코이치
2억불탑	
(주)네패스	이병구
(주)동성화인텍	류완수
주식회사서진캠	이용철
주식회사심원테크	이강섭
주식회사에코프로지이엠	김수연
주식회사이녹스첨단소재	장경호, 김필영
주식회사이수엑스캠	원준연
(주)제트에프스스코리아	경경환
지멘스헬시니어스주식회사	이명균
콜마비엔에이치(주)	정화영, 윤여원
한미반도체주식회사	곽동신
1억불탑	
주식회사메디트	고규범
주식회사비트망고	이기섭
주식회사광메탈	이강준
(주)글로벌스탠드테크놀로지	김덕준
(주)래피엔	박재구
(주)바이오노트	조병기
(주)바이오니아	박한오
주식회사뷰웍스	김후식
(주)서플러스글로벌	김정웅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장인아
주식회사신스틸	신승곤
(주)아이씨디	이승호
(주)알테크노메탈	임상봉
주식회사에이치엔이루자	송원
(주)인팩	최오길
주식회사테스	주송일
(주)티씨케이	김영희
(주)티에스이	김철호, 오창수
주식회사팔도	고정완
국제중합기계(주)	진영균
더블유씨피주식회사	최원근
디씨엠주식회사	정연택
리노공업(주)	이채윤
바디테크메드(주)	최의열
스튜디오드래곤주식회사	강철구, 김영규
신양금속공업(주)	하상범
씨아이에스주식회사	김수하
아주스틸주식회사	이학연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	박상준
캘라엔터치주식회사	조희선
캠코주식회사	최재임, 성성
코리아피피지(주)	김기준
태광후지킨주식회사	김영호
하이트진로(주)	김인규
희창물산(주)	권중천
(주)위닉스	윤철민
7천만불탑	
(주)신라공업	최병선
(주)신촌뷰티	오 광

업체명	대표자명
7천만불탑	
(주)이노시엠	이상태
주식회사정우비나	오병철
주식회사제놀루션	김기욱
(주)제이캠코리아	나인기
(주)코스알렉스	전상훈
주식회사피에스엠	배영한
도부마스주식회사	김충범
동아전자(주)	안병수
에이치라인해운	서명득
유니셀(주)	김형균
주식회사신아이티앤씨	최춘구
한전원자력연료(주)	최익수
5천만불탑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장재영
(주)클래시스	정성재
주식회사엑스플렉스	박동원
주식회사메이시인터내셔널	김경열
주식회사삼기이브이	김지환
(주)성일에스아이엠	우창수
(주)시그넷이브이	황호철
(주)씨아이닉솔루션	이 현
(주)씨믹스	유완식
주식회사엔에이치인터내셔널	김호석
(주)조이시티	조성원
주식회사지수어퍼럴	채은석
(주)케이디에이	장영탁
(주)한메가	강주승
(주)휴아양산공장	정성원
(주)휴아기연	강신영
111퍼센트주식회사	김강안
고모텍(주)	윤일진
대지정공(주)	조효상
로알캐논코리아유한회사	카이사이동
리코스톤주식회사	김학수
삼신정밀(주)	최동창
용산화학(주)	김기준
(주)웹젠	김태영
주식회사광천김	김재유
하나머티리얼즈(주)	오경석
한국소화화학품주식회사	에모리미츠요시
한진철관(주)	이형석
3천만불탑	
주식회사피엔엠에프케이	이상철
ABB파워그리드코리아	최석환
주식회사고려이노테크	허영식
(주)금강퀴츠	김창길
(주)나노엔텍	정찬일
주식회사나라테크	박노현
주식회사나인테크	박근노
(주)더마팩	한윤재
(주)디와이티	김연수
주식회사단소	단소에두와르드
(주)멜콤인터네셔널	주경목
(주)맥아이씨에스	김중철
(주)베스텍	이복선
(주)베이글코드	윤일환
(주)성창베네피나	이상옥
(주)슈퍼박스	조형우
주식회사스텍	이창석
주식회사씨엔씨오	김은란
주식회사아시아비엔씨	황중서
(주)아이패밀리에스씨	김성현
주식회사알맥	박수현
주식회사에스에프이	손호원
주식회사에스피씨삼립	황중현
(주)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주)에프앤코	김창수
(주)엔케이에테르	위호선
(주)원천산업	이진용
이노렉스테크놀로지	채희철
(주)이노플렉스	이철규
잉글우드랩코리아	지재성
주식회사지2터치	표주찬
(주)지니뮤직	조훈
(주)지앤비엔지니어링	박상준
주식회사지투지인터내셔널	김성겸
(주)창원벤딩	이익재
주식회사케이에스	신지현
주식회사케이티이	최형석
(주)코리아노스	정기용
(주)코리아지티	이하용
(주)크로버	문영무
주식회사클레버	정중홍
주식회사프랙	이좌진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	진병수

업체명	대표자명
3천만불탑	
넥스콘테크놀로지주식회사	윤준열
보그워너오창유한책임회사	최재훈
(주)비엔	김태광
샘표식품주식회사	박진선
씨제이올리브영주식회사	구창근
에스카테크(주)	안성규
에이치에이엠주식회사	무선파
에코캠주식회사	최영천
엔프라니주식회사	김태훈
연성정밀화학(주)	오창영
오비오주식회사	이은찬
이데미프전자재료한국	토쿠미프 코지
이튼인더스트리유한회사	김도환
조광페인트(주)	양성아
주식회사디티에스	김성용
백터네이트코리아	염태선
와이에스생명과학	함원훈
코오롱화이버주식회사	오용석
티이엠씨(주)	유원양
한국진공(주)	이인우
휴마시스주식회사	차정학
휴젤(주)	손지훈
2천만불탑	
(주)ROLL PACK	김금자
(주)L.C.C(엘시시)	백성천
(주)RN2테크놀로지	이효중
(주)고운세상코스메틱	안건영
(주)나인벨	최문수
(주)네스필러PKG	심윤석
(주)넥스틴	박태훈
주식회사디비코퍼레이션	김성준
(주)리버	김명환
주식회사리팩	이일해
주식회사링커스글로벌	이정민
주식회사미래그린케미칼	조희성
주식회사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주식회사바람인터내셔널	박래현
(주)보보코퍼레이션	조금환
주식회사복스트라	홍석민
주식회사상진테크	김성용
주식회사세나트레이딩	진교형
주식회사셀코스	백우성
주식회사아이다인터내셔널	양태규
주식회사알로이스	권충식
(주)알테오젠	박순재
주식회사에드엑스	강윤빈
주식회사어큐진	권순재
(주)에스엘페이퍼팩	김현국
(주)에이치엘옵티스	송효민
(주)에이치제이	윤세원
(주)에코화인	김민식
주식회사엔티엠	민병수
(주)엠씨에스로직	남상윤
(주)우신금속	김정길
(주)원진	박성진
주식회사유니언스	김철환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윤경원
(주)젠마코리아	이우중
(주)지아이엠시스템	김장순
(주)카운텍	이부한
주식회사케이에이치메디칼	홍민형
(주)케이피텍	백우순
(주)터보맥스	아마모토신고
(주)파라리서치	강기석
(주)플라박스	손현석
주식회사플레이독소프트	최명진
(주)한남하이텍	최민목
(주)한영닉스	한영수
(주)한일정밀	이지홍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갑산개발(주)	김영석
고성무역	박태성
농심엔지니어링(주)	김기호
대아홀딩스주식회사	강용기
동진정공(주)	이수중, 이호길
디씨피(주)	송준호
롯데렌탈(주)	김현수
삼우생명과학주식회사	김형준
서우테크놀로지(주)	박상규
(주)성일이노텍	임민자
스마트전자(주)	강신욱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주식회사	최재현

업체명	대표자명
2천만불탑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	정장영
에이치비코퍼레이션	이시호
에맛상사(주)	장은애
오리온에너지(주)	윤희근
위시컴퍼니(주)	박성호
이씨아이주식회사	LI QIANGSHAN
제너셀주식회사	한복우
제니스주식회사	주영근
주광정밀(주)	윤재호
주식회사레이크머티리얼즈	김진동
주식회사마이블	최기호
주식회사미코세라믹스	여문원
주식회사티제이인터내셔널	장태호
주식회사에스피엘	허상오
지에스주식회사	강중학
태연산업주식회사	윤중국
태창산업(주)	박정연
토와한국주식회사	한상윤
티엔엘	최윤소
1천만불탑	
주식회사강동그룹	유동관
(주)디에이치엠 코스메틱	윤동한
(주)리템엘앤씨	조석현
주식회사블루웨이인터내셔널	정의석
주식회사쉬엔비	강선영
주식회사스캔코	박정수
주식회사스타비전	김병희
주식회사씨네티스	김영우
(주)솔팍코퍼레이션	이만우
주식회사에이직랜드	이종민
주식회사에이치엔드림	우인숙
주식회사에이코닉	김규식
주식회사오다메드	김정구
(주)이랜시스	심재귀
주식회사케이제이에이치엔비	지영중
주식회사크리에이츠	석재호
주식회사태림	백명란
주식회사한국파워셀러	조언빈
주식회사힐코	오성철
(주)SNOGEN	홍성길
(주)건일상사	박건우
주식회사고그린라이프	김태진
(주)그랑에스피오	김수연
주식회사그리노머	박승혁
주식회사다산씨엔텍	김봉준
(주)대구정밀	허준행
(주)대성글로벌	윤현철
(주)대진텍스	최임곤
주식회사대하	김진운
주식회사대흥정밀	전재환
(주)더물론코리아	박충권
(주)동북	류근황
주식회사동원파츠	조덕형
주식회사라엘코리아	김지영
(주)러쉬엔터프라이즈테크	신동휘
주식회사리메드	고은현
(주)마미엘	안상준
주식회사마이크로프랜드	조병호
(주)멀티텍	정재영
주식회사명인화학	김명현
주식회사무진캠	남정호
주식회사무학	최재호
주식회사미래산업	서병재
(주)밀알오토캠프	전승주
(주)바이오포트코리아	김성구
주식회사베이스캐리어	박영한
주식회사백셀	박훈진
(주)브이씨	김준오
주식회사비에이치네트웍스	김영관
(주)삼녹	이현국
(주)삼미기계	권영섭
(주)삼진 지.에프	방관혁
(주)삼코	최영철
(주)삼현	황성호
(주)새한마이크로텍	김학준
주식회사서울정광	심문식
(주)성창사	박장용
(주)세기콘트롤	고정우
(주)세우인코퍼레이션	오형준
주식회사셀바이오희면텍	이권선
(주)스마일게이트 알피지	지원길
주식회사시디즈	이상배
(주)시밀레	김상하
(주)신성	신 성
(주)신한양행	장우진

업체명	대표자명
1천만불탑	
주식회사씨엠에스랩	이진수
주식회사씨오티	김종화
(주)아엠비하이드로릭스	정규도
주식회사아이씨캠킹	장용식
주식회사아이씨에이치	김영훈
주식회사아이에스티이	조창현
(주)아이케이테크	이경수
(주)알엠시스	김도영
(주)에스씨엘	이상춘
주식회사에스앤씨코퍼레이션	박형준
주식회사에스엠이코리아	곽선호
주식회사에스제이머티리얼즈	최재호
(주)에스지에스	한석희
(주)에이씨케이	이계정
주식회사에이치에스 테크놀로지	홍석진
주식회사에이플러스알에프	이제열
주식회사엔지온	나정운
(주)엔피화인	노수대
(주)엠에스셀텍	이성희
주식회사엠에이치엘코리아	임철영
(주)와이제이씨	배지수
주식회사우림	전영철
(주)웹코스	김영돈
주식회사원나인	김승구
주식회사유엔아이원	신희준
주식회사유엔아이캠	곽남석
(주)유영제약	유우평
주식회사이노팩코리아	최병수
주식회사이수업시스	김상범, 이석주
(주)이엔에스인터네셔널	김성은
(주)이엔에스코리아	박준한
(주)이오나노캠	김인기
(주)이코니	양병재
(주)익스플론	천정욱
(주)일산	하지현
주식회사제이비이코리아	남궁장
(주)제이엔에스글로벌	송미령
주식회사제이에스씨	박용준
(주)제이엔텍	이욱진
(주)제이피프로페셔널	전재윤
(주)제테마	김재영
(주)지오코리아	김인택
(주)지한아이씨	김유신
(주)진영LDM	심영수
(주)케이디파인캠	박재윤
(주)케이티지	장진호
주식회사코리나무역	전학철
주식회사탑인터뷰브	권오준
주식회사탑트라	이종업
주식회사태멘테크	임 욱
주식회사트윈텍스	조형래
(주)티에스틸	박종희
주식회사파인인터네셔널	이서령
(주)포코엔지니어링	김귀동
(주)피티케이	안흥우
(주)하이테크	이길태
(주)한국실리콘엔리소스	지영숙
주식회사한국위그화이버	한현정
주식회사헤이스	장림평
(주)휴버덕	신재호
(주)히인	김희기
남방씨.엔.에이(주)	김종혁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오재준
대경이앤씨(주)	이기선
대명산업(주)	이상락
디와이엘라센(주)	이종석
린노알미늄주식회사	이세영
마이크로웍스코리아주식회사	안 철
매일식품주식회사	오상호
미래솔루션주식회사	윤승환
바이오플러스주식회사	정현규
바이옴트로주식회사	김완수
비이케이코퍼레이션주식회사	김연호

업체명	대표자명
1천만불탑	
서린컴퍼니(주)	이영학
(주)스마트공작기계코리아	김종철
스티물주식회사	김스타니슬라브
스티물글로벌주식회사	김스타니슬라브
씨피컴주식회사	김승호
아메스산업(주)	이창배
아산제약(주)	염정규
아이비코리아유한회사	제임스반티엠
아이씨케이칼	윤강훈
아이앤비코리아	김명숙
에스에스밸브주식회사	정정숙
에스엔패션그룹주식회사	구길리
에스엠틸주식회사	김기호
NR지엔씨	진정복
엔케이수산(주)	이봉희
엘코엔지니어링주식회사	송국근
영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상은
오시오코리아주식회사	오시오 나오야
이노레스주식회사	백종평
이든테크주식회사	안영기
이원다이에그노믹스(주)	신상철
주식회사사이티엠	유차영
인동코퍼레이션코리아(유)	그레고리피에번스
인트라통신(주)	배용수
제이와이오토타주식회사	진준우
제이와이커스텀(주)	박만금
주식회사동우에스엔케이	김성현
주식회사보백스엔에스	서동조
주식회사비아이티	정병권
주식회사슈퍼진	나영채
(주)재영	심택수
주식회사정우	윤철원
주식회사제이디티씨	이종호
주식회사진시스템	서유진
주식회사포컴퍼니	이영민
주식회사대원코프	윤종원
지에스에코메탈주식회사	최병민
청호나이스(주)	오정원
케이베스트인터내셔널(주)	김송배
코렉스오토트레이드	석로만
티세븐코리아주식회사	김도훈
티오케이첨단재료주식회사	무라카미 유이치
파인원주식회사	고재생
팜텍주식회사	김재웅
퍼시픽엑스코리아주식회사	도병록
페스웰주식회사	문영기
한가람트레이드주식회사	정현구
한국구보다주식회사	TOMITA YASUFUMI
한국유타카전자주식회사	박기범
한솔생명과학(주)	신형석
한울생약주식회사	한영돈
한창기업(주)	강승이
한창메디	한경준
해성인터내셔널	박미령
해송식품(어업회사법인)	김현선
해성씨앤씨주식회사	송영빈
7백만불탑	
주식회사기	이 성
주식회사나경	차윤근
주식회사뉴벤코리아	구정수
주식회사스틸미일스톤	박승미
주식회사엠솔루션코리아	김정국
주식회사오피지	최상락
(주)유니온전자통신	김태우
주식회사재이원팜	최재원
주식회사정생물부티	유민석
주식회사핀팻코리아	박형준
주식회사한스파마	김근영
(주)국순당	배상민
(주)금정	장효동
나노인터페이스테크놀로지	이 조셉 제혁
주식회사나노코	이종두
(주)남궁TUNA	김민익
주식회사네오제네시스	김용필
주식회사다정	장경진
(주)대동아이텍	주동근
(주)대림엔지니어	김민웅
(주)덕일성유	양환성
주식회사수민	김재영
주식회사디오테크코리아	김응완
(주)디케이엔지	김대기
(주)디티씨트레이딩	심재진
(주)래트론	이충국
(주)머거본 서울지점	신주식
주식회사모던라인	안현주
(주)베이스	김혜경
주식회사벤인코	김병윤
(주)삼진정밀	정태희
(주)상원기계	권순목

업체명	대표자명
7백만불탑	
(주)새한화장품	채성준
(주)서북통상	임진수
(주)세양물산	천동협
주식회사세움디지털	황대석
(주)세화퍼먼씨	이훈구
(주)셈페르엠	김원주
(주)스마트코퍼레이션	최기석
(주)스몰랩	이정규
주식회사스위코진광	최승현
(주)스킨렉스	최재하
주식회사스타메드	신재훈
주식회사신명유업	채성완
주식회사신성엠엔에스	조장훈
(주)신영포엠	김익한
주식회사씨엔에프	추봉세
주식회사씨엔티드림	안태우
(주)씨와이씨	김영하
(주)아스트루멧	조용범
(주)아이피금속	최승일
(주)에드테크	박기용
주식회사에스알파트너스	김한숙
(주)에스에스엠글로벌	신종철
(주)에스엔아이	한강호
주식회사에스케이에이	김기홍
주식회사에이블유니온	이경주
(주)에이치아이티에스	이선열
(주)에이치엘테크	최원대
주식회사에이피오토모티브	김명중
주식회사엑스코바이오	조병성
(주)엔젤	김정두리
(주)엘루오	박우석
주식회사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주식회사엘아이티	전양일
주식회사엠피에스	이재완
주식회사와우벤처스	유지혜
주식회사와이엠텍	김홍기
(주)위즈바이오솔루션	이현영
(주)유스틸	이치형
주식회사유진셀	허용민
(주)이송이엠씨	송준구
주식회사이스트게임즈	이형백
주식회사이앤씨	신광현
주식회사일레븐전자	박지수
(주)일통금속	이정환
주식회사자트인사이드	양영우
주식회사제닉	박소은
(주)제이이엔지	정원태
(주)지아이텍	이인영
주식회사청광신소재	최정환
(주)카리스테크	김원열
(주)케이디랩	이규철
(주)케이에스씨엔티	유명실, 김석곤
주식회사케이엠씨	차재도
주식회사케이텍글로벌	채경환
주식회사켄트리	박준상
주식회사코스메티나	황치훈
(주)코스모텍	정형오
주식회사코코베네	정용현
주식회사큐어세라퓨틱스	김태호
주식회사태하	한기용
주식회사테크온	김상봉
주식회사티플렉스	김영국
(주)퍼시픽인터캠코퍼레이션	박정의
주식회사포나인	오창영
(주)포텍	남경임
(주)포림파마텍	조희민
(주)퓨어리	이동훈
(주)프라임캠	이형철
주식회사프로이천	임이빈
주식회사피코그램	최석림
(주)피티씨	차경천
주식회사필링크	이민창
주식회사하나티엔씨	주재완
주식회사하스	김용수
(주)한도	김영해
(주)한드림넷	서현원
주식회사한성솔루텍	박병환
(주)한솔아이엠비	조상인
(주)현대의료기	이동학
경부자원주식회사	김정선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	이창훈
넥서스파마주식회사	성승제
동아금속주름관(주)	최희재
동양메탈공업(주)	안성진
디에스엠주식회사	최일성
리드원메디칼	박성호
배룩스주식회사	배진우
상진전선(주)	문학순
(주)삼진정밀	정진현
신성산전(주)	이주역

업체명	대표자명
7백만불탑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썬아이크로텍	김성진
알에이치인터내셔널	최광근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원	김중옥
에스아이씨주식회사	김수병
에이치제이코퍼레이션즈	성현중
에코시계(주)	고영곤
옥시젠디벨로먼트(주)	김진옥
우신상사주식회사	김경수
유니코코리아	김영식
재경전광산업(주)	김학운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서정호, 정석근
주식회사린텍	이형주
주식회사시지트로닉스	심규환
주식회사에스아이씨투브	박상남
주식회사성진기계	최재규
주식회사아네스토	고현규
주연티앤에스주식회사	이광호
케이제이화장품	지영중
코디아산업(주)	김창희
파워텍(주)	고상영
포디라플레이코리아(주)	정홍수
포코스트레이딩	김봉곤
한국시스템(주)	이현주
한성기계주식회사	우영식
5백만불탑	
주식회사구멍	이종수
주식회사대덕코퍼레이션	안군성
(주)대덕피엔씨	박준표
주식회사더베스트초이스	마루포브파출라 본존
주식회사달라이트룸	신재영
주식회사루스	김창성
주식회사리트빅	이인섭
주식회사서버벨	손문경
(주)세이션	구경모
주식회사스틸앤	김지훈
주식회사아이소브	이동철
주식회사에디피션시	박소현
주식회사와이디어	강하늘
(주)제이에이치인프라	송종호
(주)제이엔엠코퍼레이션	송호환
(주)제이플러스아이	최정민
주식회사게머스	정명서
주식회사코렐	조민규
(주)플라썸	류대건
주식회사힐룩스	김도연
주식회사21세기	김성환
(주)KLT	양윤홍
(주)골드라인	이흥기
(주)광신아이에스티	조기해
(주)그린광학	조현일
주식회사글로벌이음	최 준
(주)나스미디어	정기호
주식회사네오팜	김양수
(주)노바렉스	권석형
주식회사누림트레이딩	이상진
(주)뉴로시스	정윤갑
주식회사니텍스제침	이만석
주식회사다원트레이드	이민재
(주)다이나테크	공영준
(주)대경트리플	김욱이
주식회사대동캠텍	이정범
주식회사더말코리아	정연호
(주)덱스코원	유승범
주식회사동서피엔엘	조부래
주식회사동아	이우중
(주)동양에이.케이코리아	서정열
주식회사듀오백	정관영
(주)마루닉스	이경연
(주)마이크로컨텍솔루션	양승은
주식회사메디쿼터스	이두진
주식회사미정테크	이제선
(주)민서코팅플렉스	조혁찬
주식회사박스코	김호성
(주)벨로프	신재영
(주)범우에이텍	이점범
(주)부미	고승범
(주)부영인더텍스	정일환
주식회사브리즈	서기오
(주)브리지	이동욱
주식회사비바웨이브	허재석
주식회사비슬	이재영
(주)삼천리금속	조현익
주식회사서울에프엔비	오덕근
(주)세원씨엔에스	황 찬
(주)세형이엔지	현승호
(주)수양캠텍	박범호
(주)수일개발	염윤희
주식회사스노우라인	최진홍

업체명	대표자명
5백만불탑	
주식회사상창	박승수
주식회사씨스토어	임창현
(주)이폴로산업	이용대
주식회사앤써	송달호
주식회사에버코스	전태영
주식회사에버트리	이재경
주식회사에스디에이	심상범
(주)에스아이테크	김진성
(주)에스티일렉트릭	김병한
(주)에이치디세미테크	임홍우
(주)에이치아이디	이용근
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김우찬
주식회사엔스	유병천
(주)엠앤이	김만호
주식회사엠케이성진	장명월
(주)영동테크	윤찬현
주식회사와이저리퍼블릭	양대석
(주)우신화장품	안태만
(주)운창메카텍	임화용
(주)워터	강홍욱
(주)원케이칼	이정국
(주)윈텍오메이션	송일재
주식회사유니언글로벌	전성진
(주)유니코어텍	이상근
주식회사유니트레이드	김병일
주식회사유어스테크앤마켓팅	권오성
(주)유진이엔티	이두홍
(주)이큐글로벌	김한준
(주)익스팬더스	장성우
(주)인터버드	성낙복
(주)인터코닉스	김광원
주식회사제이에스텍	윤종식
(주)제일원도텍스	임정희
주식회사젠피아	정진오
(주)조양	허민수
주식회사지디엘코리아	고응근
주식회사지씨에스	김창식
(주)지엠피컴	최정원
(주)지오플렉스	최상석
(주)지제이알마늄	유경연
(주)창성에이스산업	이의용
(주)청우식품	박윤구
주식회사체사인터내셔널	정주원
주식회사코루제약	VERNIDUB ROMAN
주식회사큐케이씨	김새한
주식회사크리캠	하상대
(주)퀵컴퍼니	이상훈
(주)타라유통	이재수
(주)태진다이텍	김정만
주식회사태풍그룹	윤종현
(주)템스코	오정석
(주)트랜스온	김용원
주식회사티센	안선호
(주)티에스프레임	김상용
주식회사티엔비트레이딩	강광덕
주식회사프락시스	김윤제
주식회사피에스디이	박동석
(주)핑거	박민수
(주)한국로텍	최성제
주식회사한미중기	박철규
(주)한민	김재찬
(주)함창	함정대
(주)휴인텍	문성식
갯바위식품(주)	이계욱
글로벌라인	이경현
금정산업(주)	서영미
대건비철금속(주)	이상준
대린전자(주)	서인중
대영일렉트릭주식회사	김영태
대천맞춤주식회사	김태복
리브화장품주식회사	서중우
마이더스인터내셔널	임성빈
블루포션게임즈주식회사	신현근
비엠에스엔지니어링	김도형
비카인드 패키징	이창희
상하이생바이오테크놀로지	이정욱
살롬엔지니어링(주)	김봉택
성일하이텍(주)	이강명
신양테크놀로지	김백인
신원정공	유호중
씨피스트 엔지니어링	백정렬
알제이씨홀딩스	엄상용
엠텍	이동호
에스에스테레이딩	임선환
에스카주식회사	진홍근
에이치엔티(주)	정용훈
에이테크	박성덕
NRH STEEL	지태순
엔알텍주식회사	남경훈

업체명	대표자명
5백만불탑	
영신식품	양태용
오성전장주식회사	이종덕
주식회사와이드무역	윤순식
우암신소재(주)	정동관
원릭스	하재현
유림하이테크	장은수
유진디스컴주식회사	이강수
유한회사 다시	박종현
이린통신(주)	김지혜
이코니주식회사	이상철
인터아시아	주성호
조일산업(주)	박순정
(주)힘심	오성경
주식회사나노시스템	이형석
주식회사나코메디칼	김연택
주식회사디오션	박경수
시선바이오메트리얼스	김희경
주식회사에스엠블레	홍기술
(주)우석AT	이충훈
(주)유토시스	백차흠
주식회사파우게임즈	이광재
프레스스농업회사법인	김성훈
주식회사대호그린	박윤호
지덕산업주식회사	정광성
지디케이화장품(주)	김태성
지스틸	서태형
지오이무역	이태희
진광기공주식회사	정 철
카스트레딩	AHMAD AZIZ
케미웨이주식회사	한정수
코코도르(주)	정연재
파워엘기주식회사	이진두
프리스(주)	서진천
한국맥널티(주)	이은정
한국머신툴스(주)	한승배
한산스크류(주)	사카모토히토시
주식회사한솔텍스	이주현
합성메타주식회사	이문영, 김용암
홍삼단주식회사	박준교
3백만불탑	
(유)바다향	금기홍
(주)골드리버	김용대
주식회사광명산업	목형균
(주)렛잇부티	박준성
주식회사리바스트레이딩	도한결
주식회사리호인터내셔널	이형석
(주)마녀공장	김현수
주식회사비에스팜코리아	양광오
주식회사버전월드	장윤석
(주)비트라코	백성훈
주식회사새폰	정만형
주식회사에스앤피	서동희
주식회사에이치제이무역	박해진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원불탑	
주식회사루브캠코리아	이승우
주식회사루스텍	이원호
주식회사리텍엔지니어링	이미애
(주)메디컬랩코리아	이한철
(주)미래인더스	황경희
주식회사바노바기	반재상
(주)바른손	강신범
주식회사벤투스아우토	윤승현
주식회사벤트	이장원
주식회사부일에스티	김복만
(주)브로드	김영은
(주)브이에스아이	김도윤
(주)브이엘코스메틱	이재영
(주)블루코어컴퍼니	김성민
(주)비엠스	주경석
주식회사서광	최재균
주식회사서린메디케어	김병철
(주)서아에프씨	이은미
주식회사서진약세스	황준호
(주)세종기술	고영현
(주)승화일렉트론	이광훈·남기량
주식회사신광화학산업	김필용
(주)신성테크놀로지	한영철
(주)심스인터내셔널	홍석진
주식회사씨니스코파	이선용
주식회사씨엔아이시스템	조경남
(주)씨에이치씨랩	차형철
주식회사씨텍메디칼	문범진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박창일
주식회사아이엠디메탈	이영준
주식회사아이즈	김남진
(주)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	박광배
주식회사아이젠테크프	이규진
주식회사아이진아이에스피	김은조
(주)알에프테크놀로지	박귀영
주식회사알텍	안주현
(주)에스엔티무역	송상욱
(주)에이스바이옴	김명희
(주)에이알	한승일
(주)에이에프티	최대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스	남동진
(주)에이피엠테크놀로지스	박희산
(주)에코브릿지	강은주
주식회사엔브리지	서나함
주식회사엔피에스	배성호
주식회사엔피알브레인	안예리
주식회사영창에코	조재영
주식회사오리엔트	나경훈
(주)오도일렉스	배종윤
주식회사올리브	이현수
주식회사우지인터내셔널	우지현
(주)윙트리	김우택
주식회사월드캐스트	송상섭
주식회사위맥스	이승훈
(주)위온	원지연
주식회사원백고이스트	김남혁
(주)원테크	김봉준
(주)유니코빅션	이상근
(주)유웨이랜드	김진만
(주)이너프	이월자
주식회사이노디스	박해신
주식회사이노소니언	정 목
(주)이지팩	이해욱
주식회사이텍	서해조
(주)전진레일테크	전진수
주식회사제이디컴포넌트	김정일
주식회사제이디엠에스	김동욱
주식회사제이앤코슈	장유호
주식회사제이앤지	김태년
주식회사제이앤글로벌	정동섭
주식회사제이앤피	안상필
(주)제이케이와이	오정환
주식회사중앙디스플레이	이상하
주식회사지비테크코리아	류선용
주식회사지앤드아이	김덕수
(주)지에쓰아이	박상혁
주식회사지티메디칼	박세환
주식회사진성	최종권
(주)진올바이오테크놀로지	김용우
(주)창우전자	이상락
(주)캡스톤	공경선
주식회사케이알씨	이정혁
주식회사코마스	장경언
(주)코셈	최수영
주식회사퀵스인터내셔널	최윤민
주식회사큐로드	길호웅
주식회사크레진	김경웅
주식회사탄탄	최정우
(주)탐텍코리아	모상훈
주식회사태건단조	이진주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원불탑	
(주)트루엔	안재천
주식회사티에프오네트웍스	이준영
(주)파인스킨	박관희
주식회사펠로텍스	황주리
주식회사평안철강	윤태감
(주)프라임테크	김환이
(주)프로통상	안정호
주식회사플라이업	박병규
주식회사플라즈맵	임우봉
주식회사피스코코리아	아마자키키요야스
피엠펙시인터네셔널	표종민
주식회사피제이피테크	박경신
주식회사하나마이	이정엽
주식회사하나플라텍	전천석
(주)한국애플리즈	한임섭
주식회사해피글로벌솔루션	윤해근
(주)헤스피마린	임지환
(주)헌진케미칼	박형서
주식회사협진기계	김중서
주식회사형원엔지니어	유형석
주식회사화란인더스	이승일
건우초경주식회사	이건영
국제플랜트주식회사	이명화
나이스텍(주)	신두국
내일시스템(주)	백영근
녹차원(주)	김재삼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한문철
대명코리아(주)	김지현
대한강업(주)	정해빛
더메탈플러스(주)	장영수
주식회사더파운더즈	이창주
동진C&C	우미광
디앤에이치인터내셔널	홍화식
디에스메탈	박동구
디에프케이바이오랩	고동환
레이저벨주식회사	안건준
레이저앤피직스(주)	한기관
메드윈인터내셔널	이정호
모틴코리아주식회사	이수형
번도르프(유)	박정규
베트올(주)	김정미
비엠스틸(주)	김현창
비케이오션	오정환
비티인터내셔널	홍순욱
삼영화섬주식회사	전현조
삼정이앤알주식회사	정영환
서진정공	김부연
선라이즈무역	에브그래브스카야 타티아나
성문일렉트로닉스(주)	이강일
성신통상	이재명
성진세미텍(주)	양락운
세계화학공업(주)	안창덕
세드나이엔지(주)	김혁배
세연아이넷(주)	정은호
승현기업(주)	고재욱
신진로기계공업(주)	송선욱
CNK	김정식
안스틸	안황준
알파메디칼주식회사	이명호
어업회사법인 열림푸드	신혁호
에스앤씨코퍼레이션	최육남
에이시티게임즈주식회사	이형원
(주)에이저솔루션	고길홍
에이치씨에스테크놀로지	황학영
주식회사에이치지동신상사	오익중
에이프로엔지니어링주식회사	김정출
에코유니온컴퍼니	윤덕창
엔데버	양재혁
엔디씨코리아	토야마에이치
영진폴리캠주식회사	김성진
우석다이아테크	이충훈
월드비엠씨주식회사	조강영
유스킨컴퍼니주식회사	오만영
유테크	이동덕
이엔테크주식회사	홍희세
제이비지컴퍼니주식회사	이상철
주식회사기산화학	김영선
주식회사다모아트레이딩	고귀환
주식회사도호코스	송철호
주식회사동진	김재홍
주식회사브링크	김보중
주식회사선명	염보선
주식회사씨포아이	김종원
주식회사에이블	김성범
주식회사에이피솔루션	윤병길
주식회사우신산업	이창휘
주식회사월드지앤에스	백상협
주식회사유니호니	윤창호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원불탑	
주식회사저스틴비디엔엘	김상욱
(주)천일	최봉규
주식회사청우식품	우재성
주식회사캠솔코리아	김상훈
주식회사티앤비우드	강민정
주식회사화림테크	김옥춘
주식회사성우물산	박태봉
중부오토리사이클주식회사	나영배
주식회사지씨리글로벌시스템	홍정호
친원산업(주)	정진원
창우중공업주식회사	허성욱
카블	임만 무하마드
칸트래딩	MD AL AMIN 외 1명
컨스턴 테크놀로지(주)	신동관
케멜스주식회사	류현정
케이와이씨	조기용
케이피한석유화학주식회사	서범중
캠솔루션(주)	김영록
코리아트(KoreArt)	김성영
클레어주식회사	이우현
태영산업주식회사	강태기
티씨엔지니어링(주)	이상구
티핏클래스주식회사	정내철
프리미어주식회사	박석연
프리스전바이오(주)	김한신
플라텍주식회사	조영재
주식회사플로우텍	공도경
하이네이치(주)	김관현
하이소주식회사	정해욱
한국노블가스(주)	송재섭
한국솔타(주)	김동욱
한국인터내셔널	뤼지아메이
한국정밀공업(주)	박실재
홍일산업(주)	노승용
홍해산업기계	홍성모
1백만원불탑	
유한회사 한포	류홍치
(주)경우시스템	장용준
주식회사광청코리아	박수언
(주)교원	장평순
주식회사국제통신	안길영
주식회사그레이스온	CHENG SHUAISHUAI
(주)금양소재산업	원민지
주식회사네오솔프라이컴퍼니	신용국
(주)녹십자벨빙	김상현
주식회사다원넥스뷰	남기중
주식회사단디글로벌	이명재
주식회사디앤씨웨툰비즈	김은주
주식회사디에스테크놀로지	신우철
주식회사라인자앤씨리빙	최재필
(주)룩스그린	김권호
(주)마르코코리아	아르테넬세르게이
주식회사마일즈인터내셔널	송은선
(주)메피온	남중혁
주식회사모루	장영수
(주)뮤직플랜트	박정원
(주)베케이코리아	김현배
주식회사비에스티에이치앤비	김진영
주식회사비케이파운데이션	김민우
주식회사비티씨세븐	이분순
주식회사성산기업	송인성
주식회사성일에프에이	이희태
(주)세븐티원글로벌	박은주
주식회사세도웍스	조충연
주식회사솔렘	서정교
주식회사스튜디오레논	정명영
(주)신세계푸드	송현석
씨아이씨인터내셔널	홍용교
(주)아네스트코리아	유원식
주식회사아시아푸드컨넥트	김효길
주식회사어반베이스	하진우
에스비케이엔지니어링	고영완
(주)엔앤비랩	황광석
주식회사엘에이프로젝트	이원섭
주식회사오르비타	심종영
주식회사온다포유	이용운
주식회사올릭스글로벌	유창남
주식회사야오스	이재중
주식회사올트라마스	조성환
(주)원스인터내셔널	한상돈
(주)유성쉬핑	강병도
주식회사유한건강생활	강중수
주식회사은인	김영준
주식회사이바이바이오앤인더스트리	김영찬
(주)제달	전덕진
주식회사제이디아아웃도어	정병길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원불탑	
주식회사	이재호
제이에이치베이지홀딩스	이재호
주식회사제일유업	정근상
주식회사지성이앤티	박상선
지앤티글로벌코리아	배운섭
(주)지에스코	조형우
(주)지피엔이	조일훈
(주)케이엠더블유코스메틱스	원경목
주식회사케이이씨씨	김을리
주식회사코리아티앤티	이상준
주식회사코리아마스크	안 현
주식회사크레앙	조성현
주식회사타무즈인터내셔널	김경원
(주)투엔티플러스	이영진
주식회사티엔엠컴퍼니	이주영
티케이101글로벌코리아	홍상욱
주식회사포바이포	윤준호
주식회사푸드나무	김영문
(주)퓨처캠	지대윤
(주)프라이웍스	정운창
(주)하임인터내셔널	장보경
(주)호성에이비오	김선동
(주)홈쇼핑	김옥찬
주식회사히스코리아	임성현
(주)고송이엔지	이홍재
주식회사광진에프앤피	홍기영
(주)권풍	송병준
(주)글로벌와이제이	정문호
(주)금성스틸	변재환
(주)길코퍼레이션	김성훈
주식회사나노에코웨이	노태훈
(주)나노헬릭스	고민수
농업회사법인솔라늄네트웍스	박형준
(주)뉴필	황지수
주식회사다빈치프로덕츠	이지훈
(주)다우빔	김정환
(주)대양산업	홍사의
주식회사대우무역	서용인
주식회사대원산업	서준석
(주)더스킨스	백승태
주식회사더퓨어컴퍼니	김소연
주식회사동신폴리캠	장현봉
주식회사동양케미칼	주윤일
(주)동양프라텔	류관희
주식회사동일공사	조성민
주식회사동행에스앤티	김동수
(주)두코	민병선
주식회사드림코스	윤정옥
(주)디스트릭트홀딩스	이성호
주식회사디씨티	김광성
주식회사디앤코코리아	임은희
(주)디에스씨상사	신동삼
주식회사디앤케이퍼머	남규우
주식회사레이디안	이상은
주식회사레드원컴퍼니	엄태국
(주)리본무역	이준희
(주)리브스메드	이정주
주식회사리레이블	이성훈
(주)리인터내셔널	이현주
주식회사리얼	박성민
(주)마오테크놀로지	모경택
(주)마이크로인피니티	정학영
주식회사메디코스	원철학
주식회사메디코스어스	윤귀영
메타플라 아로마	권오역
주식회사모비딕	김병훈
(주)뮤텍코리아	임상규
주식회사미래기연	선우중현
(주)미래테크원	강창근
주식회사미스바	최현복
주식회사바스무역	김재천
주식회사바이오캠코리아	이근우
주식회사바이캠	안상기
주식회사백찬	백진기
주식회사벤트윈	이윤희
(주)보투슈퍼푸드	김준범
주식회사보트레코스메틱	안성민
(주)보성스틸	김 신
주식회사본월드	최복이
(주)본코스메틱	신인호
(주)분테크	이진로
주식회사부성	함영민
(주)부원식품	최홍순
주식회사브러쉬뱅크	박승주
주식회사브이이에스	최영표
주식회사브이텍스	박나래
주식회사비나팜	최종태
(주)비벌런스	정만성
주식회사비씨이노텍	정원근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원불탑	
(주)비에스테크	윤석봉
주식회사비엔이코리아	백규현
주식회사비제이로지스틱스	최세현
주식회사비케이코프	최봉근
(주)쁘띠엘린	표순규
(주)산소코리아	서형진
(주)삼광식품	장진수
(주)삼부포리마	권수진
(주)삼성텍	임용택
(주)삼영코퍼레이션	이성구
(주)삼태플론테크	장동삼
주식회사샐터보	조계현·최상호
(주)서광정공	조인제
서연종합모터사이클	남승권
주식회사성실	정태두
주식회사성현상사	김진호
주식회사성화	김영권
(주)세우철강	최우성
주식회사세현글로벌	장순욱
주식회사세현주리산업	이영정
(주)셀트라존	김은성
주식회사솔루즈에프에이	문종두
(주)송이산업	박광열
(주)순수자아	조명재
주식회사수퍼어썸	조동현
주식회사스타리타코	김제일
(주)신경	하지호
(주)신우산업	이정연
주식회사실크로드크리스	김한중
주식회사씨앤디팜	이건우
(주)씨앤케이인더스트리	김경영
주식회사씨케이엘	박성영
주식회사아스페	이홍섭
주식회사아이피아코스메틱	최재근
(주)아인스아이엔씨	최창근
주식회사아티잔	천영구
주식회사알머스	김상용
(주)에터미오트	김치봉
주식회사앤드탑케미칼	조광래
주식회사에그텍	윤택진
(주)에버그린	이승환
주식회사에센루	서정옥
(주)에스앤디엔지	이재동
주식회사에스엔케이	이지연
주식회사에스엔디산업	양기승
주식회사에스엔에스케미컬	이호범
주식회사에스엔에스바이오	이반석
(주)에스엔스트루먼트	김영기
(주)에스엔티	이승훈
(주)에스와이나노텍	이수욱
주식회사에스원계약	김정숙
주식회사에스아이이엘	은희
주식회사에스제이상사	박영조
주식회사에스캠	김동욱
(주)에스탑	이정수
(주)에스피씨	최준태
(주)에어레인	하성용
주식회사에어리얼코리아	예민해인
(주)에어텍	박선영
주식회사에이블루	이명욱
(주)에이엘에스엠	하진우
주식회사에이엘티	서영욱
주식회사에이치엘엠	안성찬
(주)에프셀텍	신동숙
(주)에프알텍	남재국
주식회사에프엔에스	김관구
주식회사엔씨티	서주익
주식회사엔오엔	우덕구
주식회사엔티코리아	채원재
주식회사엘스브릿지	이지인
(주)엘에스케이	이승권
(주)엘에스텍	김 철
(주)엘에스화장품	허용기
주식회사엘바이온	김진희
(주)엘씨아이	정성현
(주)엘.티.아이	장영식
(주)영원코스텍	김재기
(주)예그리나	한성수
주식회사엔스코	김용덕
(주)오서나즈	조경노
주식회사와이비엔넷	오재환
주식회사우주글로벌	길경택
워트주식회사	박승배
주식회사윌클라스	김형수
주식회사월드바이오텍	김대웅
(주)웨이브라워	천찬희
주식회사위드닉스	노만응
(주)윌스트레이딩	장준호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1백만불탑		1백만불탑		1백만불탑		1백만불탑	
(주)유알스기술루션	정희경	(주)파워텍	이구선	더로터스주식회사	오유진	에스비아이상사(주)	변기봉	주식회사시식스튜디오	김향우
주식회사유원산업기술	김옥자	주식회사파인메딕스	전성우	더마비오텍주식회사	염종경	에스스틸	손문식	주식회사씨앤씨코퍼레이션	조은재
주식회사유원인터네셔널	권재환	(주)파크인터네셔널	박재운	더블유메디칼주식회사	신승중	에스에스테레이딩	김용권	주식회사씨지테크	안중건
(주)육리메탈	홍영선	주식회사팍스젠바이오	박영석	더비링크주식회사	정순희	SH캠텍	김수환	주식회사아이바닥	유제학
주식회사이기업엔터프라이즈	홍기용	주식회사팬텀	김상현	디티앤글로벌	이묘택	에스지인터네셔널	조형도	아이엠이인터네셔널	채규리
주식회사이노센트전자	금승호	주식회사포네스	임성빈	라스씨앤씨	김미영	에스케이임업주식회사	정인보	주식회사에스테르	박광재
주식회사이수이엔지	김상수	주식회사퓨어소싱컴퍼니	전민경	로아테크주식회사	이지열	에이더블유에스아이	조형식	주식회사앤씨	이현우
(주)이앤에치	황규익	주식회사프라임테크	김윤주	루브리타코리아	하호성	에이앤피컴퍼니	김수연	주식회사와이즈테크	우장원
주식회사이메스미도코리아	가드로바 자넷	주식회사프로티앤씨	김중태	루에랑주식회사	김직	에이엔지인터네셔널(주)	안형우	주식회사우성이앤에스	조이행
(주)이엔엠코리아	아흐메드사대그 자파르사반	주식회사플라톤벤처스	임지훈	리메세주식회사	한득천	에이치알메디텍	이현철	주식회사유니팩	이경택
주식회사이엠비	윤형상	주식회사플레이오토	김상혁	리브유	정주미	에이치엔케이 인터네셔널	김준겸	주식회사윤창	윤창수
주식회사이즈앤트리	김진우	(주)플루콘	오문수	마리암 트레이딩	사이드 브로혼	에이치엘에스아이앤씨	진중근	주식회사이천	서윤성
주식회사이즈시스템	최광옥	(주)피닉스	김정민	메디한	한갑성	엘에스엔컴퍼니주식회사	유철중	주식회사인벤티스	오훈택
주식회사이호	이희제	(주)피티엔케이	김태윤	명진텍스타일	황재성	엠에스엔티주식회사	공유걸	제이아이치인터네셔널	이진규
인아오오토메이션	남창열	주식회사하이솔	박이경	모린주식회사	임영식	연합농원피이프(주)	설동우	주식회사제이티엔유	전현정
(주)일신종합환경	유남중	(주)하이투	조혜진	모어랩스코리아	노병연	영농조합법인무지개농장	한만응	주식회사지니스	권이랑
(주)자성씨앤티	이선우	주식회사한국교쿠토	쿠사노히로카즈	미래바이오팜(주)	윤호경	영도비철공업사	서봉우	주식회사지스테크	박희영
(주)자이언트케미칼	강동균	주식회사한국신소재	박성준	미부테크주식회사	지영만	제주편백우드영림농조	김상흠	주식회사지연피앤피	진오임
(주)정금공업	정형욱	(주)한라글로벌	김재우	미즈바이베이지	박현정	합법인	고양석	지오비트레이딩컴퍼니	한명선
주식회사제니컴	김복경	(주)한미에프쓰리	장덕철	민테이블	민상준	에이엔코	고양석	주식회사지오엠에스	김민수
(주)제엠디케미칼	황청하	주식회사한성이에스	장욱진	보안글로벌주식회사	유인엽	오뚜기제유주식회사	정병상	주식회사천우	홍용선
(주)제이아이테크	함석현	주식회사한신비텍	왕중준	보성삼베섬유주식회사	강대근	오로타다주식회사	서현보	주식회사창해푸드	이재은
제이에스씨코퍼레이션	이동열	(주)헬스웰메디칼	박상현	(주)부리클	오세민	오크레이브코리아	박봉근	주식회사투케이코퍼레이션	김정혁
제이엔제이트레이더	서기홍	주식회사현진씨엔티	정성환	블루스카이	방영란	원오션	한경은	주식회사파머랜드코리아	안종필
(주)제이엠바이오텍	장지영	(주)홍성	홍창우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원진상사	김원석	주식회사하영코퍼레이션	윤준호
주식회사제이커코리아	공정호	(주)화신엔지니어링	임재현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원파크주식회사	황채원	주식회사해피디아	장창빈
(주)조이라이프	문수미	주식회사휴먼트랙코리아	배성우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위아비주식회사	방영운	주식회사해탈글로벌	김태현
주식회사지앤아이테크	강효란	주식회사휴온스내츨	이충모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위텍	박찬호	주식회사해탈엔에스	이진규
주식회사지앤이글로벌	김조겸	(주)희망노트스	임방호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유일비엔디(주)	권인철	주식회사대경이앤씨	송대식
주식회사지앤이아이	이상섭	(주)희성테크윈	김영숙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오르타다주식회사	이찬호	주식회사엠씨알	권태란
주식회사지오뷰	김현도	제이에스 트레이딩	김병석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유한책임회사스마트아그로	안상수	주식회사이레케미칼	이영희
주식회사지오실크	정병국	가이인터네셔널	오정호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유한회사창조산업	김성수	주식회사크래프트맨	고영남
주식회사지유네트웍스	장귀연	게임금속(주)	정민호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윤무역	김명윤	주영	정 혁
주식회사지청	정영천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이룸푸드시스템	조도성	지에스코리아	정씨니
주식회사지카니어스	함성희	고센시스템	이 명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이지동코리아	한홍현	지에치엔 코퍼레이션	이강호
케이디에이홀딩스	김영석	광성디엔피주식회사	이호성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이지스주식회사	안호갑	지원트레이딩	김중성
주식회사케이씨트레이드	심민섭	구스켓	박이라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인트라스트에너지솔루션	김성휘	진원주식회사	류홍치
주식회사케이아이티	엄성진	남일기계공업(주)	김무근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인트라스트에너지(주)	노백남	창명제어기술(주)	이천석
주식회사케이어스팀	이국희	농업회사법인금산혁신	고태훈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재우에스에프	성익승	청진리텍주식회사	김기호
(주)케이에스엠	이종호	주식회사	고태훈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제이에스에스인터네셔널	서정환	카라디움	이후선
주식회사케이엔디	김승호	농업회사법인 돈마루(주)	이범호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제이케이엔지코리아	김용욱	케이씨엔씨	위한석
케이엔씨글로벌허브	신광오	설악산그린푸드	함승우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제이투케이인터네셔널	정진호	케이엠비(주)	장지국
(주)케이제이아이캠	김광수	농업회사법인데일리버드	최영철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제일머신주식회사	김지영	케이카주식회사	정인국
주식회사캠포유	김동현	농업회사법인테리	권혁구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조선기주식회사	장세훈	코마텍주식회사	문애진
(주)코리아일루미네인터네셔널	최정현	네시피에프앤비	장현순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조은팜 영농조합법인	고영락	코스텍슬루션케이	김형길
주식회사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농업회사법인프롬제주	김병주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강원수출	안권용	콜마크주식회사	김종철
주식회사코스플러스	노창환	누르트레이딩주식회사	SHAFI MUHAMMAD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광진에스앤씨	이민정	크라운산주식회사	황윤찬
주식회사코스만	김진우	다바에너지코리아	강상주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길인터네셔널	김성훈	타이어연합회주식회사	최지민
주식회사코스윈	김우성	다윈이앤씨	신현정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나노엑스	박영성	타입링크스인터네셔널(주)	ALI SHAHZAD
크레이드인터네셔널	이재섭	대동전장(주)	변동일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더오프	손재현	파라랜드	정창민
(주)김즈메드	김송희	대성금속공업(주)	최일성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더피쉬	공문선	피엠더블유주식회사	정철협
(주)테크해브	송천섭	대연화학(주)	김연두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도이프	윤성욱	피엠에스 마린서비스	김동현
주식회사트래딧	조한민	대원엔티주식회사	김중원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레미바이오	이동희	하나상사	원혜선
(주)티에스이노베이션	최병규	대진첨단소재주식회사	유성준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멕스코인터네셔널	정병훈	하이멜	문정환
(주)티엔아이	신중배	대홍코스텍주식회사	전덕수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무게바이오농업회사법인	유명하	주식회사한발중공업	이경미
주식회사티엠티에스	송호철	대화금속(주)	추태호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부퀘스트	황세라	해신수산업어조합법인	이범용
(주)파시	손종탁	더가바인터네셔널	김중성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브이텐시스템	정순영	홍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유)	허성욱
				비앤비주식회사	최영란	주식회사비햅틱스	곽기욱	희영무역	김희순

훈 · 포상자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금탑 산업훈장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온용현
	현대자동차(주)	본부장	이영택
	(주)대창	대표이사	이길상
	주식회사 제놀루션	대표이사	김기욱
	디씨엠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연택
은탑 산업훈장	에쓰오일(주)	대표이사	후세인 알 카타니
	에스엠스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호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용석
	(주)나노엔텍	대표이사	정찬일
	휴마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정학
동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한국에보트진단	대표이사	정재호
	(주)티에스이	대표이사	김철호
	(주)스마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최기석
	주식회사 리메드	대표이사	고은현
	(주)동성화인텍	대표이사	류완수
	(주)상원기계	대표이사	권순목
	스텝코(주)	대표이사	이도 히데오
철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핼스	사장	정해균
	희성축매 주식회사	상무	전성일
	살롬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봉택
	(주)아산 성우하이텍	부사장	정재호
	주식회사 케이티이	대표이사	최형석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사장	김정태
	디와이오토(주)	대표이사	유태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철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포스코	부사장	김광수
	주식회사 앤씨	대표이사	송달호
	(주)현대미포조선	기장	한석봉
	(주)한솔아이엠비	대표이사	조상인
	(주)도루코	사장	백학기
석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미래기연	대표	선우중현
	티오케이첨단재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태
	(주)엘엑스인터네셔널	대표이사	윤춘성
	서울항공화물(주)	대표이사	박무자
	대한조선주식회사	기감	오재희
산업포장	현대삼호중공업(주)	직장	윤병태
	하나머티리얼즈(주)	대표이사	오경석
	우암신소재(주)	대표이사	정동관
	케이비에스미디어주식회사	사장	문보현
	한창기업(주)	대표이사	강장수
	삼성전자(주)	실장	한진만
	(주)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상현
	(주)서플러스글로벌	대표이사	김정웅
	희성축매 주식회사	기감	김진수
	(주)태진다이텍	대표이사	김정만
	엘지이노텍(주)	전무이사	문형수
	하이트진로(주)	상무	황정호
	주식회사탑트라	대표이사	이종엽
	주식회사 티에이치엔	회장	채철
	현대삼호중공업(주)	수석매니저	김신우
희성전자(주)	부사장	최종식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산업포장	(주)영동테크	대표이사	윤찬현
	(주)동보	상무이사	유현상
	주식회사 이수이엔지	대표이사	김상수
근정포장	국립외교원	부장	김양희
	LG전자 일본법인	대표	이영채
산업포장	주식회사 테크로스	사장	박석원
	주식회사 월테크	대표이사	황인섭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김효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장	조우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정홍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류재원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현철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기훈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원욱
	삼성물산(주)	부장	김해영
대통령표창	(주)서플러스글로벌	전무이사	박병도
	(주)현진케미칼	대표이사	박형서
	주식회사 엠씨넥스	상무이사	최수욱
	(주)에이스바이옴	대표이사	김명희
	한화솔루션(주)	부장	변성준
	(주)호원	상무이사	최준혁
	(주)원케미칼	대표이사	이정국
	콜마비엔에이치(주)	상무	신영재
	어업회사법인 예원	대표이사	김중욱
	(주)현대미포조선	수석엔지니어	배민권
	한국알프스(주)	상무이사	김규남
	주식회사 대흥정밀	대표이사	전제항
(주)녹십자웰빙	본부장	오상수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대통령표창	(주)수양캠백	대표이사	박범호
	현대제철주식회사	실장	석윤중
	(주)우신시스템	직장	김종길
	주식회사 신명유압	대표이사	채성완
	주식회사 이노렉스테크놀로지	본부장	변준수
	(주)부미	대표이사	고승범
	주식회사 경신	차장	최진
	비엔스틸라(주)	직장	신동철
	주식회사 신세계파워립	대표	유윤상
	삼양식품(주)	이사	김동찬
	이지돌코리아	대표	한홍현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박정서
	세아상역(주)	총괄수석	이경옥
	벨금속공업(주)	사장	이희평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사장	이정우
	(주)희망노트사	대표이사	임방호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부사장	이희권
	(주)흥아기연	부사장	강은식
	주식회사 씨젠	이사	김윤지
	(주)세현정공	이사	최백용
	(주)세고스	조장	백운자
	(주)대호	대표이사	김후기
	대지정공(주)	전무	조향우
	(주)비엔	대표	전무성
	동진정공(주)	부장	박태건
	(주)성일에스아이엠	대표이사	우창수
	(주)일룸속속	전무이사	정호섭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윤경원
	(주)수산중공업	사원	한재봉
	(주)상원기계	기장	이인성
	주식회사 니텍스제침	과장	김현주
	(주)씨믹스	이사	탁현주
	(주)리템엘앤씨	대표이사	조석현
	(주)이화	대표이사	정윤식
	바디텍메드(주)	차장	김태겸
	(주)티앤엘	대표이사	최윤소
	주식회사보백씨엔에스	대표이사	서동조
	(주)아이패밀리에스씨	대표이사	김태욱
	(주)진영LDM	이사	이수정
	한국알프스(주)	차장	임철섭
	주식회사 단소	부장	이도연
	(주)스몰랩	대표이사	이정규
	주식회사 블루웨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의석
	명지대학교 교수 김태황	교수	김태황
	에스 앤 에스 랭가클럽	이사	김창우
세종해운 주식회사	이사	문동현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최동근	
주식회사 스텝	대표이사	이창석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류희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장	이정훈	
주식회사 엔티에스	대표	안명길	
한국남동발전(주)	차장	정현록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정수	
인탑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근하	
(주)터보코리아	대표이사	박창훈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한은숙	
주식회사 하나은행	차장	송효숙	
주식회사 코엑스	전무	강호연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실장	백승돈	
KLP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종선	
원스타 패키징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정희	
글로벌트렌드	대표	이명현	
창성정밀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호	
한진철관(주)	대표이사	이형석	
강원도	강원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무총리 표창	주식회사 스타비전	대표이사	김병희
	(주)흥아기연	부장	조정식
	인터아시아	대표	주성호
	아메산산업(주)	대표이사	이창배
	(주)세고스	과장	한수정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본부장	김보민
	주식회사 잉글우드랩코리아	부장	신상길
	주식회사 세나트레이딩	대표이사	진교형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이사	김성구
	갑산개발(주)	팀장	한재덕
	(주)세현정공	과장	양현
	한국진공(주)	과장	배재숙
	(주)조이시티	대표이사	조성원
	주식회사 우신세이프티시스템	팀원	조원섭
	주식회사 리메드	사장	홍성필
	한창기업(주)	공장장	서정요
	주식회사 씨젠	부장	김현정
	(주)제이케이인프라	대표	송종호
	주식회사신스틸	법인장	임지훈
	해성앤씨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민
	고모텍(주)	사원	정재남
	(주)창성에이스산업	상무이사	노형석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국무총리 표창	주식회사 셀코스	부장	장문규
	신성델타테크(주)	부장	황성민
	서경브레이징	이사	이용재
	주식회사보백씨엔에스	팀장	박서현
	제룡전기(주)	팀장	최범현
	(주)심텍	차장	지영진
	(주)비엔	상무이사	최학렬
	주식회사 린텍	대표이사	이형주
	(주)한남하이텍	대표이사	최만국
	(주)세라젬	본부장	여순이
	대경이앤씨(주)	전무이사	류문열
	기가비스 주식회사	부장	최종균
	(주)금정	대리	김상환
	(주)코리녹스	부장	김병관
	동진정공(주)	대표이사	이호길
	에스엔패션그룹 주식회사	상무	정기열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대표이사	이성찬
	(주)수산씨에스엠	사원	고기현
	넥센타이어(주)	책임	박진광
	(주)현대정밀	대표이사	황대진
	(주)동보	과장	안상일
	주식회사 저스팀	상무	윤희용
	피에스케이홀딩스(주)	차장	백화석
	희창물산(주)	부장	손성락
	블루포션게임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현근
	(주)멜릭스테크	대표이사	김종오
	금성제지기계(주)	과장	유선열
	주식회사 이즈앤트리	대표	김진우
	(주)마미엘	대표이사	안상준
	(주)우신시스템	수석연구원	양승욱
	(주)함창	대표이사	함영빈
	(주)멀티텍	파트장	박미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복덕규
	(주)풍산	과장	신승관
	부산식품공사	대표	김태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장	김준규
	투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익조
	주식회사디씨엘	부장	이상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장	윤정하
	주식회사 지에이치엘	회장	신기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임	안지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조경진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명지훈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김학성
	주식회사 제일트레이딩	대표이사	권기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민성현
	두산중공업(주)	상무	전하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박영규
	삼성전자(주)	차장	남경아
	주식회사 덕양에코	대표	배명환
	셀포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원태
	주식회사 그라젬	대표이사	박영금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류승민
	(주)코리아나화장품	상무	김관덕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박강표
	주식회사 씨아이메디컬	대표이사	시미즈 키요토
	글로벌컴스(주)	부사장	임한섭
	(주)피오씨코리아	대표이사	이응훈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신상일
	오스템임플란트 일본법인	대표이사	장영환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이지언
	성이바이오(주)	대표이사	전통규
	유한회사 비알엠	대표이사	정종화
	주식회사 솔레온	대표이사	윤기훈
	(주)카운텍	부장	오택근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장	최윤혁	
동주산업(주)	사장	나국민	
(주)밀알오토캠프	대표이사	전승주	
주식회사 다른	대표이사	박도근	
유테크	대표	이동덕	
갑산개발(주)	대표	김영석	
주식회사 창대햇멜시트	이사	이재일	
(주)에드테크	사원	김경순	
내일시스템(주)	상무	최기성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주식회사	부사장	정승렬	
태광후지킨 주식회사	조장	홍지승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이사	이성일	
희성피엠텍(주)	부장	김영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부장	손희권	
터보파워텍(주)	과장	김준호	
한국머신툴스(주)	대표이사	한승배	
주식회사 대원코프	대표이사	윤종원	
제너셀 주식회사	상무이사	백정민	
(주)비엔	주임	김복자	
(주)S-Tech	차장	이재식	
(주)상원기계	책임	조일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	본부장	김재우	
(주)심텍	상무이사	이강혁	
(주)덕인	부장	유희준	
대진금속주식회사	상무	윤주범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부장관 표창	고모텍(주)	실장	이영호
	홍일산업(주)	대표이사	노승용
	주식회사 린텍	부장	신동남
	(주)한솔아이엠비	차장	남대현
	기가비스주식회사	부장	양선호
	주식회사 우주글로벌	대표	길경택
	(주)삼성텍	대표이사	임용택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홍석진
	희창물산(주)	차장	박정우
	(주)킴즈메드	대표이사	김송희
	동진정공(주)	직장	이용호
	제너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복우
	(주)이코니	대표이사	양병재
	주식회사 미래기연	상무	박노훈
	주식회사 덴티스	공장장	최상용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상무이사	장우성
	아이씨케이칼	차장	김한룡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상무이사	정윤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팀장	강영석
	(주)한국실리콘앤리소스	상무이사	서호준
	신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부장	황석기
	비아이피주식회사	부장	이종훈
	갓바위식품(주)	회장	김일현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부장	이민배
	살롬엔지니어링(주)	부장	임재천
	주식회사 대호그린	대표	박윤호
	터보파워텍(주)	반장	성정석
	신성델타테크(주)	파트장	최민호
	(주)지오코리아	대표이사	김인택
	(주)이코니	팀장	김성수
	(주)에드테크	대표	박기용
	(주)씨에이치씨랩	본부장	라종범
	주식회사 이노소니언	이사	허웅
	(주)중앙백신연구소	차장	황지윤
	주식회사 에어리얼 코리아	대표이사	에민해인
	(주)탐텍코리아	대표이사	모상훈
	주식회사 아이피아코스메틱	대표이사	최재근
	(주)지에쓰아이	대표이사	박상혁
	(주)젬마코리아	대표이사	이우중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전무이사	이광열
	주식회사 에스앤씨퍼레이션	대표이사	박형준
	주식회사 진메탈코리아	대표이사	이강일
	루브리타코리아	대표	하호성
	주식회사 프랙	대표이사	이좌진
	위시컴퍼니(주)	대표	박성호
	애터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현
	주식회사 코코베네	대표이사	김용현
	(주)씨믹스	과장	김용한
	주식회사 백터네이트코리아	이사	장윤진
	(주)에이웬스트	부장	이재정
	위시컴퍼니(주)	수석대니저	손혜진
	주식회사 루소	대표이사	김항성
	주식회사 코리나무역	이사	김희영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이사	김진평
	(주)아이패밀리에스씨	차장	박윤아
(주)코스알엑스	대리	김효정	
제이와이오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준우	
주식회사 셀코스	과장	이유석	
(주)디케이엔지	과장	이진희	
주식회사 대하	대표이사	김진운	
(주)이노시엠	부사장	추기호	
주식회사 두민	대표이사	김재영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부장	조명기	
리드웬메디칼	대표	박성효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부장	서정호	
주식회사 다산씨엔텍	대표이사	김봉준	
(주)카운텍	대표이사	이부한	
주식회사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이진수	
농업회사법인 (주) 신우에프에스	대표이사	오재준	
씨피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호	
애터미 주식회사	실장	이윤근	
주식회사 나라테크	대표이사	박노현	
주식회사 삼보에스앤티	차장	김동균	
희성피엠텍(주)	대표이사	이하동	
주식회사 울트라마크	대표이사	조성환	
(주)휴비딕	부장	김규도	
(주)아이글로벌	대표이사	김동규	
(주)뉴필	대표이사	황지수	
주식회사허니스트	대표이사	곽기성	
주식회사 나라테크	과장	이혜영	
(주)마미엘	부장	김민호	
(주)케이디퍼인켄	회장	박재운	
주식회사 유원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재환	
(주)대림엠티아이	부장	정남수	
삼양금속공업(주)	차장	유미숙	
주식회사 비엔에이치 코스메틱	부장	이성수	
주식회사 청담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주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더로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유진
	주식회사 비아이티	대표이사	정병권
	주식회사 제이아이치베이지홀딩스	대표이사	이재호
	제이아이오토텍 주식회사	부장	김선태
	주식회사 니텍스제침	공장장	장병은
	주식회사 비엔에이치 코스메틱	과장	조광래
	(주)코리노스	과장	이창길
	주식회사 가연산업	대표	김성
	주식회사 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최병선
	(주)부원식품	이사	최승덕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주임	김지열
	에스지인터내셔널	대표자	조형도
	주식회사 창대햇멜시트	과장	김은초롱
	주식회사 비전월드	대표이사	장윤석
	매일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상호
	(주)덕인	대리	최은혜
	주식회사 우스세이프티시스템	부장	김장훈
	에이치엠티(주)	이사	김동현
	레이저벨 주식회사	상무이사	김병록
	콜마비엔에이치(주)	부장	홍수영
	주식회사 광양이엔에스	이사	이순창
	에스엠에이치 주식회사	팀장	김기영
	주식회사 플라이업	대표이사	박병규
	주식회사 오크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민규
	주식회사 프라이메테크	대표	김윤주
	신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파트장	이한원
	(주)멀티텍	팀장	홍무경
	위드시스템(주)	과장	이형호
	에치에스캠(주)	대표이사	양재영
	주식회사 엘케이엔지니어링	이사	유재석
	주식회사 동신폴리캠	차장	이수희
	나이스텍(주)	이사	이진학
	엔케이수산(주)	대표이사	이봉희
	주식회사 지오뷰	대표이사	김현도
	캠솔루션(주)	사장	김영록
	태광후지킨 주식회사	팀장	최인
	에이치엠티(주)	이사	김동공
	(주)리브스메드	대표이사	이정주
	주식회사 미래기연	차장	백상중
	주식회사성우하이텍	차장	정태식
	(주)호원	반장	강병일
	(주)성일노텍	대표이사	임민자
	주식회사 태강리씨아텍	대표이사	박종현
	주식회사 고그린라이프	팀장	최성욱
	주식회사 와이엠텍	과장	김학봉
	희성피엠텍(주)	차장	고성관
	(주)재영	차장	정현수
	에스카테크(주)	대표이사	안성규
	위드시스템(주)	대리	나동흠
	(주)에스와이나노텍	대표이사	이수욱
	영도산업(주)	과장	정병주
	오스텝인플라트 주식회사	부장	김민상
	(주)텍스코원	대표이사	유승범
	주식회사 지티지메디칼	대표이사	박세환
	삼양식품(주)	과장	김경호
	주식회사탑프라	부장	서영호
	(주)신우산업	대표이사	이정연
	(주)메피온	대표이사	남중혁
	(주)대명연마	대표이사	김영목
	세계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안창덕
	크라운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윤찬
	이구산업(주)	부장	임은철
	삼양금속공업(주)	과장	이승재
	(주)한라글로벌	대표	김재우
	(주)경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송종운
	주식회사 진에탈코리아	팀장	홍성일
	성은케미칼	대표	변윤환
	주식회사 파우게임즈	대표이사	이광재
	(주)제이비피코리아	차장	김나현
	주식회사 플라이업	차장	이준영
	(주)에너지	과장	김진명
	주식회사 크레진	대표이사	김경웅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회장	최태원
	비아이피주식회사	조장	한수곤
	(주)유일지	본부장	김상희
	주식회사 유라하네스	팀장	신호진
	(주)윈시스템즈	상무	최윤섭
	주식회사 비헵텍스	대표이사	곽기욱
	롯데렌탈(주)	팀장	이정준
	주식회사 알로이스	부사장	신정관
	주식회사 이노팩코리아	주임	선종순
	넥센타이어(주)	부장	유동훈
	한국노블가스(주)	부장	한충희
	미포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오인석
	(주)산수금속	상무이사	황정순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아이씨케미칼	과장	공충식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장	안문현
	(주)중앙백신연구소	대리	이기연
	주식회사 자트인사이트	본부장	김상현
	주식회사 테크온	대표이사	김상봉
	나이스텍(주)	대표이사	신두국
	웅산화학(주)	상무이사	김강현
	(주)세라젬	본부장	이효용
	주식회사 오크라인터내셔널	과장	김민진
	주식회사 프라이메테크	과장	윤은혜
	(주)정금강업	회장	정형욱
	이지스코 주식회사	상무이사	이효용
	한국유타카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기범
	비엠스틸(주)	대리	송해진
	윤성산업(주)	과장	민수진
	미즈바이베이지	대표	박현정
	신포메탈(주)	대표	노대훈
	주식회사 세한글로벌	과장	서현승
	(주)에드테크	대리	김재문
	에이치엠티(주)	대표이사	정용훈
	주식회사 발코	대표이사	김신대
	성문일렉트로닉스(주)	대리	김희주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대표이사	김형석
	주식회사 나경	부사장	김정훈
	신양테크놀러지	대표	김백인
	(주)뉴로시스	대표이사	정윤갑
	(주)보뚜슈퍼푸드	대표이사	김준범
	주식회사 위드닉스	대표이사	노만응
	주식회사 서진악세스	대표이사	황준호
	(주)에스씨엘	부사장	이창섭
	주식회사 에버코스	전무이사	함태훈
	(주)엘에스텍	대표이사	김철
	(주)솔텍	대리	김민지
	(주)엘에스화장품	대표이사	허용기
	(주)경우시스테크	부장	김성준
	(주)나노엔텍	부장	서종원
	나이스텍(주)	수석	박현규
	(주)정금강업	대표이사	정창협
	(주)와이지-원	부사장	송지한
	(주)한드림넷	대표이사	서현원
	주식회사 캠프리	과장	정대영
	(주)두크	차장	조준래
	주식회사 리트빅	연구소장	김진복
	(주)포텍	팀장	이혁재
	플라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영재
	(주)경우시스테크	대표이사	장용준
	주식회사 인아오토메이션	대표이사	남창열
	주식회사 이노팩코리아	부장	김보현
	주식회사 태하	과장	박주용
	(주)에이취스트	부장	이홍근
	주식회사피에스디이	대표이사	박동석
	(주)한미에프쓰리	차장	최정문
	(주)에너지	부장	허정욱
	태영산업주식회사	대표	강태기
	주식회사 에이더블유에스아이	대표이사	조형식
	주식회사 씨니스코파	팀장	이지균
	이지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안호갑
	주식회사 엘텍	대표이사	안주현
	주식회사 에스아이아이엘	부장	심재진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사장	김영제
	(주)에스디씨아이티	차장	이승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송희몽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에스	팀장	권수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박효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이유진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차장	김기동
	포스코재팬 주식회사	실장	강석원
	나이플러스(주)	대표이사	유경석
	주식회사 금산물	대표	서병훈
	주식회사 피앤피바이오팜	대표이사	신향철
	주식회사 휴마테크	대표이사	황윤식
	농협회사법인(주) 참웃들	대표이사	정태영
	(주)시안	대표이사	염성준
	주식회사 아썸닉스	대표이사	정우열
	주식회사 마르페	대표이사	김택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정순혁
	주식회사 코엑스	차장	황진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상운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팀장	김영훈
	주식회사 엑심베이	대표이사	김준현
	주식회사 디에이치코리아	팀장	김수민
	하이트론즈 솔루션스	대표	정승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최진형
	케이웨어(주)	부장	장현태
	(주)경연전람	상무이사	김대연
	주식회사 일레븐전자	이사	조태연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	팀장	이은균
	중국광저우선학무역	대표	김경덕
	(주)영산글로벌	상무	양국진
	(주)피엔티	대표이사	김준섭
	주식회사 바이오넷	대표이사	민스티븐 상원
	주식회사 제이앤씨	대표이사	배천배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박승룡
	주식회사 화인특장	대표이사	최종석
	(주)지에스리테일	본부장	김중수
	(주)티디엠	대표이사	김선미
	주식회사 메디언스	대표이사	박상재
	(주)제이앤에스글로벌	대표	송미령
	세호마린솔루션즈(주)	대표이사	김영원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이계열
	주식회사에이치케이시틸	대표이사	김혁권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김예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송민주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임	김현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	이유진
	피씨엘(주)	대표이사	김소연
	충청북도	전문경력관	조규선
	(주)부산은행	대리	황선용
	경상북도	주무관	임흥식
	(주)트레드링스	대표이사	박민규
	에이치엠엔(주)	팀장	박승준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이서진
	씨엠에이씨지엠코리아(주)	소장	이태수
	스위스포트코리아(주)	본부장	이혁민
	(주)엘엑스인터내셔널	상무	이강녕
	희창물산(주)	이사	김성목
	대산모델	대표	송재혁
	인텔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최재훈
	(주)마녀공장	대표이사	김현수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유승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구은아
	KYK김영귀환원수(주)	이사	안재한
	에스엔패션그룹 주식회사	이사	윤시영
	LH Brands GmbH	CEO	에이빈 헛트케
	쓰촨 스타 홈쇼핑	Project Manager	리양
	비코산	대표	응우옌 득 꾸이엔
	Weihai Xieda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대표	장양
	피닉스 그룹	회장	수레시 추카팔리
	SAVA Ltd	대표	유신 알렉세이
	아일렉스 남아공	CEO	요하네스 크리스티안 스톨츠
	메디맥스 델 노르테	대표	디에고 아르만도 리모스 에스ตา비요
	중앙렌탈(주)	대표이사	권도현
	(주)네오엑스포	대표이사	장화윤
	(주)케이비비	대표이사	이창식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정희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과장	유민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김근호
	인천상공회의소	차장	유영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송나영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센터장	이종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원	권도연
	화성시수출입무지원센터	과장	최한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안희재
	(주)대구은행	과장	김경한
	(주)부산은행	대리	정현수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박선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김명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차장	양명배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이상언
	와이앤제이커넥트	대표	김영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장	박은아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무역	본부장	김중수
	(주)한진휴프	대표이사	김동수
	(주)비전팩솔루션	대표이사	이종성
	주식회사 보고통상	이사	양근배
	(주)케이티	대표	김영신
	(주)진산아이티	대표이사	박귀희
	(주)행성사	법인장	문희준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무역	법인장	홍석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윤구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정경호
	위해성세국제복무제한공사	총경리	전양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장	하세준
	세종특별자치시	주무관	김지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차우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온대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정지희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안재형
	창원기술정공	대표	오병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	이기형

산업부장관 표창

장기렌트, 단기렌트, 출장정비까지!

**이 모든 걸
단 한 번에 해결!**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업계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주)하모니렌트카가 되겠습니다.

**하모니렌트카
1661-9763**



상호 : (주)하모니렌트카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08 세안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9-86-31667 | 대표자명 : 김연운
렌트문의 : 1661-9763 | 고객센터 : 1588-5802 | 이메일 : harmony_rentcar@naver.com | 팩스 : 02-6442-7977

Global Language

비즈니스 베트남어 회의 본론(68)

이렇게도 말해 보세요!

회의의 목적은 급여 제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Mục đích của cuộc họp là xem xét chế độ lương.
목 디 꾸어 꾸억 험 라 썸 썸 제 도 르영

회의의 목적은 원가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Mục đích của cuộc họp là thảo luận phương án giảm chi phí.
목 디 꾸어 꾸억 험 라 타오 루언 프영 안 잠 지 피

회의의 목적은 복리후생 제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Mục đích của cuộc họp là xem xét chế độ phúc lợi.
목 디 꾸어 꾸억 험 라 썸 썸 제 도 폭 러이

회의의 목적은 부서간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Mục đích của cuộc họp là thảo luận phân chia nhiệm vụ các bộ phận.
목 디 꾸어 꾸억 험 라 타오 루언 편 지어 니엠 부 각 보 편

우선 KPI부터 논의합시다.
Trước tiên hãy thảo luận KPI.
즈억 띠엔 하이 타오 루언 KPI

ECK교육(www.eckedu.com) 제공

아랍어

A: ماذا تريد أن نتناول؟

[마-다 투리-드 안 타타나왈?]

당신은 무엇을 먹길 원합니까?

B: سأشرب القهوة لأنني لا أشعر بالجوع كثيرا

[싸아슈랍 알까흐와 리안니 라 아슈으르 빌 주-이 케씨-란]
나는 커피만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고프지 않아서요.

A: لماذا؟

[리마-다?]

왜요?

B: لأنني أكلت وجبة الغذاء متأخرا.

[리안니 아칼투 와즈바탈 가다 무타아카란]
왜냐하면 나는 점심 식사를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슐리의 Topic English

#75 Business Language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강남YBM 스피킹 강사 애슐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의 특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 It differs from 'regular' English in many ways.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인 영어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친구와 대화하는 경우라면 slang, 약어, 속어, 유행어 등등 무엇이든 심한 욕설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단 그사이 정말 편한 사이라면요. 하지만, 우리가 소위 'official(공식적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딱딱한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상황이라면 위와는 반대겠죠.

For instance, we may greet a close friend with a "Hey! Wassup? /how'd you do?"
But with a co-worker, we are often better off saying, "Hello. How are you?"

2. It is the business language that is used internationally.

비즈니스 언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lobish라고 부르기도 하죠!

3. It is a business language that includes different types.

비즈니스 언어는 다양한 타입을 포함합니다.

4. It is generally short and specific.

비즈니스 언어는 짧고 구체적입니다.

5. There is a metaphor or comparison in business English expressions.

비즈니스 영어의 표현에는 은유와 비고가 존재합니다.

6. It differs from "regular" English in many ways.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인 영어와는 다릅니다.



애슐리
강남YBM어학원 스피킹 전문 강사
넥스트트위스트스피킹실전문교사 10회 저자

WT 실용비즈니스 중국어회화 375

주균한의 특특 중국어 01.新年 (새해...01)

A: 时间好快, 马上就要进入新的一年了.
[스지엔 하오 콰이, 마샹 짜우 야오 쩌루 신 더 이니엔 러.]
(shíjiān hǎo kuài, mǎshàng jiù yào jìn rù xīn de yīnián le.)
시간 참 빨라요. 곧 새해네요.

B: 对啊, 时间好快, 不知不觉已经12月了.
[뚜이아, 슨지엔 하오 콰이, 부지부지에 이징 스얼위에 러.]
(duì, shíjiān hǎo kuài, bùzhībùjué yǐjīng shíèryuè le.)
그래요. 정말 빨라요. 어느새 12월이네요.

A: 感觉今年都没做什么事.
[간쥐에 진니엔 도우 메이 쭈오 셴머 스.]
(gǎnjué jīnnián dōu méi zuò shénme shì.)
올해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B: 对啊, 都待在家里躲病毒.
[뚜이아, 도우 따이 짜이 지아 리 두오 뽕두.]
(duì, dōu dài zài jiā lǐ duǒ bìngdú.)
맞아요, 집에 있으면서 바이러스만 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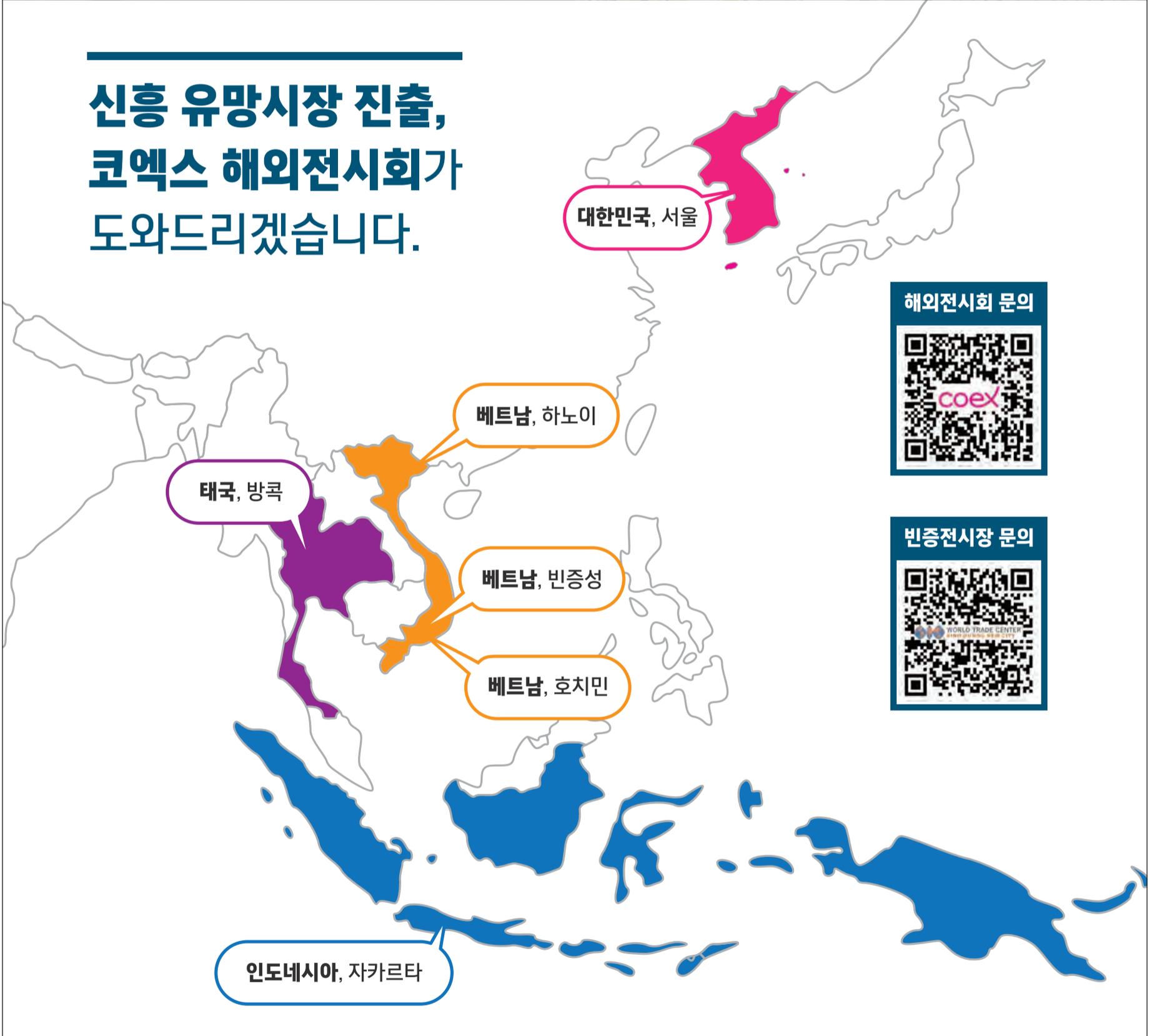
주 균 한(조우권한)
대만 지룽 출생
대만 중국문화대학교(中國文化大學) 한국어 학과 졸업
대만 게임회사 차이니스 게이머 한국팀 근무
대만 구국단중심학습센터(救國團終身學習中心) 한국어 전임 교사
imnelson1204@gmail.com

:: 주요 단어 ::

新年: [xīnnián] 신년, 새해
不知不觉: [bùzhībùju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躲: [duǒ] 숨다, 피하다, 비키다
病毒: [bìngdú] 바이러스



**신흥 유망시장 진출,
코엑스 해외전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처

해외전시회 문의

베트남 빈증무역센터 전시장 문의

T. 02-6000-8004/8125

E. wtexpo@coex.co.kr

E. overseas@coex.co.kr

알립니다

●2022년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KOTRA는 국내 유망전시회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전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전시회를 대상으로 바이어 유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기업은 ▷온라인 전시관 구축 ▷해외 참가기업 및 해외연사 유치 ▷해외기업 자가격리면제 검증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이메일(jt1.yoo20@kotra.or.kr)로 하면 된다.

- 문의 : KOTRA
- 전화 : 02-3460-7259
- 메일 : jt1.yoo20@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라스베이거스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회와 KOTRA는 방송 장비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NAB)' 참가 시 부스 임차료, 현지 간담회 개최, 상담 주선, 운송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시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2월 17일까지 이메일(jyshin@kbita.kr)로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낸 후 온라인(www.gep.or.kr)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참가신청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문의 :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회
- 전화 : 02-784-0552
- 메일 : jyshin@kbita.kr
- 홈페이지 : www.kbita.kr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KOTRA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과 수출 증진 방안을 위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1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거나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KOTRA(www.kotra.or.kr)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중 한 곳을 선택해(중복신청 불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KOTRA
- 전화 : 02-3460-7545
- 메일 : 2022export@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해외 상표 조사 지원사업

KOTRA는 해외 수출(예정) 기업·브랜드의 상표권 확보 및 보호, 분쟁 예방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 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유무와 현황, 유사정도, 등록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5건(국가, 상표, 지정상품별 각 1건으로 인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10일까지 온라인(www.kotra.or.kr)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KOTRA
- 홈페이지 : www.kotra.or.kr

●해외 공동물류센터사업 참가기업 모집

KOTRA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KOTRA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이용해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도 총액 100~2000만 원 중 중소기업은 70%까지, 중견기업은 50%까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쿠웨이트, 가나, 중국(창춘·하얼빈)을 제외한 무역관 소재 전 지역을 대상으로 1개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온라인(www.kotra.or.kr)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KOTRA
- 전화 : 02-3460-7445, 7426, 7428
- 홈페이지 : www.kotra.or.kr

●방산 분야 디지털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KOTRA는 방산, 치안, 드론UAV,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의 중남미·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기업·제품소개 프레젠테이션 제작, 관심 바

이어와의 1대1 상담 주선 등을 지원한다. 먼저 사업 참여기업 50개 사는 영문 PPT와 발표할 임직원만 준비하면 10분 내외의 소개 프레젠테이션 영상 클립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촬영 및 편집은 방산센터가 지원한다. 이후 현지 무역관이 타깃 바이어군을 발굴해 바이어가 관심을 보일만 한 기업 6~7사를 선택, 1시간 분량의 맞춤형 웨비나 영상으로 편집한다. 해당 지역 언어로 된 큐레이션을 추가해 전달력을 높인 영상을 바이어에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웨비나 이후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 기업과 1대1 상담 등을 주선한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온라인(www.kotra.or.kr)으로 해야 한다.

- 문의 : KOTRA
- 전화 : 02-3460-7818
- 메일 : onnet@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경기] 2022년 총칭 온라인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GBC는 참여기업의 마케팅을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온라인 채널 입점·판매 관리 ▷오프라인 제휴채널 입점 지원 ▷라이브 방송 대응 지원 ▷전시·행사 참가 지원 ▷온라인 배송 대응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 후 1년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접수해야 한다.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화 : 031-259-6132, 6135, 6138, 6140
- 메일 : ehseol@gbsa.or.kr
- 홈페이지 : www.gbsa.or.kr

●[경기] 무료 화상 수출상담 지원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을 하고 싶지만 어느 국가에 수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 이미 수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은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화상 수출상담(GBC-DTS)을 지원한다. GBC-DTS는 기업의 제품과 딱 맞는 바이어를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무료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로, 참여 바이어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파트너인 만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GBC가 소재한 10개 국가(중국,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란, 인도, 케냐, 태국, 터키) 바이어와 화상상담이 가능하다. 월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신청 시 최대 3개국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31일까지 온라인(dts.gbcprime.com)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화 : 031-888-5401, 0402
- 메일 : minjeongmoon@gbsa.or.kr
- 홈페이지 : www.gbsa.or.kr

●[인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 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거래선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 시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수출 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다. 기업당 연 1회, 500만 원 이내로 소요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bizok.incheon.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인천광역시
- 전화 : 032-440-4259
- 메일 : jwon1006@korea.kr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울산]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울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어 소통애로를 해소해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번역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출장 시 바이어 상담에 사용한 통역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시 사용한 통역 ▷업무 관련 화상회의 및 전화상담 통역 ▷계약서, 견적서(인보이스), 협약서, 회사소개서, 제품(기술) 소개서 번역 ▷홈페이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팸플릿, 리플릿 번역 ▷제품 매뉴얼(절차서), 샘플 제작 관련 문서 번역 ▷기술·서비스 제

휴문서, 해외 인증 관련 문서(ISO, 특허권) 번역 ▷수출상담 관련 전자메일 및 팩스 번역 등을 대상으로 정해진 단가표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접수는 기업에서 선집행한 후, 해당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사후신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31일까지 온라인(www.ultrade.kr)으로 해야 한다.

- 문의 : 울산경제진흥원
- 전화 : 052-283-7155
- 메일 : lyj1105@uepa.or.kr
- 홈페이지 : www.uepa.or.kr

●[울산] 수입국 다변화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광역시시는 코로나19 확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수입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제조기업 중 외국산 원재료, 부품, 기계, 설비 등을 대일 직수입하거나 국내의 자회사(법인, 지사, 영업사무소등) 및 수입대행업체(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하던 기업이다. 수출 규제 조치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체 수입처 발굴이 필요한 기업(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기업은 ▷대체 수입처 발굴·알선 에이전시 용역비 ▷대체 수입 상담 해외 출장비용 ▷대체 수입 물류비(기존 일본 수입 운송비와의 차액) ▷기술 라이선스로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비(대체 수입 조사 및 상담)를 최대 400만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31일까지 온라인(ultrade.kr)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전화 : 052-287-3072
- 홈페이지 : www.kita.net

●[충북] 해외바이어 대상 연하장 발송 지원사업

충청북도내 충북기업진흥원 및 충청지방우정청, 청주우체국과 협력해 해외바이어 대상 연하장 발송을 지원한다. 단, 해외바이어 수신처가 코로나19로 인한 발송제한 국가일 경우 발송이 취소될 수 있다. 연하장 발송을 희망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온라인(cbgms.chungbuk.go.kr)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충청북도
- 전화 : 043-220-3475
- 홈페이지 : www.chungbuk.go.kr

●[경남] 진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진주시는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대응능력 제고 및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 보장을 위해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개별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종목은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 종목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 이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31일까지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한 후 팩스(02-6234-1443) 또는 이메일(ldc00944@ksure.or.kr)로 접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방문(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접수도 가능하다.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전화 : 055-286-9392
- 팩스 : 02-6234-1443
- 메일 : ldc00944@ksure.or.kr
- 홈페이지 : www.ksure.or.kr

● <한국무역신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행사, 이벤트, 모집 등의 공고를 접수합니다.
 ■ Tel : 02-6000-3124 Fax : 02-6000-3122
 ■ E-mail : wtrade07@gmail.com

한국무역신문 www.weeklytrade.co.kr
 발행인·대표이사 : 김석경 편집인 : 김보근
 인쇄인 : 이병동 편집디자인 : 조철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층 427-2호)
 구독 : 02-6000-3123 광고 : 02-6000-3116

대표전화 : 02-6000-3119 팩스 : 02-6000-3122
 E메일 : wtrade07@gmail.com 정가 2,500원 정기구독료 : 1년 100,000원
 등록일자 : 2007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 다07698

제58회 무역의 날

무역 강국 대한 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